

마
반 개념을 쉬운 문제로 반복 훈련하는

국어문법

드릴북

정답 및 해설

I 음운

01 음운

본문 p. 12

01-1 음운의 이해

- 1 (1) ㅅ, ㅆ (2) ㅇ, ㄹ
(3) ㄱ, ㅋ (4) ㅎ, ㅁ
(5) ㅈ, ㅊ (6) ㄴ, ㄷ
- 2 (1) [발] (2) [말:]
(3) [겨울뽕], [밤:] (4) [천눈], [눈:보라]
- 3 (1) 불 (2) 몸 (3) 방 (4) 몸, 맛

01-2 자음

- 4 (1) ㅂ, ㅃ, ㅍ, ㅁ (2) ㄷ, ㅌ, ㅍ, ㅅ, ㅆ, ㄴ, ㄹ
(3) ㅈ, ㅉ, ㅊ, ㅋ (4) ㄱ, ㅋ, ㅋ, ㅁ
(5) ㅎ (6) ㅂ, ㅃ, ㅍ, ㄷ, ㅌ, ㅍ, ㅅ, ㅆ, ㅋ
(7) ㅈ, ㅉ, ㅊ, ㅋ (8) ㅅ, ㅆ, ㅎ
(9) ㅁ, ㄴ, ㅇ (10) ㄹ
- 5 (1) 예사소리 (2) 된소리
(3) 거센소리 (4) 비음
(5) 유음
- 6 (1) ㅇ (2) ㅌ
(3) ㅂ (4) ㅎ
(5) ㅊ (6) ㄹ
(7) ㅁ (8) ㅅ
(9) ㄱ (10) ㅈ

01-3 모음

- 7 (1) ㅣ, ㅑ, ㅓ, ㅕ, ㅗ, ㅛ
(3) ㅓ, ㅕ, ㅗ
(5) ㅡ, ㅜ, ㅞ
- 8 (1) 바람 (2) 외모
(3) 우위 (4) 제기
(5) 바람, 제기 (6) 외모, 우위

- 9 (1) 예-ㅣ + ㅕ (2) 유-ㅣ + ㅛ
(3) 왜-ㅛ + ㅕ (4) 권-ㅛ + ㅛ



개념 적용 연습

본문 p. 16

- 01 (1) ○ (2) ○ (3) × (4) × (5) × (6) ○
- 02 (1) 조음 방법, 조음 위치 (2) 파찰음 (3) ㅁ, ㄹ (4) ㅁ, ㄴ, ㅇ, ㄹ (5) 파열음, 마찰음
- 03 (1) ○ (2) × (3) ○ (4) ○ (5) × (6) ×

01

- (1) '발'의 첫소리 'ㅂ'과 끝소리 'ㄹ'을 바꾸면 '강'과 '잔'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발'의 가운뎃소리 'ㅌ'를 바꾸면 '불'과 '벌'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불'의 가운뎃소리는 첫소리의 아래쪽에 쓰지만, '달, 밤'은 첫소리의 오른쪽에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 (4) '달, 밤'을 보면 첫소리와 끝소리에 어떤 자음을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른 단어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음 역시 모음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어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5) 제시된 문장을 통해 '말'을 길게 발음할 때는 '언어'라는 의미를 지니고, 말을 짧게 발음할 때는 '동물의 한 종류'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의 음운이 바뀌는 것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를 통해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모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줌을 알 수 있다.

02

- (1) 자음 체계표를 보면, 조음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잇몸소리인 'ㄷ, ㅌ, ㅍ, ㅅ'의 조음 위치는 같고, 조음 방법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2) 자음 중에서 파열음(ㅂ, ㅃ, ㅍ / ㄷ, ㅌ, ㅍ / ㄱ, ㅋ, ㅋ)과 파찰음(ㅈ, ㅉ, ㅊ)만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삼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찰음(ㅅ, ㅆ)은 '예사소리-된소리'의

이중 체계만 갖추고 있다.

- (3) ㉔에는 입술소리이면서 비음인 ‘ㄹ’이, ㉕에는 잇몸소리이면서 유음인 ‘ㄴ’이 알맞다.
- (4) ‘ㄴ, ㅁ, ㅂ’은 안올림소리에 해당한다. 올림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ㄷ, ㄴ, ㄹ, ㄷ’이다.
- (5) ‘교복’에서는 안올림소리 중 파열음인 ‘ㄱ, ㅂ’이, ‘해우소’에서는 안올림소리 중 마찰음인 ‘ㅎ, ㅅ’이 사용되고 있다.

03

- (1)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후설 모음으로,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 (2) ㉔는 전설 모음에 해당하므로, ㉔에 해당하는 모음으로는 ‘ㅣ, ㅔ, ㅖ, ㅗ, ㅛ’를 들 수 있다. ‘ㅡ, ㅜ’는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 (3) ㉔는 고모음에 해당하므로, ㉔에 해당하는 모음으로는 ‘ㅣ, ㅗ, ㅛ, ㅜ’가 있다.
- (4) ㉔는 전설 모음을, ㉔는 고모음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모음은 ‘ㅣ, ㅗ’이다.
- (5) ㉔는 평순 모음을, ㉔는 고모음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모음은 ‘ㅣ, ㅗ’이다.
- (6) <보기 2>에 나타난 승리 조건 중 ㉔는 전설 모음을, ㉔는 평순 모음을, ㉔는 고모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모음은 ‘ㅣ’이다.

02 음운의 변동 (1)

본문 p. 19

02-1 교체 ①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1 (1) ㄱ (2) ㄱ
(3) ㄷ (4) ㄷ
(5) ㄱ (6) ㄷ
(7) ㄷ (8) ㄷ
(9) ㄷ
- 2 (1) [강산] (2) [숨썩]
(3) [바깥] (4) [동녘]
(5) [문밖] (6) [들꼴]
- 3 (1) ○ (2) ○ (3) ×
(4) × (5) × (6) ×

02-2 교체 ② - 비음화

4 밥물, 왕릉, 잡는

- 5 (1) [강능] (2) [던문]
(3) [암날] (4) [반는다]
(5) [대통령] (6) [동넙]
(7) [항노] (8) [음넉]
(9) [단는다]

- 6 (1) [석뉴] → [성뉴] (2) [막논] → [망논]
(3) [왕십니] → [왕심니]

02-3 교체 ③ - 유음화

7 난로, 실내

- 8 (1) [질력] (2) [달련]
(3) [할라산] (4) [실론]
(5) [굴라무] (6) [달라라]
(7) [설로] (8) [졸럼끼]
(9) [불로리]

- 9 (1) [광:할루] (2) [골:란]
(3) [설:랄] (4) [똥:른]
(5) [살림]

02-4 교체 ④ - 된소리되기(경음화)

10 발전, 덮개, 옆집

- 11 (1) [물찹] (2) [닫따]
(3) [입꼬] (4) [묻따]
(5) [삼꼬] (6) [올꼬름]
(7) [널께] (8) [갈쫘]
(9) [남썰다] (10) [발똥]
(11) [입썰] (12) [인똥]

- 12 (1) [할꺼슬] (2) [할쑤록]
(3) [갈떼개] (4) [만날싸람]
(5) [갈쫘비] (6) [머글쫘]
(7) [할또리] (8) [누울짜리]
(9) [할찌라도]

02-5 교체 ⑤ - 구개음화

- 13** (1) [마지] (2) [땀바지]
 (3) [여다지] (4) [바치]
 (5) [꼬치] (6) [홀치다]
 (7) [부치다] (8) [난나치]
 (9) [미다지]
- 14** (1) [거치다] (2) [무티다]
 (3) [다치다] (4) [구티다] → [구치다]
 (5) [꼬티다] → [꼬치다] (6) [마티다] → [마치다]
- 15** (1) [부천따] (2) [소치나]
 (3) [바쳐서] (4) [파치다]

02-6 교체 ⑥ - 반모음화

- 16** (1) [벼] (2) [늪]
 (3) [와] (4) [저]
 (5) [쳐] (6) [찌]
- 17** (1) ㅏ (2) ㅓ
 (3) ㅣ (4) ㅜ
 (5) ㅡ (6) ㅗ
- 18** (1) ㅗ (2) ㅓ
 (3) ㅓ (4) ㅓ



개념 적용 연습

본문 p. 25

- 01** (1) 산, 말, 곰, 총 (2) ㄱ, ㄷ, ㅂ (3) 울림소리
 (4) 낮, 허용 (5) [거뿔]
- 02** (1) 조음 방법 (2) 안울림소리 'ㄱ'이 울림소리 'ㅇ'
 (3) 먹는다 (4) 비음 뒤의 유음 (5) 'ㄹ'의 앞
- 03** (1) 찰나 (2) [꺠꺠] (3) 순행 동화, 역행 동화
 (4) 논리 (5) 설날
- 04** (1) × (2) ○ (3) ○ (4) × (5) ○
- 05** (1) × (2) ○ (3) × (4) ○ (5) ×
- 06** (1) × (2) ○ (3) × (4) ○ (5) ×

01

- (1) '밖'은 [박]으로, '앞'은 [압]으로 발음되므로, 음절 끝의 자음

이 바뀌는 사례에 해당한다.

- (2) '부엌'은 [부억]으로, '빛'과 '숲'은 각각 [빈], [슌]으로 발음되므로,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뀔을 알 수 있다.
- (3) '산, 말, 곰, 총' 모두 음절 끝의 자음은 울림소리에 해당하므로, 음절 끝이 울림소리일 때는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4) '낮'은 [난]으로, '하늘'은 [히을]으로 발음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밥'은 [밥]으로 발음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로 추가할 수 없다.
- (5) <보기 1>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옷 위'와 같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옷 위'는 [오뒤]로 발음된다.'를 통해, '겉옷'은 [거뿔]으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02

- (1) '자음 체계표'를 통해 'ㄱ'이 'ㅇ'으로 바뀌면서 조음 방법이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다.
- (2) '국물'이 [궁물]로 발음되는 것과 자음 체계표를 통해 안울림소리 'ㄱ'이 울림소리 'ㅇ'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먹는다'는 [멍는다]로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찰나'는 [찰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찰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 (4) '향로'는 [향:노]로 발음되는데, 이는 비음 'ㅇ' 뒤의 유음이 비음 'ㄴ'으로 바뀐 경우이다.
- (5) '만머느리'는 'ㄷ'이 비음 'ㄹ' 앞에서 [만머느리]로 발음되고, '밥물'은 'ㅂ'이 비음 'ㄹ' 앞에서 비음 'ㄹ'으로 바뀐 경우이므로, 'ㄷ, ㅂ'이 'ㄹ' 앞에서 비음 'ㄴ, ㄹ'으로 소리 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03

- (1) '남루'는 비음 'ㄹ, ㅇ' 뒤의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어 [남:루]로 발음되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 (2)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리]로 바뀌는 현상을 유음화라 했으므로, '꺠꺠'는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리]로 바뀌게 되므로 [꺠꺠]로 발음해야 한다.
- (3) <보기>를 통해 '칼날'은 'ㄹ' 뒤의 'ㄴ'이 [리]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 나는 현상인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난로'는 'ㄹ' 앞의 'ㄴ'이 [리]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 나는 현상인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 (4) '신라'는 역행 동화가 일어나므로 '논리'와 동화 방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칼날'은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5) '설날'은 [설:랄]로 발음되고,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음화,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반면 '난로'는 [날:로]로 발음되어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왕릉'은 [왕능]으로 발음되어 순행 동화가 일어나지만 유음화가 아닌 비음화에 해당한다.

04

- (1) '국밥'을 [국뻘]으로 발음하는 것은 앞말의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ㅂ'을 [ㅍ]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그리고 '삼고'를 [삼꼬]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ㄱ'을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2) '꽃다발'을 [꼇파발]로 발음하는 것은 앞말의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ㄷ'을 [ㅌ]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그리고 '할지만'을 [할찌만]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ㅌ]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3) '울조리다'를 [읍조리다]로 발음하는 것은 앞말의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ㄷ'을 [ㅌ]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그리고 '먹을지언정'은 어간 '먹-'과 어미 '-을지언정'으로 분석된다. [머글찌언정]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지언정'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ㄷ'을 [ㅌ]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4) '앉을수록'을 [안즐쭈록]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수록'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ㄷ'을 [ㅌ]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기델 곳'을 [기델꼬시]로 발음하는 것은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을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5) '훔다'를 [훔따]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ㅌ]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그리고 '떠날지라도'는 어미 '-(으)ㄹ지라도'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ㄷ'을 [ㅌ]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05

- (1) ㉠은 '불-'에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이-'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단어이다. '불-'은 받침 'ㄷ'이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은 [부친]으로 발음된다.
- (2) '날날이'의 둘째 음절 '날'의 받침 'ㄷ'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ㅣ'와 만나 [치]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

어난다. '날날이'의 첫째 음절 '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난]으로 발음된 후, 비음화에 의해 [난]으로 소리 난다. 따라서 '날날이'는 [난:나치]로 발음된다.

- (3) ㉡은 '발 + 이랑'으로,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고 [반나랑]으로 발음된다.
- (4) ㉢에서 '묻-'의 'ㄷ'이 '-히-'의 'ㅎ'과 결합하여 [ㅌ]이 된 후,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치]으로 교체되어 [무치고]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
- (5) ㉣은 '홀- + 이불'로, '이불'은 실질 형태소이다. 따라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6

- (1) <보기>에서 반모음화는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현상이라 하였으므로,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한다.
- (2) ㉠을 통해 용언 어간의 단모음인 'ㄴ, ㄱ'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반모음 'ㄴ/ㄷ'으로 교체된다고 하였으므로, '오-+-아'는 [와]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 (3) '자-+-아서'가 [자서]로 발음되는 것은 어간의 단모음 'ㄱ'가 탈락되는 현상에 해당한다.
- (4)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5) '[뛰여]'는 반모음 'ㅣ'가 어미의 단모음 'ㄴ'에 첨가되는 현상에 해당하고, '[끼여]'는 반모음 'ㅣ'가 어미의 단모음 'ㄴ'에 첨가되는 현상에 해당한다.

03 음운의 변동 (2)

본문 p. 31

03-1 탈락 ① - 자음군 단순화(자음 탈락)

- 1 (1) ㄱ (2) ㄱ
(3) ㄴ (4) ㅂ
(5) ㅂ (6) ㄱ
(7) ㄹ (8) ㄴ
(9) ㄴ
- 2 (1) ㅂ (2) ㅂ
(3) ㄹ (4) ㄹ
(5) ㄹ (6) ㄱ

- (7) ㄹ
(9) ㄱ

(8) ㅁ

03-2 탈락 ② - 'ㄹ' 탈락(자음 탈락)

3 아드님, 버드나무

- 4 (1) 녹슨 (2) 어지니
(3) 조는 (4) 아느냐
(5) 가느오 (6) 노느냐
(8) 읊니까 (8) 거치니

- 5 (1) 소나무 (2) 겨우내
(3) 부삽 (4) 나날이
(5) 기다랗다 (6) 싸전

03-3 탈락 ③ - 'ㅎ' 탈락(자음 탈락)

- 6 (1) [너어] (2) [노아]
(3) [싸이다] (4) [빠아서]

- 7 (1) [다르니까] (2) [편차니]
(3) [고르며] (4) [언짜느니]
(5) [마나] (6) [뚜러]

- 8 (1) ○ (2) × (3) ×
(4) ○ (5) ○ (6) ○

03-4 탈락 ④ - 모음 탈락

- 9 (1) 떠서 (2) 커
(3) 고파 (4) 다다라
(5) 슬퍼 (6) 잠가
(7) 바빴다 (8) 예뻐다

- 10 (1) 자라라 (2) 건너서
(3) 만났다 (4) 났다

- 11 (1) 가쁘- (2) 들르-
(3) 아프- (4) 치르-
(5) 나쁘- (6) 트-



개념 적용 연습

본문 p. 35

- 01 (1) ㉠의 규정 (2) ㉡의 규정 (3) ㉢의 규정
(4) ㉣의 규정, ㉤의 규정 (5) ㉥의 규정

- 02 (1) ㄴ, ㅅ (2) 둥그니 (3) 합성어 (4) 다달이
(5) 도니

- 03 (1) × (2) × (3) × (4) ○ (5) ○

- 04 (1) × (2) × (3) ×

01

- (1) '활다[할따]'는 '활-'의 받침이 'ㅈ'에 해당하므로, 겹받침 'ㅈ'은 뒤의 자음이 탈락하여 각각 [리]으로 발음한다는 ㉠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2) '닭고'의 '닭-'의 받침이 'ㅈ'에 해당하므로, 겹받침 'ㅈ'은 앞선 자음이 탈락하여 [미]으로 발음한다는 ㉡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발게[발께]'는 '발-'의 'ㄹ'이 용언의 어간 말음에 해당하고 'ㄱ' 앞에서 [리]로 발음되므로 ㉢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4) '맑다, 밝고'의 '맑-'과 '밝-' 모두 'ㄹ'이 용언의 어간 말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맑다'와 달리 '밝고'는 뒤에 'ㄱ'이 오므로 [발꼬]로 발음된다. 따라서 '맑다'는 ㉣의 규정에 따라 [막따]로 발음되고, '밝고'는 ㉤의 규정에 따라 [발꼬]로 발음된다.
(5) '발게[발께]'는 'ㄹ'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인 '-기'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뒤엣것인 'ㄱ'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할 수 없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라 ㉦에 해당하는 예이다.

02

- (1) ㉠의 사례에서 '살- + -고 → 살고'는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살- + -네 → 사네, 살- + -세 → 사세'에서는 'ㄹ' 탈락이 일어나므로 ㉡에는 'ㄴ, ㅅ'이 알맞다.
(2) <보기>를 통해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는 경우 표기에도 반영된다고 하였으므로 '둥글-+ㅅ니'는 '둥그니'로 표기해야 한다.
(3) '마소'는 '말 + 소'가 결합한 것으로,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ㅅ' 앞에 'ㄹ'이 탈락한 것이다.
(4) 'ㄹ' 탈락은 표기에도 반영된다고 하였으므로, '달달이'가 아니라 '다달이'로 표기해야 한다.
(5) '도니'는 용언의 어간 '돌-'에 어미 '-니'가 결합하면서 'ㄹ' 탈락이 일어나므로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짚다'는

어간 ‘을-’에 어간 ‘짓-’이 결합한 합성어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03

- (1) ‘넣었다’는 [너넨따]로 발음되어 ‘ㅎ’ 탈락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얏다’는 [하:야타]로 발음되는데, 이는 ‘ㅎ’과 ‘ㄷ’의 축약에 의한 것이므로 ‘ㅎ’ 탈락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쌍이다’가 [싸이다]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음운 ‘ㅎ’이 탈락하므로, 음운의 수는 1개가 줄게 된다.
- (3) <보기>에서 ‘ㅎ’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표기할 때는 발음이 아닌 ‘좋은’ 그대로 표기해야 한다.
- (4) ‘않기’는 [안키]로 발음되는데, 이는 ‘ㅎ’과 ‘ㄱ’이 만나 [크]으로 소리 나는 축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ㅎ’ 탈락에 해당되지 않는다.
- (5) ‘좁히다[조피다]’는 ‘ㅎ’과 ‘ㅍ’이 만나 [표]으로 소리 나는 축약이, ‘좋아요[조:아요]’는 ‘ㅎ’ 탈락이 일어나므로 서로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04

- (1) ‘담가’는 ‘담그- +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활용 과정에서 ‘ㄷ’이 탈락한 것이다.
- (2) ‘커’는 ‘크- + -어’가 결합된 것이므로 ‘ㄷ’이 탈락한 것에 해당한다.
- (3) ‘건너서’는 ‘건너- + -어서’가 결합된 것이므로, 활용 과정에서 ‘ㄷ’이 탈락하였다. 따라서 모음의 개수가 1개 줄어든 경우이다.

04 음운의 변동 (3)

본문_p. 38

04-1 첨가① - ‘ㄴ’ 첨가

- 1 (1) [망닐] (2) [눈뇨기]
(3) [신녀성] (4) [시공뉴]
(5) [곤넵] (6) [콩넵]
(7) [지반닐] (8) [영염농]
(9) [생년필]
- 2 (1) [솔넵] (2) [물냇]
(3) [서울넵] (4) [불녀우]

(5) [들닐]

(6) [버들닐]

- 3 (1) ○ (2) × (3) ○
(4) × (5) × (6) ×
(7) × (8) ○

04-2 첨가② - 반모음 첨가

- 4 (1) [하루예] (2) [피여]
(3) [되여] (4) [아니요]
(5) [데여] (6) [보와라]
(7) [노와] (8) [사람이요]
- 5 (1) ○ (2) ○ (3) ×
(4) × (5) ○



개념 적용 연습

본문_p. 40

- 01 (1) ○ (2) × (3) ○ (4) ○ (5) ×
- 02 (1) × (2) ○ (3) × (4) ○ (5) × (6) ×

01

- (1) ‘한여름’은 파생어로, 접두사 ‘한-’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반모음 ‘ㄹ’로 시작하는 ‘여’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 (2) ‘솜이불’은 ‘솜’과 ‘이불’이 결합된 합성어에 해당하므로, ‘솜이불[솜:니불]’에서 ‘ㄴ’이 첨가된 것은 ㉠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3) ‘들일’은 합성어로, 앞 단어 ‘들’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로 시작하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들:닐]로 발음된다. 따라서 ㉠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 따라 [들:닐]에서 [들:릴]로 발음된다.
- (4) ‘갈 일’은 ‘ㄴ’ 음이 첨가되어 [갈:닐]로 발음된 뒤, 첨가된 ‘ㄴ’ 음이 유음화에 의해 [갈:릴]로 발음되므로, ㉠과 ㉡이 모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 (5) ‘물약’은 [물냇] → [물략]으로, ‘솔잎’은 [솔넵] → [솔립]으로 ‘ㄴ’ 첨가가 일어난 후 유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물약’과 ‘솔잎’ 모두 음운 수는 하나씩 늘어남을 알 수 있다.

02

- (1) ‘기- + -어’는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나 [기여]로 발음한다.

- (2) <보기>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 반모음 'ㅣ'가 새로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학교 + 에'는 [학교예]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 (3) '나서- + -어'는 'ㅣ'라는 동일한 모음이 만나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4) <보기>에서 'ㅣ'와 'ㅣ', 'ㅣ'로 끝나는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경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되어'와 '책이오'는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나 [되여], [책이요]로 발음되더라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5) <보기>에서 'ㅣ'와 'ㅣ', 'ㅣ'로 끝나는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경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어도'가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나 [피여도]로 발음되더라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 (6) '반모음 첨가'는 반모음이 첨가되어 단모음이 이중 모음으로 바뀌게 된다.

05 음운의 변동 (4)

본문_p. 42

05 축약 - 거센소리되기(격음화)

- 1 (1) [나카산] (2) [듣지카다]
 (3) [바카사탕] (4) [노코]
 (5) [다치다] (6) [다타]
 (7) [수타다] (8) [버팩]
 (9) [그파다] (10) [꼬치다]
 (11) [이팩] (12) [조코]
- 2 (1) [이파는] (2) [안치고]
 (3) [구과] (4) [올코]
 (5) [달치] (6) [조:턴]



개념 적용 연습

본문_p. 43

- 01 (1) ㉞ (2) [만코] (3) 좁하다 (4) [오타넵] (5) 1개

01

- (1) '만형'은 받침 'ㄷ'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㉞에 따라 [마텅]으로 발음된다.
- (2) '맑고'는 'ㅎ' 뒤에 'ㅣ'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㉞에 따라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키]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맑고'는 [만:코]로 발음해야 한다.
- (3) '닿지'는 'ㅎ(ㅎ)' 뒤에 'ㅣ'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㉞이 아니라 ㉞에 해당한다.
- (4) ㉞에서 'ㄷ'으로 발음되는 'ㅈ, ㅊ, ㅌ'의 경우에도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웃 한 벌'은 ㉞에 따라 [오타넵]로 발음해야 한다.
- (5) '맑고'나 '각하' 모두 발음하는 과정에서 'ㅎ'이 'ㅣ'와 결합하여 된소리인 'ㅋ'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든다.

06 음운의 변동 종합

본문_p. 44

06 음운의 변동 종합

- 1 (1) 교체 (2) 축약 (3) 탈락
 (4) 첨가 (5) 교체 (6) 교체
- 2 (1) 깨끗하다, 협력하다
 (2) 영업용, 꽃잎
 (3) 굵는다, 맛없다



개념 적용 연습

본문_p. 45

- 01 (1) ○ (2) × (3) × (4) ○ (5) ×
 02 (1) 음운 첨가 (2) ㄴ과 ㄹ (3) 교체
 (4) ㄱ과 ㄷ (5) 자음 축약 (6) 반모음 첨가

01

- (1) ㉞에서는 'ㄴ'이 첨가되었으나 ㉞에서는 음운 첨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 (2) ㉞의 'ㄴ'이 'ㄱ'으로 발음되는 것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지만, ㉞에서는 음운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 (3) ㉞은 'ㅌ'이 'ㅣ' 앞에서 'ㄷ'으로 교체된 것이고, ㉞은 'ㅌ'이 'ㅎ'

과 만나 '표'으로 축약된 것이다.

- (4) ㉠은 'ㅌ'이 'ㄷ'으로 바뀐 후 다시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운 교체가 2회 일어났고, ㉡은 'ㅌ'이 'ㄷ'으로 바뀐 후 다시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운 교체가 2회 일어났다.
- (5) ㉢은 'ㄱ'이 'ㄷ'으로 발음될 때 탈락이 1회 일어났고, ㉣은 'ㅌ'이 'ㅍ'으로 발음될 때 교체가 1회 일어났으므로 음운 변동 횟수는 같다.

02

- (1) ㄴ에서는 'ㄴ' 소리가 첨가되는 음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2) '금행열차'는 거센소리되기와 'ㄴ' 첨가에 따라 [그행열차]로 발음되므로 ㄴ과 ㄹ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 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 ㄷ은 된소리되기에 의한 교체에 해당한다.
- (4) '앞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업다]로 바뀐 뒤, 다시 된소리되기에 의해 [업따]로 발음된다.
- (5) ㄹ의 '낱다[나:타]'는 'ㅎ' 뒤에 'ㄷ'이 결합되어 'ㅌ'으로 발음되는 자음 축약의 예에 해당한다.
- (6) ㅁ의 '오 + -아서 → 와서'와 같이 '되어 → 돼'도 'ㄴ'이 'ㄹ'과 만나 '내'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는 반모음 첨가의 사례에 해당한다.

II 단어

01 품사

본문_ p. 48

01-1 품사의 이해

- 1 (1) 불 (2) 가
(3) 불
- 2 (1) 가을, 하늘, 저것, 주변, 수, 곤충
(2) 이, 은, 에서, 이다 (3) 아
(4) 너무, 흔히 (5) 맑구나, 불, 없는
- 3 (1) 기념품, 강아지, 마리 (2) 나
(3) 하나 (4) 만, 는, 를
(5) 야 (6) 저, 세
(7) 매우 (8) 사자, 키운다
(9) 예쁜

01-2 체언 ① - 명사

- 4 (1) 실패, 성공, 어머니 (2) 영화, 친구, 수
(3) 사과, 개 (4) 데, 밥
- 5 (1) 사람, 평화 (2) 백제, 영화
(3) 사람, 백제, 영화, 평화 (4) 것, 따름
- 6 (1) • 자립 명사: 연필 • 의존 명사: 개
(2) • 자립 명사: 배 • 의존 명사: 수
(3) • 자립 명사: 줄넘기 • 의존 명사: 줄
(4) • 자립 명사: 사냥꾼, 짐승 • 의존 명사: 채

01-3 체언 ② - 대명사

- 7 (1) 나, 너 (2) 이것, 그것
(3) 그분 (4) 당신, 나
- 8 (1) 인칭 대명사 (2) 지시 대명사
(3) 인칭 대명사 (4) 지시 대명사
- 9 (1) 미지칭 대명사 (2) 부정칭 대명사
(3) 재귀칭 대명사 (4) 재귀칭 대명사

01-4 체언 ③ - 수사

- 10** (1) 하나, 넷 (2) 첫째, 둘째, 제삼, 제사
11 (1) 하나 (2) 일, 이, 삼
 (3) 첫째, 둘째 (4) 제일, 제이
12 (1) 수 (2) 관
 (3) 수 (4) 관

01-5 용언 ① - 동사

- 13** (1) 먹는다 (2) 앓은, 사랑한다
 (3) 닳으려, 노력한다 (4) 불고, 내려, 간다
14 (1) 자동사 (2) 자동사
 (3) 자동사 (4) 타동사
 (5) 타동사
15 (1) 서술어 (2) 서술어
 (3) 관형어 (4) 관형어

01-6 용언 ② - 형용사

- 16** (1) 예쁜 (2) 깨끗했다
 (3) 이려하다 (4) 귀여운
 (5) 고파서
17 (1) 향기롭다, 고요하다, 그러하다
 (2) 먹다, 걷다
18 (1) 부사어 (2) 서술어
 (3) 관형어 (4) 서술어

01-7 용언의 활용 ① - 어간과 어미

- 19** (1) •어간: 맛있 •어미: 다
 (2) •어간: 아름답 •어미: 다
 (3) •어간: 도망치 •어미: 었, 다
 (4) •어간: 가 •어미: 섰다(시, 었, 다)
 (5) •어간: 넘어가 •어미: 다
 (6) •어간: 깨끗하 •어미: 다
 (7) •어간: 소중하 •어미: ㄴ
 (8) •어간: 잡아먹 •어미: 다
20 (1) •선어말 어미: 는 •어말 어미: 다
 (2) •선어말 어미: 었 •어말 어미: 다

- (3) •선어말 어미: 겠 •어말 어미: 어
 (4) •선어말 어미: 시, 었 •어말 어미: 다
 (5) •선어말 어미: 시, 었 •어말 어미: 다
 (6) •선어말 어미: 겠 •어말 어미: 다

- 21** (1) •어말 어미: ㄴ •어미의 종류: 전성 어미
 (2) •어말 어미: 다 •어미의 종류: 종결 어미
 (3) •어말 어미: 니 •어미의 종류: 종결 어미
 (4) •어말 어미: 고 •어미의 종류: 연결 어미
 (5) •어말 어미: 기 •어미의 종류: 전성 어미

01-8 용언의 활용 ② - 본용언과 보조 용언

- 22** (1) •본용언: 가 •보조 용언: 버렸다
 (2) •본용언: 깨끗하지 •보조 용언: 않다
 (3) •본용언: 입고 •보조 용언: 있다
 (4) •본용언: 도착했나 •보조 용언: 보다

- 23** (1) 동사 (2) 형용사
 (3) 동사 (4) 동사

01-9 용언의 활용 ③ -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 24** (1) 벗고, 벗어, 규칙
 (2) 줌고, 주워, 불규칙
 (3) 빠르고, 빨라, 불규칙
 (4) 닫고, 닫아, 규칙
 (5) 파랗고, 파래, 불규칙

- 25** (1) 아파서(규), 갔다(규)
 (2) 파래서(불), 좋았다(규)
 (3) 발라(불), 땀다(규)
 (4) 저어(불), 이르렀다(불)
 (5) 들어(규), 걸었다(불)

- 26**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01-10 수식언 ① - 관형사

- 27** (1) 옛 (2) 한
 (3) 저 (4) 이, 새
 (5) 그, 다른

- 28 (1) 모든(관), 까만(형) (2) 저(관), 아름다운(형)
(3) 첫(관), 기쁨(형) (4) 많은(형), 새(관)

01-11 수식언 ② - 부사

- 29 (1) 빨리 (2) 이리
(3) 과연 (4) 못
(5) 안 (6) 및
- 30 (1) 익었다 (2) 내 부탁을 들어줘
(3) 새 (4) 빨리
(5) 너

01-12 관계언 - 조사

- 31 (1) 2개 (2) 2개
(3) 3개 (4) 3개
(5) 3개
- 32 (1) 주격 조사 (2) 호격 조사
(3) 부사격 조사 (4) 관형격 조사
(5) 목적격 조사 (6) 보격 조사
- 33 (1) 시작 (2) 추종
(3) 한정 (4) 마침
(5) 역시 (6) 대조
- 34 (1) 까지(보조사) + 이다(격조사)
(2) 까지(보조사) + 도(보조사)
(3) 뿐(보조사) + 이다(격조사)
(4) 에서(격조사) + 조차(보조사)
(5) 마저(보조사) + 도(보조사)
(6) 부터(보조사) + 라도(보조사)

01-13 독립언 - 감탄사

- 35 (1) 야호 (2) 응
(3) 아뽀싸 (4) 그래
(5) 에 (6) 허허
- 36 (1) ○ (2) ○
(3) × (4) ×
(5) ○



개념 적용 연습

본문 p. 63

- 01 (1) 모른다, 착실한 이다 (2) 6개 (3) 3개
(4) 매우 (5) 열, 아홉
- 02 (1) × (2) ○ (3) ○ (4) × (5) ○
- 03 (1) 부정칭 (2) 일인칭 (3) 미지칭 (4) 재귀칭
(5) 이인칭
- 04 (1) ○ (2) × (3) ○ (4) × (5) ○ (6) ×
- 05 (1) 자동사 (2) 타동사 (3) 관형어
(4) 부사어, 타동사 (5) 규칙 활용 (6) 불규칙 활용
- 06 (1) ○ (2) ○ (3) × (4) × (5) ○ (6) ○
- 07 (1) 맑- (2) 가- (3) -다 (4) -사-, -았- (5) 두 개
(6) 한 개 (7) 선어말 어미 한 개, 어말 어미 한 개
- 08 (1) ㉠ (2) ㉡ (3) ㉢ (4) ㉣ (5) ㉤ (6) ㉥과 ㉦
- 09 (1) ㉠, ㉡ (2) ㉢, ㉣, ㉤ (3) ㉠, ㉡, ㉤ (4) ㉢, ㉣
(5) ㉠, ㉡
- 10 (1) × (2) ○ (3) ○ (4) × (5) × (6) ○
- 11 (1) ㉠ (2) ㉢ (3) ㉢ (4) ㉣ (5) ㉣ (6) ㉤
- 12 (1) 불변어 (2) 체언 (3) 없군 (4) 없군 (5) 있군
(6) 없군
- 13 (1) 형용사: 아름다운, 빠른 (2) 관형사: 웬, 온갖
- 14 (1) × (2) ○ (3) × (4) × (5) ○ (6) ○
- 15 (1) 부사 (2) 문장 전체 (3) 체언(대명사) (4) 체언(명사)
(5) 관형사 (6) 문장 전체, 용언(형용사)
- 16 (1) × (2) ○ (3) ○ (4) × (5) × (6) ○
- 17 (1) ㉠ (2) ㉡ (3) ㉢ (4) ㉣ (5) ㉤ (6) ㉥
- 18 (1) ○ (2) ○ (3) × (4) × (5) ○ (6) ○
- 19 ㉠ 관형사: ㉡, ㉢ ㉣ 대명사: ㉣ ㉤ 부사: ㉠, ㉡
- 20 (1) ㉡ (2) ㉠ (3) ㉢ (4) ㉤

01

- (1) ㉠에서 가변어는 동사인 '모른다'이고, ㉡에서 가변어는 형용사인 '착실한'과 서술격 조사 '이다'이다.
- (2) ㉠에서는 관계언인 조사 '의, 는, 도'가 사용되었고, ㉡에서는 관계언인 조사 '에, 은, 이다'가 사용되었다.
- (3) ㉠에서 체언은 '강, 깊이, 누구'이다. 이 중 '깊이'는 '깊다'의 어근 '깊-'에 '-이'가 결합하여 명사로 굳어진 것이므로 체언이라 할 수 있다. ㉡에서 체언은 '열, 아홉, 학생'이다.
- (4) ㉠의 '어느'는 관형사이므로 수식언이라 할 수 있다. ㉡에서 부사인 '매우'는 수식언에 해당하지만, '착실한'은 문장 성분

은 관형어이지만, 품사는 형용사이므로 수식언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에서 수사로 사용된 것은 ‘열’과 ‘아홉’이다.

02

- (1) ‘백두산’은 고유의 산 이름에 해당하므로 고유 명사에 해당한다. 또한 ‘강감찬’ 역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특정한 하나의 대상이므로 고유 명사라 할 수 있다.
- (2) <보기>를 통해 자립 명사는 홀로 쓰일 수 있고,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는 자립 명사이고, ‘수’는 의존 명사라 할 수 있다.
- (3) <보기>를 통해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살’은 의존 명사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 (4) ‘그 사람은’에서 ‘그’가 ‘사람’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자립 명사 역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5) ‘덩어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진 자립 명사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금 한 덩어리’에서 ‘덩어리’는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낸 경우라 할 수 있다.

03

- (1) 아버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하여 밖에 있는 사람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고 있으므로 ㉠은 부정칭 대명사이다.
- (2) ㉠은 화자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낮추는 말이므로 일인칭 대명사이다.
- (3) ㉡은 문 앞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상황과 관련 있다. <보기>에서 가리킴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미지칭 대명사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은 미지칭 대명사이다.
- (4) ㉢은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인 할머니를 다시 받는 말이다. <보기>에서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를 지칭할 때 재귀칭 대명사가 쓰인다고 하였으므로 ㉢은 재귀칭 대명사이다.
- (5) ㉣은 청자인 아들을 가리킴으로 이인칭 대명사이다.

04

- (1) ㉠~㉣은 모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 (2) ㉠~㉣은 모두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변어에 해당한다.

- (3) <보기>에서 수 관형사와 달리 수사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의 뒤에 의존 명사 사용 여부가 수사와 수 관형사를 구분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 ㉢은 수사에 해당하고, ㉠, ㉣, ㉣은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 (4) ㉠, ㉣은 각각 ‘판’, ‘넌’이라는 의존 명사 앞에 사용된 수 관형사이다. 반면 ㉡은 의존 명사 앞에 쓰이지 않고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한 수사이다.
- (5) 수사인 ㉡, ㉢ 뒤에는 조사인 ‘를’과 ‘로’가 붙어 있지만, 수 관형사인 ㉠, ㉣, ㉣에는 조사가 붙어 있지 않다.
- (6) 수 관형사인 ㉠, ㉣, ㉣은 뒤에 오는 의존 명사를 꾸며 주고 있다. 하지만 수사인 ㉡, ㉢은 뒤에 체언이 오지 않으며 조사와 결합하고 있다.

05

- (1) ‘피었다’는 ‘꽃봉오리 따위가 벌어지다.’라는 뜻으로, 주어인 ‘꽃이’에만 그 움직임이 관련되므로 자동사이다.
- (2) ‘읽고’는 주어인 ‘영희는’과 목적어인 ‘책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타동사이다.
- (3) 동사인 ‘잡은’은 체언인 ‘손’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깨끗하게’는 부사형 전성 어미 ‘-게’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치웠다’는 ‘청소하거나 정리하다.’의 의미로 주어인 ‘민수는’와 목적어인 ‘방을’에 그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는 타동사이다.
- (5) ‘우는’의 기본형은 ‘울다’로, 어미와 결합할 때 ‘르’이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6) ‘물어’의 기본형은 ‘묻다’로, 활용 과정에서 어간이 변하고 있으므로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06

- (1) ‘착하다’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의 의미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바쁘다’는 ‘일이 많거나 또는 서둘러서 해야 할 일로 인하여 편 겨를이 없다.’는 의미로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 (2) ㉡와 ㉣의 형용사는 모두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3) ㉡에서 ‘착하다’는 부사인 ‘매우’의 꾸밈을 받고 있고, ㉣에서 ‘바쁘다’는 부사 ‘너무’의 꾸밈을 받고 있으므로, 형용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에서 형용사 ‘피곤한’은 체언인 ‘몸’을 꾸며 주고 있고, ‘피

곤하계'는 서술어 '보였다'를 꾸며 주고 있다. 따라서 형용사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과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5) ㉔에서 형용사 '아프다'는 명령형 어미인 '-어라', 청유형 어미인 '-자'와 결합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형용사는 명령이나 청유를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하는 데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6) ㉔에서 형용사 '예쁘다'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으)려고'와 결합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형용사는 현재와 목적(의도)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하는 데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7

- (1) '맑았다'에서 어간은 '맑-'이다. '-았-'은 선어말 어미이다.
- (2) '가시었다'에서 어간은 '가-'이다. '-시-'와 '-었-'은 선어말 어미에 해당한다.
- (3) '피었다'에서 어말 어미는 '-다'이며, '-었-'은 선어말 어미에 해당한다.
- (4) '오시지'의 '-시-'와 '않았다'의 '-았-'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5) '되기'에 어말 어미에 해당하는 전성 어미 '-기'와 '바란다'에 종결 어미 '-다'가 사용되었다.
- (6) 선어말 어미는 '갔다'에서 '-았-' 하나만 사용되었다. '모시고'는 어간이 '모시-'이다.
- (7) '바쁘신'에서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사용되었다.

08

- (1) '-느냐'는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에 해당하므로 ㉑에 해당한다.
- (2) '아파서'의 '-아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에 해당하므로 ㉒에 해당한다.
- (3)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에 해당하므로 ㉑에 해당한다.
- (4)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에 해당하므로 ㉒에 해당한다.
- (5) '먹은'에서 '-은'은 '먹다'의 어간 '먹-'과 결합하여 관형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 (6) '운동하기'에서 어미 '-기'는 동사 '운동하다'의 어간 '운동하-'와 결합하여 명사 기능을 하게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

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그리고 '좋은'에서 어미 '-은'은 형용사 '좋다'의 어간 '좋-'와 결합하여 관형사 기능을 하게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09

- (1), (5) ㉑의 '보자'는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의 뜻으로 쓰인 본용언이고, ㉒의 '왔다' 역시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의 뜻으로 쓰인 본용언이다. 따라서 ㉑, ㉒은 '본용언 + 본용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드시 띄어 써야 하며,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 (2), (4) ㉔~㉔의 '싶다', '보았다', '버렸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으로 모두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㉔은 본용언이 합성 용언이므로 보조 용언과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3) ㉑과 ㉒은 '본용언 + 본용언'의 구조이므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㉔은 본용언인 '잡아먹어'가 합성 용언이므로 보조 용언과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10

- (1) '피'는 '푸다'에서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우' 불규칙(푸- + -어 → 피) 활용에 해당한다.
- (2) '뽑다'는 박힌 것을 잡아당기어 '빼내다.'의 뜻으로, '뽑아, 뽑고, 뽑으니' 등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 (3) '묻다'는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 깊이 숨기어 감추다.'의 뜻으로, '묻고, 묻어, 묻게, 묻으며' 등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 (4) '씻다'는 '물이나 휴지 따위로 때나 더러운 것을 없게 하다.'의 뜻으로, '씻어, 씻으니, 씻는' 등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 (5) '따르다'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의 뜻으로, '따라, 따르니' 등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이때 '따라'는 '따르- + -아 → 따라'와 같이 활용하는데, 여기서 'ㄴ'이 탈락한다. 이것은 일정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ㄴ'이 탈락하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6) '올라'는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르' 형태로 변하는 '르' 불규칙(오르- + -아 → 올라) 활용에 해당한다.

11

- (1) '있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는 'ㅅ' 불규칙 활용이므로 ㉑에 해당한다.

- (2) ‘듣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는 ‘ㄷ’ 불규칙 활용이므로 ㉠에 해당한다.
- (3) ‘돕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ㅂ’이 ‘ㅍ’로 바뀌는 ‘ㅂ’ 불규칙 활용이므로 ㉠에 해당한다.
- (4) ‘하다’는 어간 ‘하-’ 뒤에 어미 ‘-아’ 대신에 ‘-여’가 붙는 ‘여’ 불규칙 활용이므로 ㉡에 해당한다.
- (5) ‘푸르다’는 활용할 때 ‘푸르- + -어 → 푸르러’와 같이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의 어미 ‘-어’가 ‘-러’로 변하므로 ㉡에 해당한다.
- (6) ‘하얗다’는 ‘ㅎ’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ㅎ’으로 끝나는 어간 ‘하얗-’에 어미 ‘-아서’가 올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해 ‘하에서’가 되므로 ㉡에 해당한다.

12

- (1), (2) ㉠의 ‘모든’, ㉡의 ‘다른’, ㉢의 ‘이’, ㉣의 ‘새’, ㉤의 ‘다섯’은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며, 각각 체언인 ‘사람, 식당, 집, 사람, 켄레’를 꾸며 주고 있다.
- (3) ㉠~㉤를 통해 ‘사람이’, ‘옷을’, ‘식당에’ 등처럼 체언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4) ㉠에서 ‘모든’이 문장의 다른 부분에 들어간 ‘사람이 모든 까만 옷을 입었다.’를 비문법적인 문장이라 하였고, ㉣에서 ‘새’의 위치가 이동된 ‘그는 새 위인전을 읽고 사람이 되었다.’ 역시 비문법적인 문장이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관형사는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 (5) ㉢의 ‘이’가 체언인 ‘집’을 꾸며 주는 관형사인 것으로 보아 ㉡의 ‘그’ 역시 체언 ‘식당’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라 할 수 있다.
- (6) ㉤의 ‘다섯’은 체언(이존 명사 ‘켄레’)을 꾸며 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형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넷 다음이 다섯이다.’에서 ‘다섯’은 체언을 꾸며 주지 않고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수사라고 할 수 있다.

13

- (1), (2) ㄱ의 ‘아름다운’은 ‘꽃이 아름답다.’처럼 주어인 ‘꽃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며, ㄴ의 ‘빠른’은 ‘손놀림이 빠르다.’처럼 주어인 ‘손놀림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용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ㄴ의 ‘웬’과 ㄷ의 ‘온갖’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

14

- (1) ‘정말’은 형용사 ‘아름답다’를, ‘점점’은 동사 ‘다가오다’를 꾸

며 주고 있으므로 모두 용언을 꾸며 준다고 볼 수 있다. 부사는 체언도 꾸며 줄 수 있지만 ㉠과 ㉡만으로 볼 때 용언만 꾸며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그리고’는 접속 부사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 주면서 뒤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 (3) ㉢ ‘대체’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지만, ㉤ ‘아주’는 부사인 ‘천천히’를 꾸며 주고 있다.
- (4) 문장 내에서 ‘점점’의 위치를 바꾸면 ‘밝은 점점 보름달이 다가온다.’가 되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 (5) ‘아주’와 ‘천천히’ 모두 부사이므로, 부사가 연달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아직도’는 ‘아직’이라는 부사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것이다.

15

- (1) ‘매우’는 뒤에 오는 부사 ‘빨리’를 꾸며 주고 있다.
- (2) ‘설마’는 문장 전체인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이다.
- (3) ‘오직’은 바로 뒤에 오는 대명사인 ‘당신’을 꾸며 주고 있다.
- (4) ‘바로’는 뒤에 오는 명사인 ‘옆’을 꾸며 주고 있다.
- (5) ‘아주’는 뒤에 오는 관형사 ‘새’를 꾸며 주고 있다.
- (6) ‘과연’은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이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정말’은 뒤에 오는 형용사 ‘뛰어나군’을 꾸며 주고 있다.

16

- (1) ㄱ에서는 주격 조사 ‘이’, 목적격 조사 ‘을’, 관형격 조사 ‘의’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ㄱ에는 격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와 달리 격조사는 앞의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 (2) ㄴ의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이니’와 같이 용언처럼 활용함을 알 수 있다.
- (3) ㄷ의 ‘와’와 ‘랑’은 모두 두 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4) ㄹ의 ‘만’과 ‘도’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만’은 ‘한정’의 뜻을, ‘도’는 ‘더함’의 뜻을 더해 주고 있으므로, 어떤 보조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5) ㄴ의 ‘모든’은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의’의 의미를 지닌 관형사이다. 그런데 ‘모든’ 뒤에 조사 ‘이’가 붙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으므로 조사는 관형사에 붙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6) ㄴ의 '이것 좋다.'는 조사 '이'가 생략된 경우이며, '이것만으로 도'는 '만 + 으로 + 도'로 조사가 둘 이상 겹쳐 쓰인 경우이다.

17

- (1) '오직 새소리만 들렸다.'에서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2)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에서 '도'는 체언류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어, -게, -지, -고' 등의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3) '철수야, 국수라도 먹으렴.'에서 '라도'는 체언 뒤에 붙어 '꼭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4)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에서 '느'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5) '그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다.'에서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등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로,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 (6) '부터'는 체언이나 부사어 또는 일부 어미 뒤에 붙어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흔히 뒤에는 끝을 나타내는 '까지'가 와서 짝을 이룬다.

18

- (1) ㉠의 '에'는 입버릇이나 더듬거리는 의미 없는 소리를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2) ㉡에서 감탄사인 '야'는 다른 문장 성분과 함께 쓰이거나 쓰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감탄사는 다른 문장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 (3) ㉢의 '야'는 앞 문장에서는 기쁨을, 뒤 문장에서는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감탄사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감정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에서 감탄사 '음'은 문장 앞과 문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감탄사는 문장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에서 감탄사 '에구'는 앞 문장에서는 '반가움'의 의미로 사용된 반면에, 뒤 문장에서는 '한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감탄사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에 사용된 감탄사를 보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탄사는 불변어라 할 수 있다.

19

- ㉠ '이'는 명사 '사과'를, ㉢ '그'는 명사 '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이리'는 용언 '오게'를, ㉤ '그리'는 용언 '보내겠습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20

- (1)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의 '일곱'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므로 수사이고, '여기에 사과 일곱 개가 있다.'에서 '일곱'은 체언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이다.
- (2)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에서 '커서'는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의 의미로 쓰인 동사이고, '가구가 커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에서 '커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의 의미로 쓰인 형용사이다.
- (3)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의 '모두'는 조사 '가'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명사)이고, '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의 '모두'는 용언 '쏟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4) '모두 같이 학교에 갑시다.'에서 '같이'는 용언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이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이 생각난다.'에서 '같이'는 체언에 붙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사이다.

02 단어의 형성

본문_p. 81

02-1 형태소

- | | |
|--------------|-------------|
| 1 (1) 자립, 실질 | (2) 의존, 형식 |
| (3) 의존, 형식 | (4) 의존, 형식 |
| (5) 의존, 형식 | (6) 자립, 실질 |
| (7) 의존, 형식 | (8) 의존, 실질 |
| (9) 의존, 형식 | (10) 의존, 형식 |
| (11) 의존, 형식 | (12) 의존, 형식 |

- 2 (1) 고양이/가/제/발/을/핥/고/있다
(2) 여우/는/시/나/포도/를/먹/고/싶/었/다
(3) 철수/가/책/종이/를/가위/로/오리/었/다

- (4) 영수/가/먹/은/딸기/는/매우/달/았/다
 (5) 새/네/마리/가/두/아이/에게/잡/히/었/다
 (6) 검/은/고양이/가/쥐/네/마리/를/잡/았/다
 (7) 아기/는/엄마/품/으로/빠르/게/안/기/었/다

- 3** (1) • 자립 형태소: 철수, 이야기, 책
 • 의존 형태소: 가, 을, 읽, 었, 다
 (2) • 자립 형태소: 아기, 방긋
 • 의존 형태소: 자, 는, 가, 웃, 었, 다
 (3) • 자립 형태소: 난로, 몸
 • 의존 형태소: 따뜻하, ㄴ, 로, 을, 녹, 이, 었, 다
- 4** (1) • 실질 형태소: 나, 내일, 나무, 심
 • 형식 형태소: 는, 를, 겠, 다
 (2) • 실질 형태소: 앞, 산, 공기, 항상, 맑
 • 형식 형태소: 의, 는, 다
 (3) • 실질 형태소: 우리, 모기, 많, 물
 • 형식 형태소: 는, 에게, 이, 리, 었, 다

02-2 단어

- 5** (1) 집/은/가게/위층/에/있다
 (2) 올해/사과/는/유난히/시다
 (3) 이/아이/가/저희/집/둘째/입니다
 (4) 철수/는/눈/을/비비며/일어났다
 (5) 마음/이/맞는/이웃/이/생겼으면/좋겠다
- 6** (1) 나/는/항상/아침밥/을/먹는다
 (2) 나/는/항상/아침/밥/을/먹/는/다
 (3) 는, 을
 (4) 아침밥, 먹는다

02-3 어근과 접사

- 7** (1) 부르 (2) 솟
 (3) 딸꾹 (4) 잡
 (5) 당기 (6) 심술
 (7) 돌, 가 (8) 조심
- 8** (1) 이 (2) 맨
 (3) 치 (4) 헛
 (5) 꺾 (6) 꾸러기
 (7) 되 (8) 슥

02-4 단일어와 복합어

- 9** (1) 단 (2) 단
 (3) 복 (4) 복
 (5) 단 (6) 복
 (7) 복 (8) 복
 (9) 복 (10) 복
 (11) 복 (12) 복
- 10** (1) 닭, 똥 (2) 불, 나방
 (3) 겨울 (4) 살구
 (5) 누르 (6) 흔들
 (7) 비비, 밥 (8) 뛰, 놀
 (9) 먹 (10) 공부
 (11) 숨 (12) 정
 (13) 밤, 낮 (14) 노동

02-5 복합어 ① - 합성어

- 11** (1) 통사적 (2) 비통사적
 (3) 통사적 (4) 통사적
 (5) 비통사적
- 12** (1) 대등 (2) 융합
 (3) 융합 (4) 종속
 (5) 대등 (6) 대등
 (7) 융합 (8) 종속
 (9) 대등

02-6 복합어 ② - 파생어

- 13** (1) 맨 - ㉠ (2) 날 - ㉡
 (3) 장이 - ㉢ (4) 말 - ㉣
 (5) 보 - ㉤
- 14** (1) • 파생 전 품사: 형용사 • 파생 후 품사: 동사
 (2) • 파생 전 품사: 형용사 • 파생 후 품사: 명사
 (3) • 파생 전 품사: 동사 • 파생 후 품사: 명사
 (4) • 파생 전 품사: 형용사 • 파생 후 품사: 동사

02-7 직접 구성 성분

- 15** (1) 얼음 + 길 (2) 놀이 + 터

- (3) 낮 + 이 (4) 매달 + 리다
(5) 그림 + 판 (6) 물 + 놀이
(7) 코 + 웃음 (8) 되 + 돌아가다

- 16 (1) 불꽃놀이, 집게발, 병마개
(2) 군것질, 미닫이, 뜨개질, 싸움꾼



개념 적용 연습

본문 p. 89

- 01 (1) 두 개 (2)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3) 의존 형태소 (4) 의존 형태소 (5) 세 개
02 (1) ○ (2) × (3) × (4) ○ (5) ○ (6) ×
03 (1) ㉠ (2) ㉡ (3) ㉢, ㉣ (4) ㉤ (5) ㉥
04 (1) 한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2)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 (3)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 (4)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 (5)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 (6) 한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7)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05 (1) ○ (2) × (3) × (4) ○ (5) ×
06 (1) ○ (2) ○ (3) × (4) × (5) ○ (6) ×
07 (1) ㉤ (2) ㉠ (3) ㉢ (4) ㉤ (5) ㉡ (6) ㉣
08 (1) ㉠ (2) ㉢ (3) ㉤ (4) ㉢ (5) ㉡
09 지우개, 심술쟁이, 숨겼을
10 (1) × (2) ○ (3) ○ (4) × (5) ○ (6) ○ (7) ×
11 (1) 어근, ㉠ (2) 접사, ㉢ (3) 접사, ㉢ (4) ㉢
12 (1) ○ (2) × (3) ○ (4) × (5) ○

01

- (1) '하늘에 별이 많다.'의 형태소는 '하늘/에/별/이/많-/다'로 분석할 수 있다. '하늘'은 '하늘'과 '에'가 결합된 것으로 자립 형태소 하나와 의존 형태소 하나가 결합된 것이다.
(2) '별이'에서 '이'는 조사에 해당하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3) '많-'은 어간이고 '-다'는 어미이므로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4) '에'와 '이' 모두 조사이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5) '별이 많다'는 '별'과 '이', '많-', '-다'로 분석된다. '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02

- (1) '나'와 '사과'는 하나의 단어에 해당하므로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라 할 수 있다.
(2) 조사인 '는', '를'은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자립성이 없지만,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인 '-다'와는 달리 단어로 인정된다. <보기>의 단어와 형태소를 분리하여 보여 주는 표를 통해 조사는 단어로 인정함을 알 수 있다.
(3) '꽃-'은 접사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사과'와 결합하고 있다. '먹었다'는 '먹- + -었- + -다'로 분석할 수 있으며, '먹-'은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인 '-었-'과 결합하고 있다.
(4) <보기>에 따르면 '는', '를', '-었-', '-다'는 형태소로 분류되고 있다. '는', '를', '-었-', '-다'는 보조사, 목적격 조사,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로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
(5) <보기>에 따르면 '꽃사과', '먹었다'를 단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꽃사과'는 '꽃- + 사과', '먹었다'는 '먹- + -었- + -다'의 형태소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단어 중에는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6) '매우'는 하나의 단어이고 '예쁘다'의 어간은 '예쁘-'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꽃이 매우 예쁘다.'를 형태소로 나누면 '꽃/이/매우/예쁘/다.'이다.

03

- (1) ㉡은 조사로, 꾸미는 말의 꾸밈을 받을 수 없다.
(2) ㉡은 조사이고, ㉢은 의존 명사이다.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것은 조사에 해당한다.
(3) ㉢은 명사이고, ㉣은 의존 명사이다. 명사와 의존 명사는 모두 조사가 붙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사용된다.
(4) ㉢과 ㉣은 모두 문장에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지만, ㉣은 의존 명사로 문장 안에서 홀로 사용될 수 없다.
(5) ㉢은 조사로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이지만, ㉣은 의존 명사로, 자립 형태소이다.

04

- (1) '하늘'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2) '재해'는 관형사 어근 '재'와 명사 어근 '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3) '밤낮'은 명사 어근 '밤'과 명사 어근 '낮'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4) '구경꾼'은 명사 어근 '구경'과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5) '이슬비'는 명사 어근 '이슬'과 명사 어근 '비'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6) '민들레'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7) '뛰어오다'는 어근 '뛰(다)'와 어근 '오(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05

- (1) '웃기다'는 파생어로, 어간 '웃기-'가 '웃-(어근)' + '-기-(접사)'로 이루어져 있다.
 (2) '줄이다'는 파생어로, 어간 '줄이-'가 '줄-(어근)' + '-이-(접사)'로 이루어져 있다.
 (3) '힘들다'는 합성어로, 어간 '힘들-'이 '힘(어근)' + '들-(어근)'로 이루어져 있다.
 (4) '오가다'는 합성어로, 어간 '오가-'가 '오-(어근)' + '가-(어근)'로 이루어져 있다.
 (5) '높푸르다'는 합성어로, 어간 '높푸르-'가 '높-(어근)' + '푸르-(어근)'로 이루어져 있다.

06

- (1) '치솟다'는 어근 '솟-'에 접사 '치-'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2) '밤하늘'은 실질적인 뜻을 가진 두 어근 '밤'과 '하늘'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3) '지우개'는 어근 '지우-'에 접미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닭고기'는 두 어근 '닭'과 '고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4) '검붉다'는 두 어근 '검-'과 '붉-'이 결합한 합성어이지만, '나무꾼'은 어근 '나무'에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5) '개살구'는 어근 '살구'에 '야생 상태의', '질이 떨어지는'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개-'가, '부채질'은 어근 '부채'에 접미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6) '앞서다'는 두 어근 '앞'과 '서-'가 결합하였으므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새빨강다'는 어근 '빨강-'에 접사 '새-'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07

- (1) '돌다리'는 '돌로 만든 다리'라는 의미로, 어근 '돌'이 어근 '다리'에 의미가 종속되므로 ㉠에 해당한다.
 (2) '쑥대밭'은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본래의 어근이 가진 의미에서 제3의 새로운 의미로 쓰였으므로 ㉡에 해당한다.
 (3) '물불'은 '물'과 '불'이 결합하여 '어려움이나 위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4) '안개비'는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영게 보이는 비'라는 의미로, 어근 '안개'가 '비'를 수식하여 의

미가 종속되므로 ㉠에 해당한다.

- (5) '논밭'은 '논'과 '밭'이라는 의미로, 각각의 어근이 지닌 원래의 의미가 대등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6) '앞뒤'는 '앞과 뒤'라는 의미로, 각각의 어근이 지닌 원래의 의미가 대등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08

- (1) '검붉다'는 용언의 어간 '검-'과 용언의 어간 '붉-'이 연결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2) '덮밥'은 용언의 어간 '덮-'에 체언 '밥'이 연결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3) '첫사랑'은 관형사 '첫'과 체언 '사랑'이 연결된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4) '뜬소문'은 용언 '뜨다'의 관형사형 '뜬'과 체언 '소문'이 연결된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5) '본받다'는 체언 '본'과 용언 '받다'가 연결된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09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로, '지우개'와 '심술쟁이', '숨겼을'이 이에 해당한다. '지우개'는 '지우-(어근) + -개(접사)', '심술쟁이'는 '심술(어근) + -쟁이(접사)', '숨겼을'은 '숨-(어근) + -기(접사) + -었-(어미) + -을(어미)'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한편 '물고기'는 '물(어근)+고기(어근)'로, '책가방'은 '책(어근) + 가방(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10

- (1) '새파랗다'는 형용사 어근 '파랑-'에 접두사 '새-'가 붙어 이루어진 형용사로 품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2) '찰랑거리다'는 부사인 어근 '찰랑'에 접미사 '-거리다'가 붙어 동사가 된 것이다.
 (3) '좁히다'는 형용사 '좁다'의 어근 '좁-'에 접미사 '-히-'가 붙어 동사가 된 것이다.
 (4) '높다랗다'는 형용사 어근 '높-'에 접미사 '-다랗다'가 붙어 이루어진 형용사로 품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5) '자랑스럽다'는 명사인 어근 '자랑'에 접미사 '-스럽다'가 붙어 형용사가 된 것이다.
 (6) '정직하다'는 명사의 어근 '정직'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된 것이다.
 (7) '되새겼다'는 동사 어근 '새기-'에 접두사 '되-'가 붙어 이루어진 동사로 품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11

- (1) '겹겹이'는 어근 '겹'과 '겹'이 결합한 데 다시 접미사 '-이'가 결합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2) '군것질'은 어근 '것'에 접두사 '군-'이 결합된 파생어에 접미사 '-질'이 결합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3) '뜨개질'은 어근 '뜨-'에 접미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에 다시 접미사 '-질'이 결합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4) '헛웃음'은 '웃다'라는 동사의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에 다시 접두사 '헛-'이 결합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12

- (1) '울음보'는 ㉠에서 어근 '울음'과 접사 '-보'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 '울-'과 접사 '-(으)ㅁ'으로 분석된다.
 (2) '헛웃음'은 ㉠에서 접사 '헛-'과 어근 '웃음'으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 '웃-'과 접사 '-(으)ㅁ'으로 분석된다.
 (3) '손목뼈'는 ㉠에서 어근 '손목'과 어근 '뼈'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 '손'과 어근 '목'으로 분석된다.
 (4) '얼음길'은 ㉠에서 어근 '얼음'과 어근 '길'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 '얼-'과 접사 '-(으)ㅁ'으로 분석된다.
 (5) '물놀이'는 ㉠에서 어근 '물'과 어근 '놀이'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 '놀-'과 접사 '-이'로 분석된다.

03 단어의 의미

본문_ p. 100

03-1 단어의 의미 유형

- 1 (1) ㉠ - ㉡ (2) ㉠ - ㉡
 (3) ㉡ - ㉡ (4) ㉠ - ㉡
 2 (1) 사전적 (2) 사전적
 (3) 함축적 (4) 함축적

03-2 단어의 의미 관계 ① -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 3 (1)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 4 (1) ⊃ (2) ⊃
 (3) ⊂ (4) ⊂
 (5) ⊃ (6) ⊃

- 5 (1) 문구 (2) 악기

03-3 단어의 의미 관계 ② - 동음이의 관계, 다의 관계

- 6 (1) 다의 관계 (2) 동음이의 관계
 7 (1) 다의 관계 (2) 다의 관계
 (3) 다의 관계 (4) 동음이의 관계

03-4 국어사전 활용하기

- 8 (1) × (2) ○
 (3) × (4) ×
 (5) × (6) ○
 (7) ○ (8) ×



개념 적용 연습

본문_ p. 104

- 01 (1) ㉠: 주변적, ㉡: 중심적
 (2) ㉠: 중심적, ㉡: 주변적
 (3) ㉠: 주변적, ㉡: 중심적
 (4) ㉠: 주변적, ㉡: 중심적
 (5) ㉠: 중심적, ㉡: 주변적

- 02 (1) ㉠ (2) ㉡ (3) ㉠ (4) ㉡ (5) ㉡ (6) ㉠
 (7) ㉡, ㉡

- 03 (1) 주변 ≠ 주변
 (2) 중심 ≠ 주변,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군.
 (3) 중심 ↔ 중심, 반의 관계가 성립하는군.
 (4) 중심 ≠ 주변,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군.
 (5) 주변 ≠ 주변,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군.

- 04 (1) ○ (2) ○ (3) × (4) × (5) ○ (6) ○ (7) ×

- 05 (1) × (2) ○ (3) × (4) × (5) ○ (6) ○

- 06 (1) 다의 관계 (2) 동음이의 관계 (3) 타다⁰¹-㉡
 (4) 타다⁰²-㉡ (5) 타다⁰²-㉠

01

- (1) ㉠의 '별'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별'은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가운데 성운처럼 퍼지는 모양을 가진 천체를 제외한 모든 천체'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2) ㉠의 '번개'는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기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이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번개'는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의 '뿌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뿌리'는 '식물의 밑동으로서 보통 땅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이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4) ㉠의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이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태양'은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5) ㉠의 '이슬'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엉겨서 생기는 물방울'이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이슬'은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02

- (1), (6) '옷 : 의복', '분명하다 : 명료하다'는 각각 두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가 비슷하므로 유의 관계이다.
- (2), (5) '기쁨 : 슬픔', '오르다 : 내리다'는 각각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고 있으므로 반의 관계이다.
- (3), (4) '학생 : 남학생', '음식 : 한식'은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상하 관계이다.
- (7) '뜨다 : 가라앉다'는 각각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고 있으므로 반의 관계이다. '동물 : 포유류'는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상하 관계이다.

03

- (1) '결심이 서다'의 '서다'는 '계획, 결심, 자신감 따위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고, '요직에 앉다'의 '앉다'는 '어떤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 (2) '차렷 자세로 서다'의 '서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잠자리가 장대에 앉다.'의 '앉다'는 '새나 곤충 또는 비행기 따위가 일정한 곳에 내려 자기 몸을 다른 물건 위에 놓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 '한 시간 동안 서다'의 '서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한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방석을 깔고 앉다'의 '앉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윗 몸을 바로 한 상태에서 엉덩이에 몸무게를 실어 다른 물건 위에 몸을 올려놓거나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다리나 발 위에 올려놓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 (4) '차를 샀다'의 '샀다'는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듦'이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정신을 팔았다'의 '팔았다'는 '주의를 집중하여야 할 곳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리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5) '국회를 열다'의 '열다'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고, '가스를 잠그다'의 '잠그다'는 '물, 가스 따위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04

- (1) 앞의 '장기'는 '가장 잘하는 재주'라는 뜻이고, 뒤의 '장기'는 '나무로 만든 32쌍의 말을 붉은 글자와 푸른 글자의 두 종류로 나누어 판 위에 벌여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며 공격과 수비를 교대로 하여 승부를 가리는 놀이'라는 뜻으로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앞의 '김'은 바닷속 이끼처럼 붙어 자라 식용하는 '홍조류 보라털과의 조류'라는 뜻이고, 뒤의 '김'은 찬 기운을 받아서 엉긴 아주 작은 물방울의 집합체라는 뜻으로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앞의 '발'은 '가구 따위의 밑을 받쳐 균형을 잡고 있는, 짧게 도드라진 부분'이라는 뜻으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고, 뒤의 '발'은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이라는 뜻으로 중심적 의미로 쓰였으므로 다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앞의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고, 뒤의 '머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이라는 뜻으로 중심적 의미로 쓰였으므로 다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5) 앞의 ‘배’는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이라는 뜻이고, 뒤의 ‘배’는 ‘배 나무의 열매’라는 뜻으로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6) 앞의 ‘다리’는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으로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이라는 뜻이고, 뒤의 ‘다리’는 ‘안경의 테에 붙어서 귀에 걸게 된 부분’이라는 뜻으로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7) 앞의 ‘아침’은 ‘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쯤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으로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뒤의 ‘아침’은 ‘아침에 끼니로 먹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으므로 다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05

- (1) ㉠~㉣의 ‘가다’는 모두 ‘이동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다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2) ㉠, ㉣의 ‘가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3) ㉡, ㉢의 ‘가다’는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4) ㉡, ㉣의 ‘가다’는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5) ㉢의 ‘가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가족들과 함께 동물원에 구경을 갔다.’의 ‘갔다’를 사례로 들 수 있다.
- (6)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그 섬에 가는 배가 없다.’의 ‘가다’는 ‘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운행하거나 다니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과 다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06

- (1) 타다⁰¹의 ㉠과 ㉡는 한 표제어로 사전에 실렸으므로 다의어라 할 수 있다.
- (2) 타다⁰¹과 타다⁰²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실려 있고 의미상 관련이 없으며 단지 소리만 같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이다.
- (3) 타다⁰¹-㉡와 타다⁰²-㉡는 둘 다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 (4) ‘음악적 소질을 타고 태어났다.’에서 ‘타다’는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타다⁰²-㉡의 예라 할 수 있다.
- (5) 반의어로 ‘주다’가 가능한 단어는 ‘뭍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의 의미로 쓰인 타다⁰²-㉠이다.

• 반의 관계

상보 반의어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이어서 중립 지역이 없는 반의어 예 남자-여자, 기혼-미혼
등급 반의어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어 예 높다-낮다, 깊다-얕다
방향 반의어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어 예 오다-가다, 스승-제자

• 상보 반의어와 등급 반의어의 구별

상보 반의어	중간 개념이 없고 한 개념이 이 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 예 살다-죽다, 있다-없다
등급 반의어	중간 개념이나 중간 영역이 있음. 예 길다-짧다, 뜨겁다-차갑다

III 문장

01 문장 성분

본문_ p. 112

01-1 문장과 문법 단위

- 1 (1) 저 / 꽃이 / 매우 / 아름답다.
(2) 영희가 / 동화책을 / 읽고 / 있다.
(3) 정아가 / 새 / 가방을 / 샀다.
(4) 구름이 / 비가 / 된다.
- 2 (1) 잘 잔다(동사구)
(2) 저 토끼가(명사구), 다 먹었다(동사구)
(3) 한 책만이(명사구) (4) 매우 친절하다(형용사구)
- 3 (1) 별이 떨어졌다는 (2) 말도 없이
(3) 그가 성공하기

01-2 문장 성분

- 4 (1) 철수가, 장난감을, 샀다 (2) 소년은, 선생님이, 되었다
(3) 민주는, 책을, 읽었다
- 5 (1) 흥민아, 진수에게, 빨리 (2) 우리, 가을에
(3) 대체로, 부모의
- 6 • 주성분: 친구는, 달을, 바라보았다
• 부속 성분: 그, 옥상에서, 물끄러미
• 독립 성분: 없음.

01-3 주성분 ① - 주어

- 7 (1) 철수가 (2) 할머니께서
(3) 민수도 (4) 회사에서
(5) 어머니
- 8 (1) 아이가, ㉠ (2) 우리 학교에서, ㉡
(3) 그녀가 상을 탔음이, ㉢ (4) 그 일을 하기가, ㉣

01-4 주성분 ② - 목적어

- 9 (1) ○ (2) × (3) ○
(4) ○ (5) ○

- 10 (1) 그 소녀를, ㉠ (2) 그가 정직함을, ㉡
(3) 그가 의사가 되었음을, ㉢ (4) 하늘에 달이 떠 있음을, ㉣
(5) 그런 사람을, ㉤

01-5 주성분 ③ - 보어

- 11 (1) 남이 (2) 하나가 (3) 사람도
(4) 화장은 (5) 이것만이 (6) 배우가
(7) 교수가
- 12 (1) × (2) × (3) ×
(4) ○ (5) ○

01-6 주성분 ④ - 서술어

- 13 (1) 상상하다(형용사) (2) 그린대(동사)
(3) 심었다(동사) (4) 읽는다(동사)
(5) 개고(동사), 화창하다(형용사)
- 14 (1) 체언 + 서술격 조사 (2) 서술절
(3) 본용언 + 보조 용언 (4) 본용언 + 보조 용언
(5) 명사구 + 서술격 조사

01-7 서술어의 자릿수

- 15 (1) 진아는 (2) 아이는, 예쁘게
(3) 철수는, 장난감을 (4) 민지가, 우체통에, 편지를
(5) 포도가, 포도주가
(6)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뱃돈을
- 16 (1) 한 자리 서술어 (2) 세 자리 서술어
(3) 두 자리 서술어 (4) 두 자리 서술어
(5) 세 자리 서술어 (6) 한 자리 서술어

01-8 부속 성분 ① - 관형어

- 17 (1) 박사인 (2) 이, 사랑스러운
(3) 수아의 (4) 모든, 우스꽝스러운, 그의
- 18 (1) 많은,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2) 과학자인, 체언 + 서술격 조사 + 관형사형 어미
(3) 온갖 - 관형사 / 종류의 - 체언 + 관형격 조사

01-9 부속 성분 ② - 부사어

- 19 (1) 실물과 (2) 눈치도 없이
(3) 다행히, 제시간에 (4) 고속도로에서, 아주, 빨리

- 20 (1) 나에게, 체언 + 부사격 조사
(2) 깨끗하게, 용언의 어간 + 부사형 어미
(3) 땀이 나도록, 부사절

01-10 독립 성분-독립어

- 21 (1) 예 (2) 백두산 (3) 사장님
(4) 오냐 (5) 권력

- 22 (1) 독서, 체언 단독(제시어)
(2) 음, 감탄사
(3) 주원아, 체언 + 호격 조사



개념 적용 연습

본문 p. 122

- 01 (1) ㉠ (2) ㉠ (3) 한 개 (4) ㉠ (5) ㉠ (6) 세 개
02 (1) 세 개 (2) 두 개 (3) 철수야 (4) ㉠
(5) 주성분-윤아는, 하늘을, 좋아한다 / 부속 성분-파란, 무척이나
03 (1) ○ (2) ○ (3) ○ (4) ○ (5) × (6) ○
04 (1) 대상 (2) 고정적이지 않군 (3) 있군
(4)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군 (5) 을, 를
05 (1) 그가 (2) 명사(체언) (3) 어린아이가
(4) 자음 뒤에 '이', 모음 뒤에 '가'
(5) 같음(또는 동일함) (6) 되다, 아니다
06 (1) 주어 (2) 용언 (3) ㉠ (4) ㉠ (5) 있군
(6) 나타낼 수 있군
07 (1) 주어, 한 자리 (2) 주어, 부사어, 두 자리
(3) 주어, 보어, 두 자리 (4) 주어, 목적어, 두 자리
(5) 주어, 부사어, 세 자리
08 (1) ○ (2) × (3) × (4) ○ (5) ○
09 (1) ㉠ (2) ㉠ (3) ㉠ (4) ㉠
10 (1) 축소 (2) 하는군 (3) 있군 (4) 있군 (5) 있군
11 (1) ㉠ (2) ㉠ (3) ㉠ (4) ㉠ (5) ㉠
12 (1) × (2) ○ (3) ○ (4) ○ (5) ○
13 (1) 전달되는군 (2) 있군 (3) 이동할 수 있군
(4) 이루기도 하는군 (5) 주어가 되지 못하는군

01

- (1)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므로, ㉠은 5어절, ㉡, ㉢은 6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2) '주어 + 서술어' 구조를 지닌 절과 달리 구는 '꾸며 주는 말 + 꾸밈을 받는 말'로 되어 있으므로, ㉠에는 두 개의 구('저 별은, '무척 닮았다')가 있고, ㉡에는 세 개의 구('그 친구, 동쪽의 별, 너무나 좋아한다')가, ㉢에도 한 개의 구('멍하니 쳐다보았다')가 있다.
(3) ㉢에는 '별이 (밤하늘에) 뜬'이라는 절 하나가 사용되고 있다. '멍하니 쳐다보았다'는 구에 해당한다.
(4) ㉠의 '닮았다'는 형용사이므로 문장의 기본 구조 중 '무엇이 어떠한가'에 해당한다. ㉡의 '좋아한다'는 동사이므로 문장의 기본 구조 중 '무엇이 어떠한가'에 해당한다.
(5) '꽃이 너무나 예쁘다'의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문장의 기본 구조는 '무엇이 어떠한가'이다. 따라서 ㉠과 문장의 기본 구조가 같다고 할 수 있다.
(6)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다. 따라서 ㉠에서 주성분은 '별은, 친구를, 닮았다'이고, ㉡에서 주성분은 '친구는, 별을, 좋아한다'이므로, ㉠과 ㉡에서 주성분은 각각 세 개씩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

- (1) ㉠에서 주성분은 주어인 '그는', 보어인 '선생님이', 서술어인 '되었다'로 세 개이다.
(2) ㉡에서는 부사어인 '너무나'가 부속 성분에 해당하고, ㉢에서는 부사어인 '드디어'와 관형어인 '힘든'이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3) 독립 성분은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이다. ㉠의 독립어는 '아', ㉢의 독립어는 '철수야'이다.
(4) ㉠의 주성분은 '아이가, 귀엽구나'이고, ㉢의 주성분은 '우리가, 관문을, 통과했어'이다.
(5) ㉢의 주성분은 '윤아는, 하늘을, 좋아한다'이고, 부속 성분은 '파란, 무척이나'이다.

03

- (1) ㉠의 문장의 기본 구조는 '무엇이 어떠한가'이고, ㉢의 문장의 기본 구조는 '무엇이 어떠한가'이다. 따라서 주어는 '무엇이 어떠한가 / 무엇이 어떠한가'에서 '무엇'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에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으나, ㉢에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 (3) ㉠의 주어는 '새가'이며, ㉡에서 '분명하다'의 주어는 '승리했음'이이고 '승리했음'의 주어는 '우리 반'이다. 주격 조사는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가',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가 쓰인다. 따라서 주격 조사의 형태와 앞말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에는 주어인 '새가'가 사용되었으나, ㉡에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명령문에는 주어가 흔히 생략된다.
- (5) ㉠의 주어인 '영희'는 문장의 제일 뒤에, ㉡의 주어인 '우리'는 문장의 제일 앞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주어는 문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
- (6) ㉡의 주어인 '우리'는 한 단어이지만, ㉠의 주어인 '우리 반이 승리했음'은 절의 형식이다.

04

- (1)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을 '목적어'라 한다. '주체'는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 (2) ㉠에서는 목적어가 서술어 바로 앞에, ㉡에서는 문장의 앞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목적어는 문장 안에서 그 위치가 고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에서 목적어는 '우유'로, 목적격 조사 '를' 대신에 보조사 '나'가 쓰였다. 이를 통해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을/를' 대신에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4) ㉡을 보면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한다. 즉 문장에 따라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 같이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 (5) ㉠과 같이 앞말에 받침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과 같이 모음 뒤에서는 '를'이 사용된다.

05

- (1) ㉠에서 주어는 '그가'이고, '대학생'은 보어에 해당한다.
- (2) ㉠에서 보어는 '얼음'이므로, 이를 통해 보어가 체언(명사) 단독으로도 실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의 서술어 '아니다' 앞에 사용된 '어린이'는 보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 '밥'은 보어가 아니라 주어로 사용된 것이다.
- (4) ㉠의 '대학생'에서는 자음 뒤에서 보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고, ㉡의 '어린이'에서는 모음 뒤에서 보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 (5) ㉡의 주어는 '민호가'이고 보어는 '어린이'이다. ㉡의 주어는 '빙하'이고 보어는 '바닷물'이다. 이를 통해 주격 조사 '이, 가', 보격 조사 '이, 가'로 서로 형태가 같음을 알 수 있다.

- (6) ㉠에서는 '되다' 앞의 '대학생'이 보어이고, ㉡에서는 '아니다' 앞의 '어린이'가 보어이다. 그러므로 보어는 서술어 '되다'와 '아니다'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06

- (1) ㉠의 서술어 '간다'는 주체인 '정아' 행위를, ㉡의 서술어 '아름답다'는 주체인 '민주'의 상태를, ㉢의 서술어 '키가 크다'는 주체인 '민수'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
- (2) ㉠의 '간다'는 동사, ㉡의 '아름답다'는 형용사에 해당하므로,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은 용언이라 할 수 있다.
- (3) ㉡에서 '싫었다'는 '되다'를 보조하는 기능만 하므로 보조 용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 경우 보조 용언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 (4) ㉡에서 '키가 크다'는 '주어+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서술절로, 전체 문장의 주어인 '민수'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 (5) ㉢ '방심은 금물'은 서술어 '금물이다'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를 생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술격 조사를 생략한 채 체언 단독으로 서술어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에서 '끝내기'는 '끝내다'라는 동사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에서 '안 도와고'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도하다'의 어간 '안도하-'에 연결형 어미 '-고'가 결합한 형태이다.

07

- (1) ㉠의 서술어 '노래한다'는 주어 '새'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2) ㉡의 서술어 '같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3) ㉢의 서술어 '아니다'는 주어와 보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4) ㉣의 서술어 '부른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5) ㉤의 서술어 '붙였다'는 주어와 부사어, 목적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08

- (1) ㉠의 '계절'과 ㉡의 '오빠'는 서술어의 주체인 주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생략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는다.
- (2) ㉠의 '어느덧'과 ㉡의 '정성껏'은 모두 부사로, ㉢의 서술어 '되었다'와 ㉣의 서술어 '고치웠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다.

- (3) ㉠의 '아빠와'와 ㉡의 '천직으로'는 모두 부사어로, 서술어 '닭았다'와 '여겼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해당한다.
- (4) ㉢의 '우리 집 뜰에도'를 생략하면 '장미꽃이 피었다.'로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 '(현) 집을'을 생략하면 '고치셨다'의 대상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5) ㉠의 '되었다'는 주어('계절이'), 보어('가을이')를, ㉠의 '닭았다'는 주어('오빠는'), 부사어('아빠와')를, ㉡의 '고치셨다'는 주어('아버지께서'), 목적어('집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리고 ㉢의 '피었다'는 주어('장미꽃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고, ㉢의 '여겼다'는 주어('그는'), 목적어('직업을'), 부사어('천직으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09

- (1) '새'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2) '시골'은 체언 단독으로 뒤에 오는 체언 '풍경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채 관형어로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 (3) '오래된'은 기본형이 '오래되다'로, 형용사의 어간 '오래되-'에 관형사형 어미 '-니'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 (4) '국민의'는 체언 '국민'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10

- (1) '파란'은 체언 '옷'의 의미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 (2) '우산은 새 것이다.'에서 의존 명사 '것'은 앞에 반드시 관형어를 필요로 하며, 이것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3) ㉢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붙지 않은 '아버지'는 관형격 조사가 없어도 뒤에 있는 체언 '그림'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4) '읽은'에서 '-은'은 과거, '읽을'에서 '-을'은 미래를 나타낸다.
- (5) '내가 읽은'은 '내가 (책을) 읽다.'라는 문장이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하여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절로,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11

- (1) '아주'는 관형어 '새'를 수식하므로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2) 부사어 '정말'은 용언 '예쁘다'를 수식하므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3) '매우'는 부사어 '높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4) '다행히'는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5) '및'은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어 주는 부사어이다.

12

- (1) ㉠의 부사어 '엄마와'는 서술어 '닭았다'가 필요로 하는 성분으로 생략할 수 없다. '엄마와'는 서술어 '닭았다'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어이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가 아니다.
- (2) ㉡의 '안'은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로 서술어 '먹었다'를 꾸며 준다. 그런데 '안'의 위치를 옮기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는 꾸며 주는 문장 성분 앞으로 위치가 고정됨을 알 수 있다.
- (3) ㉢의 '아이에게'는 서술어 '주었다'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 (4) ㉢의 '겨우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야?'에서 '겨우'는 체언 '하나'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그런데 '겨우'를 '하나를 겨우 만들었다는 거야?'처럼 위치를 이동하면 서술어 '만들었다는'을 꾸며 주게 된다.
- (5) ㉢의 '및'은 단어를 이어 주는 부사어이다. 그런데 '및'의 위치를 이동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13

- (1) ㉠의 '아, 세월은 참 빠르구나!'에서 독립어 '아'를 생략해도 세월이 빠르다는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 (2) ㉠의 '아'는 감탄사에 해당하고, ㉡의 '젊은이여'는 '체언 + 호격 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감탄사나 '체언 + 호격 조사' 모두 독립어가 될 수 있다.
- (3) ㉢에서 독립어인 '젊은이여'는 문장의 앞에 위치하지만, ㉢에서 독립어인 '보름달아'는 문장의 뒤에 위치하므로 독립어는 위치를 이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의 '권력'과 ㉢의 '철수'는 체언으로 독립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언 단독으로 독립어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의 독립어는 제시어 '권력'인데, 문장에서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받아 제시어는 의미상 주어와 유사한 기능을 할 뿐, 문법 기능적인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어가 될 수 없다.

02 문장의 짜임

본문_ p. 134

02-1 출문장과 겹문장

- 1 (1) 했다, 출문장
(2) 얼굴이 예쁘다, 겹문장
(3) 만났다, 출문장
(4) 있는, 좋아하신다, 겹문장

- 2 (1) 안은문장 (2) 안은문장
(3) 이어진문장 (4) 이어진문장

02-2 안은문장 ① –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 3 (1) 우리 반이 승리했음, 목적어
(2) 그 생명체는 멸종했음, 주어
(3) 수학 공부에 전념하기, 부사어
- 4 (1) 토끼가 사라졌음이 밝혀졌다.
(2)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3) 영화는 철수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 5 (1) 아이들은 방학이 되기를 기다렸다.
(2) 그 사실은 철수가 범인임을 보여 준다.

02-3 안은문장 ② –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 6 (1) 주차장에 있는 (2) 내가 읽은
(3) 동생이 먹던
- 7 (1) 안경을 쓴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온다.
(2) 동생이 나에게 굴러온 공을 던진다.
(3) 나는 철수가 그린 그림을 보고 싶다.
- 8 (1) 동물원에 있는, 주어(판다가)
(2) 철수가 그렸던, 목적어(풍경화를)
(3) 선인들의 자취가 담긴, 부사어(풍속화에)

02-4 안은문장 ③ –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 9 (1) 이가 시리도록 (2) 말도 없이
(3) 남의 도움 없이 (4) 눈이 부시게
(5) 성과가 없이
- 10 (1) 그곳은 전시되었다. + 예술품들이 다양하다.
(2) 우리들은 토론을 하였다. + 날이 새다.

- (3) 산 그림자가 다가온다. + 소리도 없다.

- 11 (1) 홍길동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2) 민주는 밤이 새도록 공부를 했다.
(3) 아이들이 땀이 나게 뛰어놀았다.

02-5 안은문장 ④ –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 12 (1) 성격이 좋다 (2) 장미꽃이 예쁘다
(3) 용기가 부족하다 (4) 허리가 아프시다
(5) 글씨가 너무 작다 (6) 길이가 짧다

- 13 (1) • 안은문장 → 주어: 영수는, 서술어: 손이 크다
• 안긴문장 → 주어: 손이, 서술어: 크다
(2) • 안은문장 → 주어: 과일은, 서술어: 사과가 맛있다
• 안긴문장 → 주어: 사과가, 서술어: 맛있다
(3) • 안은문장 → 주어: 이 집안은, 서술어: 아들이 귀하다
• 안긴문장 → 주어: 아들이, 서술어: 귀하다

02-6 안은문장 ⑤ –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 14 (1) 선행이가 웃었다고 (2) “악법도 법이다.”라고
(3) 자기가 범인이라고 (4) 이것은 책이 아니라고
(5) “집에 가라!”라고 (6) 인간이 매우 존귀하다고

- 15 (1) • 간접 인용: 영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얼른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 직접 인용: 영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얼른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2) • 간접 인용: 손자가 할아버지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렸다.
• 직접 인용: 손자가 할아버지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드렸다.
(3) • 간접 인용: 민수가 조용히 나가자고 내 귀에 속삭였다.
• 직접 인용: 민수가 “조용히 나가자.”라고 내 귀에 속삭였다.
(4) • 간접 인용: 아빠가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다.
• 직접 인용: 아빠가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니?”라고 물으셨다.
(5) • 간접 인용: 누나가 자신의 책 좀 가져오라고 말했다.
• 직접 인용: 누나가 “내 책 좀 가져와.”라고 말했다.

02-7 이어진문장 ① –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 16 (1) 나열 (2) 대조
(3) 선택 (4) 나열
(5) 선택
- 17 (1) 산은 높고 골짜기가 깊다.
(2) 나는 철수를 자주 만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3)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박수를 친다.

02-8 이어진문장 ②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 18 (1) 원인(이유) (2) 배경(상황)
(3) 의도 (4) 양보
- 19 (1) 봄이 되면 꽃이 핀다.
(2) 회의를 시작하려고 학생들을 모았다.
(3) 집에 들어오는데 영화와 마주쳤다.
(4) 네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소원을 들어주겠다.
(5) 오빠가 아파서 나는 오빠와 병원에 갔다.



개념 적용 연습

본문 p. 143

- 01 (1) ㉠ (2) ㉡ (3) ㉢ (4) ㉣ (5) ㉤
- 02 (1) × (2) ○ (3) ○ (4) × (5) ○
- 03 (1) 주어 (2) 목적어 (3) 부사어 (4) 부사어
(5) 목적어
- 04 (1) 주어 (2) 부사어 (3) 주어 (4) 목적어
- 05 (1) ○ (2) × (3) ○ (4) ○ (5) × (6) ×
- 06 (1) ㉠, ㉡ (2) 기린은 (3) 나무가 많다
(4) ㉢의 '나무가'
- 07 (1) 코가 매우 길다 (2) 코끼리는
(3) 코가 (4) 코가 매우 길다 (5) 길다
- 08 (1) ○ (2) × (3) ○ (4) × (5) × (6) ○
- 09 (1) 나열 (2) 대조 (3) 생략할 수 있군
(4) 들어갈 수 없군
(5)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군
- 10 ㉠, ㉡, ㉢
- 11 (1) ㉠ (2) ㉡ (3) ㉢ (4) ㉣ (5) ㉤
- 12 (1) × (2) ○ (3) ○ (4) × (5) ○ (6) ×

- 13 (1) 대등적으로 (2) 목적어 (3) 다르다
(4) 명사절, 관형사절 (5) 오기, 준 (6) 관형어

- 14 (1) 종속적으로
(2) ㉠이 ㉡에, 주어
(3) 대등하게 (4) 가정 (5) 부사절 (6) 관형사절

01

- (1)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린다.'는 '바람이 분다.'와 '비가 내린다.'의 두 홀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2) '민수가 산 시계가 고장났다.'는 '민수가 (시계를) 샀다.'라는 홀문장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전체 문장인 '시계가 고장났다.'에 들어가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3) '우리 집 정원에 장미꽃이 피었다.'는 주어 '장미꽃이'와 서술어 '피었다'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4) '다예가 교실에서 소설책을 읽었다.'는 주어 '다예가'와 서술어 '읽었다'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5) '공명이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는 '바람이 불기'라는 명사절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02

- (1) ㉠은 ㉡에 대하여 '조건'의 의미를 가지므로, 두 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 (2) ㉢은 '눈이 내리다'에 관형사형 어미 '-니' 결합하여 이루어진 관형사절로, 뒤에 오는 체언 '마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 (3) ㉣은 '그가 왔다'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명사절로, 안은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목적어가 생략될 경우 안은문장의 의미는 불완전해진다.
- (4) (나)와 (다)에서 ㉢은 전체 문장의 관형어, ㉣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로 전체 문장에 안기어 있다.
- (5) (가)~(다)는 모두 '주어 + 서술어'의 관계가 문장 속에 두 번 씩 나타나고 있는 겹문장이다.

03

- (1) '색깔이 희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 (2) '그가 음악가임'은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

이고 있다.

- (3) '집에 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예'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 (4) '(그는) 1년 후에 돌아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 (5) '아이들은 병원에 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조사가 생략된 채 안은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04

- (1)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에서 관형사절은 '(형이) 대학생이 된'으로, 안은문장에 안기면서 주어가 생략되었다.
- (2)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에서 관형사절은 '관중이 (경기장에) 쓰레기를 남긴'으로, 안은문장에 안기면서 부사어가 생략되었다.
- (3)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에서 관형사절은 '(경희가) 버스에 탄'으로, 안은문장에 안기면서 주어가 생략되었다.
- (4)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에서 관형사절은 '어제 부모님이 (일을) 시키신'으로, 안은문장에 안기면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05

- (1) ㉠에서는 '소리도 없이'가 부사절로 안겨 있으며, ㉡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가 부사절로 안겨 있으므로, 홀문장이 부사형 어미 '-이'와 결합하여 다른 문장에 부사절로 안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은 '김장 김치가 익었다.'와 '맛이 있다.' 두 개의 홀문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 (3) ㉣에서 '맛이 있네'는 '맛이 있(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이며, ㉤에서 '밤이 새도록'은 '밤이 새(다)'에 부사형 어미 '-도록'이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이다.
- (4) ㉥의 부사절 '밤이 새도록'은 서술어 '하었다'를 수식하여 '어떻게'라는 의미를 더해 주고, ㉦의 부사절 '아무런 이유도 없이'는 서술어 '오지 않았다'를 수식하여 '어떻게'라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 (5) ㉧~㉨에 제시된 부사절은 안은문장에서 모두 수의적 성분으로 쓰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 (6) '그는 빨래를 깨끗이 하였다.'에서 '깨끗이'는 부사로 부사어에

해당하지만, 부사절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06

- (1) ㉠과 ㉡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므로, 홀문장이 전체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 있다. 하지만 ㉢은 '주어 + 보어 + 서술어'의 구조를 갖는 홀문장이다.
- (2) ㉣에서 서술절은 '목이 길다.'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기린'으로, '기린은'이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서술절의 주어는 '목'이다.
- (3) ㉤의 '많다'는 서술절 '나무가 많다.'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전체 문장에서의 서술어는 서술절인 '나무가 많다'이다.
- (4) ㉥은 홀문장에 해당하므로 서술절이 없다. ㉦에서 '대학생'은 서술어 '되었다' 앞에 쓰여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07

- (1) '코끼리는 코가 매우 길다.'는 '코가 매우 길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는 안은문장이다.
- (2) 안은문장은 전체 문장을 의미하므로 전체 문장의 주어는 '코끼리'이다.
- (3) 안은문장은 '코가 매우 길다.'이므로 주어는 '코'이다.
- (4) 서술절이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안은문장의 서술어는 '코가 매우 길다.'이다.
- (5) 안은문장은 '코가 매우 길다.'로, 서술어는 '길다'이다.

08

- (1)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을 홀문장으로 분석하면, '영희는 말했다.'와 '철수가 참 빠르다.'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용절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2) 직접 인용절에서는 '라고'가, 간접 인용절에서는 '고'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에 사용되는 조사는 같지 않다.
- (3) 직접 인용절의 '영희는 "철수가 참 빠르네."라고 말했다.'를 보면 큰따옴표를 사용한 반면, 간접 인용절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4) 간접 인용절인 '영희는 철수가 참 빠르다고 말했다.'를 보면, 영희가 말한 "철수가 참 빠르다."가 인용절로 안겨 있으므로, 간접 인용절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직접 인용절에서 인용된 '철수가 참 빠르네.'는 그 어떤 것도 형태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6) 인용절인 '철수가 참 빠르네.'에서 어미 '-네'가 간접 인용절에

서는 ‘-다’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하다.

09

- (1) ㉠의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을 보면,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인생은 짧다.’와 ‘예술은 길다.’를 나열하고 있다.
- (2) ㉡의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을 보면 연결 어미 ‘-지만’을 사용하여 ‘동생은 과일은 좋아한다.’와 ‘동생은 채소는 싫어한다.’를 대조적인 의미 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 (3) ㉢에서 ‘동생은 과일은 좋아하지만, 채소는 싫어한다.’는 ‘동생은 과일을 좋아한다.’와 ‘동생은 채소를 싫어한다.’의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문장이 이어진문장이 되면서 주어 ‘동생은’이 생략되었다.
- (4) ㉠, ㉡에서 앞 절이 뒤 절의 문장 안으로 들어간 ‘예술은 인생은 짧고 길다.’와 ‘동생은 채소는 과일은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비문이므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이 뒤 절의 문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5) ㉠, ㉡으로 볼 때,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에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는 바뀌지 않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은 앞뒤 문장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10

- ㉠ ‘나는 시를 좋아한다.’와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라는 두 홀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 ㉡ ‘그녀는 집에서 공부했다.’와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라는 두 홀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 ㉢ ‘짧다’는 ‘누구와’에 해당하는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는 문장에서 필수 부사어에 해당한다. 홀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 ‘성난 군중이 앞문으로 들이닥쳤다.’와 ‘성난 군중이 뒷문으로 들이닥쳤다.’라는 두 홀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 ㉤ ‘사귀다’는 ‘누구와’에 해당하는 행위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동사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는 문장에서 필수 부사어에 해당하며 홀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1

‘읽으면’은 조건, ‘읽으려고’는 의도 또는 목적, ‘읽어도’는 양보, ‘읽고 있는데’는 배경, ‘읽어서’는 인과의 의미를 갖는다.

12

- (1) ㉠은 이가 아픈 원인으로 인해 치과에 가게 되었음을 연결

어미 ‘-아서’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2) ㉡은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철수가 와야 그들이 떠날 것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3) ㉠, ㉡에서 앞 절이 뒤 절의 문장 안으로 들어간 ‘치과에 이가 아파서 갔다.’와 ‘그들은 철수가 오면 출발할 것이다.’가 올바른 문장임을 고려할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이 뒤 절의 문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 ㉠ ‘치과에 가서 이가 아팠다.’와 ㉡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는 비문임을 고려할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에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5) ‘넷물이 깊어서 아이가 건널 수 없었다.’ 역시 두 홀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6) ㉢은 앞 절과 뒤 절이 ‘조건의 의미 관계를 지닌다. 그런데 ‘철수는 도서관을 가려고 집을 나섰다.’는 앞 절과 뒤 절이 ‘의도’의 의미 관계를 지니므로 ㉠과 의미 관계가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없다.

13

- (1) ㉠과 ㉡이 연결 어미 ‘-고’로 연결되었으므로,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2) ㉢은 명사절인 ‘형이 오기’가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이 목적어인 ㉡을 안고 있는 것이다.
- (3) ㉠의 안은문장의 주어는 ‘나는’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형이’이다. 그리고 ㉡의 안은문장의 주어는 ‘동생은’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형이’이다. 따라서 ㉠과 ㉡ 각각의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주어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4) ㉢은 ‘형이 오기’라는 명사절을 안고 있으며, ㉣은 ‘형이 준’이라는 관형사절을 안고 있다.
- (5) ㉤에서 서술어는 ‘오기’이며, ‘기다렸다’는 ‘나는’의 서술어이다. ㉥에서 서술어는 ‘준’이며, ‘읽었다’는 ‘동생은’의 서술어이다.
- (6) ㉥은 ㉤에 안겨 있는 문장으로 ‘형이 준’의 형태로 보아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관형사절로 안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14

- (1) ‘-어서’는 의미상 앞부분이 뒷부분의 원인에 해당할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이다. ㉠과 ㉡은 인과에 의해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2) ‘바람이 차갑다’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바람이 차가운’

이 되어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에 안겨 있다. 또한 안기면서 주어 '바람이'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에 안겨 ㉡의 목적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 (3) 연결 어미 '-고'가 나열의 의미를 지니므로, ㉠과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4) '바람이 불면 단풍잎이 흔들린다.'는 ㉠과 ㉡을 가정의 의미관계로 연결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5) ㉠의 '바람이 차갑다.'의 '차갑다'가 부사형 어미 '-게'와 결합하여 ㉡에 부사절의 형태로 안겨 있다.
- (6) ㉡은 '(단풍잎이) 흔들리는'의 형태로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관형사절의 형태로 ㉡에 안겨 있다.

03 문법 요소

본문_ p. 154

03-1 종결 표현

- 1 (1) 명령문 (2) 청유문
(3) 감탄문
- 2 (1) 설명 의문문 (2) 판정 의문문
(3) 수사 의문문

03-2 높임 표현 ① -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 3 (1) 주체 높임법 (2) 객체 높임법
(3) 주체 높임법 (4) 객체 높임법
- 4 (1) 주체 높임법, 깨서, 드신다
(2) 객체 높임법, 깨, 드렸습니다
(3) 주체 높임법, 있으시다
(4) 객체 높임법, 깨, 여쭙어

03-3 높임 표현 ② - 상대 높임법

- 5 (1) 비격식체 (2) 격식체
(3) 비격식체 (4) 격식체
- 6 (1) ㉠ (2) ㉡
(3) ㉢ (4) ㉣
(5) ㉤

03-4 시간 표현 ① - 시제(과거, 현재, 미래)

- 7 (1) 과거 (2) 현재
(3) 미래 (4) 과거
(5) 현재 (6) 미래
- 8 (1) • 시제: 과거 • 실현 방법: 어제, 가더라
(2) • 시제: 미래 • 실현 방법: 내일, 내리겠습니다
(3) • 시제: 현재 • 실현 방법: 봄보다
(4) • 시제: 현재 • 실현 방법: 예쁘다(기본형)
(5) • 시제: 미래 • 실현 방법: 앞으로, 하리라
(6) • 시제: 미래 • 실현 방법: 곧, 떠날 것이다
(7) • 시제: 미래 • 실현 방법: 내일, 올 거야
(8) • 시제: 과거 • 실현 방법: 아까, 먹었다
- 9 (1) 나는 학생이었다. (2) 자리에 앉은 사람
(3) 구울 빵 (4) 예쁘던 꽃
(5) 홍수가 날 것이다. 또는 홍수가 나겠다.
(6) 숙제를 다 한다. (7) 고기를 잡았다.
(8) 도착할 열차 (9) 방학이 그림다.

03-5 시간 표현 ② - 동작상

- 10 (1) 진행상 (2) 완료상
(3) 진행상 (4) 완료상
- 11 (1) • 종류: 진행상 • 실현 방법: -고 있다
(2) • 종류: 완료상 • 실현 방법: -고서
(3) • 종류: 진행상 • 실현 방법: -어 가다
(4) • 종류: 완료상 • 실현 방법: -어 버리다
(5) • 종류: 완료상 • 실현 방법: -아 있다

03-6 피동 표현

- 12 (1) 어근 + 피동 접미사 '-하-'
(2) 용간의 어간 + '-게 되다'
(3) 서술성을 가진 체언 + 접미사 '-되다'
(4) 용간의 어간 + '-어지다'
- 13 (1)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2) 정호가 지우에게 밀렸다.
(3) 그림이 벽에 걸렸다.
(4) 그 사건의 범인이 구속되었다.
(5) 얼룩말이 사자에게 물렸다.

- 14 (1) 멧돼지가 사냥꾼에게 잡히다.
 (2) 범인들이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3) 경수는 자동차를 잃게 되다.
 (4) 유리창이 영수에 의해 깨어지다.

03-7 사동 표현

- 15 (1) 이 (2) 리
 (3) 우 (4) 추
 (5) 구 (6) 히
 (7) 기 (8) 리

- 16 (1) 형이 동생을 울렸다.
 (2) 형이 동생에게 신발을 신겼다.
 (3) 형이 아기를 의자에 앉혔다.
 (4) 형이 나에게 책을 읽힌다.
 (5)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6) 형이 아이에게 감자약을 먹인다.

- 17 (1) 엄마가 아이에게 빵을 먹인다.
 (2)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3) 경찰이 차를 정지시킨다.
 (4) 아빠가 아이에게 손을 씻게 했다.

- 18 (1) 사동 (2) 사동
 (3) 피동 (4) 사동
 (5) 피동 (6) 피동
 (7) 피동 (8) 사동

03-8 부정 표현

- 19 (1) 단순 부정 (2) 의지 부정
 (3) 능력 부정 (4) 상황 부정

- 20 (1) 영화는 학교에 안 갔습니다.
 (2) 철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
 (3) 그 일을 못 했다.
 (4) 철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5) 철수야, 손을 씻지 마라.
 (6) 영화야, 영화를 보지 말자.

03-9 인용 표현

- 21 (1) 날씨가 참 덥다고 (2) “제가 맡을게요.”라고

- 22 (1) 자기 (2) 가자
 (3) 달라

03-10 어휘 표현과 태도

- 23 (1) 고유어 (2) 외래어
 (3) 외래어 (4) 한자어
 (5) 고유어 (6) 한자어

- 24 (1) 증상, 소견, 처치, 안정적
 (2) 아나필락시스, 바이털 사인

- 25 (1) 부정 (2) 긍정
 (3) 긍정

03-11 올바른 문장 표현 ① – 문장 성분 간의 호응

- 26 (1) 좋다, 좋지 않다
 (2) 공부한다, 공부해야 한다
 (3) 산책이나, 산책을 하거나
 (4) 싶습니다, 싶다는 것입니다
 (5) 도착하였다, 도착하였을 것이다
- 27 (1) 설마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2) 문제는 네가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 경찰의 이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4) 그 아이는 예뻐 뿐만 아니라 여간 착하지 않다.
 (5) 우리는 반드시 숙제를 해야 한다.

03-12 올바른 문장 표현 ② – 종의적 문장

- 28 (1) × (2) ○
 (3) × (4) ○
 (5) ○

- 29 (1) 나는 철수와, 영화를 만났다. / 나는, 철수와 영화를 만났다.
 (2) 고양이의 예쁜 새끼를 보았다.
 (3) 나만 민수를 안 때렸다.
 (4) 형은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게임을 좋아한다.

- 30 (1)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2) 답을 몇 개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3) 혁민이가 말하는 내용이 이상하네요.
 (4) 남편은 내가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비디오를 좋아한다.
 (5) 어머니께서 사과 한 개와 굴 한 개를 주셨다.

- (6)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개념 적용 연습

본문 p. 169

- 01 (1) ㉠ (2) ㉡ (3) ㉢ (4) ㉣ (5) ㉤ (6) ㉥
 02 (1) 조사, 특수 어휘 (2) 종결 어미 (3) 목적어 (4) ㉠ (5) 조사, 선어말 어미
 03 (1) × (2) × (3) × (4) ○ (5) × (6) ○
 04 (1) ㉠ (2) ㉡ (3) ㉢ (4) ㉣ (5) ㉤
 05 (1) ㉠ (2) ㉡ (3) ㉢ (4) ㉣ (5) ㉤
 06 (1) ○ (2) × (3) × (4) ○ (5) ○
 07 (1) 주어 (2) 목적어나 부사어 (3) 바꿀 수 없겠군 (4) 달라지지 않는군 (5) 바꿀 수는 없겠군
 08 (1) 형용사 (2) 부사어 (3) 늘어나는군 (4) ㉠ (5) 간접, 간접 (6) 목적어
 09 (1) 부정 부사 (2) 하고 싶지 않다 (3) 능력을 부정 (4) 부정 용언 (5) 의미의 차이가 없다
 10 (1) × (2) ○ (3) ○ (4) × (5) ×
 11 (1) 찢다고 (2) 갔다 (3) 오늘 (4) 그 (5) 나
 12 (1) ㉠ (2) ㉡ (3) ㉢ (4) ㉣
 13 (1) 형성, 분포 (2) 공유 전자쌍, 극성 분자
 14 (1)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2) 자리를 (3) 시간에 (4) 고단하지만
 15 (1) × (2) × (3) ○ (4) ○ (5) ○
 16 (1) 심표를 추가 (2) 체언(수사) (3) 부사어 (4) 어순을 변경 (5) 조사
 17 (1) ㉠ 아버지 (2) ㉡ 할아버지 (3) ㉢ -습니다
 18 (1) 부사어 (2) 주어 (3) 나타나는군 (4) 같을 (5) 만들 수 있군
 19 (1) × (2) ○ (3) ○ (4) ○ (5) ○

01

- (1) '창문 좀 열자.'는 청유문이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2) '불조심 합시다'는 청유문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3) '세워 주시겠어요?'는 의문문이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 (4) '너 연필을 몇 개 가지고 있니?'는 의문문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5) '한번 보자'는 청유문이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6)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는 의문문이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02

- (1) ㉠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2) ㉡에서는 '-습니다'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3) ㉢에서는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4) ㉣에서는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주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를 확인할 수 없다.
 (5) ㉤과 ㉥에서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03

- (1) ㉠에서는 상대가 아닌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께서'와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2) ㉡에서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3) ㉢에서는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4) ㉣에서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께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5) ㉤에서는 주체가 아닌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6) ㉥에서 청자는 '아버지'이므로 상대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04

- (1) '넋터라'에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 사용하는 '-더-'가 사용되었다.
 (2) '혼났다'는 '혼나- + -았- + -다'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사용되었다.

- (3) '보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관형사형 어미 '-던'이 사용되었다.
- (4) '살았었다'는 발화시보다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았었-'이 사용되었다.
- (5) '읽은'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사용되었다.

05

- (1) '하고 있었어요'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 (2)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 (3) '이미 알고 있어'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 (4) '안경 벗고 있어도'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 (5) '백타이를 매고 있네'는 동작의 진행과 상태의 지속 모두를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06

- (1) '힙쓸리다'는 타동사 '힙쓸다'의 어근에 피동 접사 '-리-'가 붙어 피동사가 된 것이다.
- (2)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폭풍이 마을을 힙쓸다'가 된다. 피동문의 부사어 '폭풍에'는 능동문에서 주어 '폭풍이'가 된다.
- (3)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경찰이'가 주어가 되면서 '경찰'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
- (4) '잡혀지다'는 '잡- + -히- + -어지다'로 분석된다.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사용된 지나친 피동 표현이다.
- (5) <보기>에서 능동문의 서술어에 알맞은 피동 접사나 '-어지다'를 붙여 피동문의 서술어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풀다'의 어간에 '-어지다'를 붙여 만든 '풀어지다'를 사용해도 피동문이 된다.

07

- (1) ㉠~㉣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에서는 '철수', ㉡에서는 '영희', ㉢에서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
- (2) ㉠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과 ㉢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로 바뀌었다.
- (3) '떡다'에 '-시키다'를 붙인 형태인 '떡게 시키다'는 성립할 수 없다.
- (4) ㉤의 주동문 '그가 집에 가다'에서 '집에 가'는 동작의 대상은

'그'이며, 사동문인 '(영희가) 그를 집에 가게 하다'에서도 '집에 가'는 동작의 대상은 '그'이므로 동작의 주체는 동일하다.

- (5) '가다'는 사동 접사를 붙여 사동사를 만들 수 있는 동사가 아니다.

08

- (1) ㉠의 '낮춘다'는 '낮다'라는 형용사에 사동 접사 '-추-'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 (2) ㉡에서 주동문의 주어 '아이가'는 사동문에서는 부사어 '아이에게'로 바뀐다.
- (3)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은 서술어가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바뀌었다. 그리고 ㉡은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에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로 바뀌었다.
- (4) ㉢의 경우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로 쓸 수 없으므로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 '철수가 책을 읽다'로 바꿀 수 있으므로 주동문을 만들 수 있다.
- (5) ㉤에서 '~읽히셨다'는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이고, '읽게 하셨다'는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으로, 이는 모두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도록 시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 (6) ㉥에서 자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주동문의 주어 '아기가'는 사동문에서 목적어 '아기'로, 타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주동문의 주어 '철수가'는 사동문에서 부사어 '철수에게'로 바뀌었다.

09

- (1) ㉠, ㉡, ㉢, ㉣은 '못'과 '안'을 사용하여 만든 짧은 부정문이다.
- (2) ㉤에서 '안'은 동사 앞에서 '하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3) ㉥에서 '못'은 동사 앞에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4) ㉦은 '못하다'를 사용하여 만든 긴 부정문이다.
- (5) ㉥의 긴 부정문과 ㉦의 짧은 부정문은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10

- (1) ㉠의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에서 '못해'는 지루하다는 상태에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의 상태가 극에 달해 지루함을 넘어 졸린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지루하다'의 상태에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도, 뒷말을 부정하

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2) 부정 표현 중에서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으로 인한 부정을 표현하는 '못' 부정문은 부사 '못'을 활용하거나 용언 '못하다'에 의해 실현된다.
- (3) ㉠은 명령문의 상황으로, '않아라', '못해라'를 사용하면 비문법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서는 '안' 부정과 '못' 부정이 아닌 '말다' 부정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4) ㉡의 '넌덕하다'는 형용사로, '못'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 못하다'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부정 부사 대신 부정 용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 (5) ㉢에서 '분명히'는 '했다', '하지 않았다' 모두와 호응을 이루지만, '결코'는 '하지 않았다'와만 호응을 이룬다. 이를 통해 부사가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1

- (1) 간접 표현에서는 조사 '고'가 사용되므로 '뻘뻘'로 수정해야 한다.
- (2) ㄴ은 높임 표현인 '값어'를 바꿔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값습니다'도 높임 표현이므로 '값다'로 바꿔야 한다.
- (3) ㄷ은 시간 표현인 '내일'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말하는 시점인 '오늘'로 바꿔야 한다.
- (4) ㄹ에서 지시 표현인 '이'는 지아의 입장에서 가리키는 것이므로, 간접 인용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로 바꿔야 한다.
- (5) ㄹ에서 '민지'가 부른 '너'는 '나'에 해당하므로, 인칭 표현인 '너'를 '나'로 바꿔야 한다.

12

- (1) '변명'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2) '가혹'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문법 시험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3) '뽐내다', '축제'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4) '경쟁력', '강화'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그 지역'의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3

〈보기〉를 통해 사고 도구어는 추상적이고 정교한 개념을 나타내

는 경우가 많아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전문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성'과 '분포'는 사고 도구어에, 화학 분야에서 쓰이는 '공유 전자쌍'이나 '극성 분자'는 전문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4

- (1) ㉠은 원래 문장에서 주어인 '문제는'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고, 고쳐 쓴 '모르고 있었다' 역시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로 적절하지 않다. '모르고 있다'의 주어가 '누구도'이므로 주어 '문제는'의 서술어 '것이다'가 필요하다.
- (2) ㉡의 서술어인 '차지한다'는 타동사이므로 '자리 중'을 '자리로'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를'로 고쳐야 한다.
- (3) ㉢의 '구에 받다'는 조사 '에'와 함께 쓰이므로 '시간을'을 '시간에'로 고쳐야 한다.
- (4) ㉣의 부사 '비록'은 '-르지라도'나 '-지만'과 같은 어미가 붙는 용언과 함께 쓰이므로 '고단하면서'를 '고단하지만'으로 고쳐야 한다.

15

- (1) ㉠은 '예쁜'이 '영희'와 '동생' 중 누구를 꾸미는지 모호한 중의적 문장이다. '다가왔다'의 주체는 영희의 동생이다.
- (2) ㉡은 '그와 '나' 중 '그'가 음악을 더 좋아한다는 것인지, '그'가 '나'와 '음악' 중 '음악'을 더 좋아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문장이다. 즉, 비교 대상이 '그와 '나'인지, '나'와 '음악'인지 불분명한 문장이다.
- (3) ㉢은 '영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 또는 '영수가 많은 친구를 보고 싶어 한다'처럼 수정해야 의미가 명료해진다.
- (4) ㉣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또는 '일부만 왔다'처럼 수정하여 전체 부정인지 부분 부정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5) ㉤은 입을 동작이 진행 중인지, 입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해야 한다.

16

- (1) ㉠은 '키가 큰'과 '친구의 동생' 사이에 심표(반점)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 (2) ㉡은 체언인 '하나'를 추가하여 '사과 하나와'로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 (3) ㉢은 '함께'라는 새로운 부사어를 첨가하여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 (4) ㉣은 '어제'를 서술어 '만났다' 앞으로 이동하여, 즉 어순을 변경하여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5) ㉠은 조사를 첨가하여 '몇 개밖에'로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17

서술어 '가셨습니다'의 주체는 '아버지'㉡, 객체는 '할아버지'㉢이고,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은 '어머니'이다. <보기>에서 제시된 높임 실현 방법을 참고할 때,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8

- (1) 능동문 ㉠의 주어 '언니가'는 피동문인 ㉡에서 부사어 '언니에게'로 바뀌었다.
- (2) 능동문인 ㉢ '나는 그림을 보았다'에서 목적어 '그림을'은 피동문인 ㉣ '그림이 나에게 보였다'에서 주어인 '그림이'로 바뀌었다.
- (3) 주동문인 ㉤이 사동문인 ㉥로 바뀔 때 '형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고 있다.
- (4) 피동문인 ㉡에서 피동사 '안졌다'와 사동문인 ㉢에서 사동사 '안졌다'의 형태는 같다.
- (5) ㉢에서 '안졌다'는 '-기-'라는 접미사에 의해, ㉣에서 '보게 했다'는 '-게 하다'에 의해 사동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19

- (1)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보았다'라는 문장은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형과 내가 본 것과,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내가 본 것'으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집에서'를 넣는다고 해서 중의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바르게 수정하려면 '나는 형과 누나가 함께 추천한 영화를 보았다' 또는 '형과 나는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보았다'로 고쳐야 한다.
- (2) '그 문제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에서는 '다시'와 '재론'이 의미상 중복이 되므로, '다시'를 생략한 것은 적절하다.
- (3) '내가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 줄게'에서 '소개시켜 줄게'는 불필요한 사동이 사용된 표현이다. 따라서 '소개해 줄게'로 고쳐야 한다.
- (4) '내일은 구름과 비가 내리겠습니다'에서 주어 '구름이'는 서술어 '내리겠습니다'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구름이'와 호응하는 '끼고'라는 서술어를 넣어 고친 것은 적절하다.
- (5)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료수 나오셨습니다'는 '나오셨습니다'를 통해 '음료수'를 불필요하게 높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 손님'만을 높여 '나왔습니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IV 담화

01 담화와 구성 요소

본문_ p. 188

01-1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 1 (1) 화자, 청자 (2) 대화, 버스 정류장
- 2 (1) 간접 (2) 간접
- (3) 직접 (4) 직접

01-2 응집성

- 3 ㉠: 응집 ㉡: 통일
- 4 ㉠: 취미
- 5 • 응집성을 해치는 발화: ㉡

01-3 응결성 ① - 지시 표현

- 6 그, 이, 거기
- 7 (1) ○ (2) × (3) ○
- 8 (1) ㉡: 운동장 (2) ㉢: 도서관

01-4 응결성 ② - 대용 표현

- 9 (1) 거기 (2) 그 (3) 그렇다
- 10 (1) ㉡: 하늘 ㉢: 햇살 ㉣: 가슴 벅찬 단 하나
- (2) ㉡: 제주도 ㉢: 딱새우 ㉣: 전복

01-5 응결성 ③ - 접속 표현

- 11 (1) 그러나 (2) 그리고 (3) 그래서
- 12 (1) ㉠: 그래서 (2) ㉡: 그러자 (3) ㉢: 그런데



개념 적용 연습

본문_ p. 193

- 01 (1) ○ (2) × (3) × (4) ○ (5) × (6) ○
- 02 (1) 간접 (2) 직접 (3) 간접 (4) 직접 (5) 직접
- (6) 간접

03 (1) ○ (2) × (3) ○ (4) ×

04 눈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기온이 낮을 때 구름 속 수분이 변하여 생기죠.

05 (1) ○ (2) × (3) × (4) ○ (5) ×

06 (1) (가): 이 (2) (나): 그 (3) (다): 그게

07 (1) × (2) ○ (3) ×

08 ㉠ 하지만, ㉡ 그리고, ㉢ 왜냐하면

09 (1) 인과 (2) 그러므로 (3) 하지만

01

- (1) ㉠에는 '오후 2시'라는 것과 '한 시간' 남았다는 시간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 (2) 정민이 윤희에게 말하는 상황이므로, 화자는 정민, 청자는 윤희라 할 수 있다.
- (3) '어때?'는 정민이가 윤희에게 「노랑」 영화를 보러 가자는 의도가 담긴 말이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 (4) 영화 「노랑」을 상영하는데, 한 시간 남았네. 어때?'를 통해 「노랑」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느냐는 의도를 알 수 있다.
- (5) ㉠에서는 현재 공간이 집이고, 만나는 공간인 '영화관'이라는 공간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 (6) ㉠은 화자가 윤희, 청자가 정민이므로, ㉠의 화자는 ㉠의 청자라고 할 수 있다.

02

- (1) 반장이 떠드는 학생에게 시끄러워 집중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 떠드는 학생이 '조용히 할게.'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반장의 말에는 조용히 해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간접 발화라 할 수 있다.
- (2) 행인 A가 구청으로 가는 길을 묻고 있고, 행인 B가 구청을 가는 방향을 알려 주고 있으므로, 행인 A의 말은 의도가 직접 드러난 직접 발화라 할 수 있다.
- (3) 사원이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장이 실수가 잦은 사원에게 일한 지 몇 년이 되었냐고 묻고 있다. 따라서 사장의 말에는 실수가 많은 사원에게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도를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라 할 수 있다.
- (4) 동생이 언니에게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언니는 시험이 있어서 갈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뮤지컬을 보러 가자는 동생의 말은 의도가 직접 드러난 직접 발화라 할 수 있다.
- (5) 개학 후에 학생들을 대면한 선생님이 학생들이 많이 보고 싶

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의도가 직접 드러난 직접 발화라 할 수 있다.

- (6) 아들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라는 평서문을 사용해 상대방인 엄마에게 '제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주세요.'라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아들의 말에는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요구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아들의 말은 간접 발화라 할 수 있다.

03

- (1) 이 담화는 두 개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고, 담화 내용은 고등어를 먹을 때의 이로운 점과 유의할 점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담화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접속어 '하지만'을 사용하여 앞의 발화와 뒤의 발화를 자연스럽게 이어 주고 있으므로 응집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2) 이 담화는 '오징어'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발화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의미적 관계가 현저히 떨어져 일관된 주제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응집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3) 제시된 담화는 두 개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의 발화가 모두 볼펜을 고르는 기준에 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이루어 응집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이 담화는 네 개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고, '여름'이라는 동일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발화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가 현저히 떨어져 일관된 주제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응집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04

1문단에서는 태풍의 발생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눈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기온이 낮을 때 구름 속 수분이 변하여 생기죠.'는 눈의 발생에 대한 내용이므로 응집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05

- (1) ㉠은 '저것은'이라는 말로, '저것'은 화자와 청자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효준과 유로' 모두에게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2) '효준이 지시한 장소인 ㉠은 현재 효준과 유로가 있는 공간(신발 매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은 현재의 공간과는 다른 전에 갔었던 '○○ 매장'을 가리킨다. 따라서 ㉠과 ㉡이 나타

내는 장소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3) ㉔은 '이것'이라는 말로, '이것'은 화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㉔은 '유로'보다 '효준'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4) ㉔은 '효준'이가 진열대 앞으로 가서 가리킨 신발을 나타내므로, ㉔과 ㉔이 나타내는 사물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5) ㉔은 '효준'과 '유로'가 전에 갔었던 '○○ 매장'을 가리키므로,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06

(가)의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귀족도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 (나), (다)의 '그'와 '그게'는 청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나)에서는 청자가 생각하는 대상인 '영호'를, (다)에서는 청자가 생각하는 '용호가 회사에 취직인 된 것'을 가리키므로 각각 '그', '그게'를 사용해야 한다.

07

- (1)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나온 어휘나 발화 전체를 다시 가리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㉔은 '무릎 담요'를 지시하기는 하지만 대용 표현이 아니라 지시 표현이다.
- (2) ㉔은 앞에서 원세가 말한 '일기예보에서는 날이 풀린다.'는 말을 대용해서 쓴 표현에 해당한다.
- (3) ㉔은 앞에서 원세가 말한, 다음 주에 제출할 '작품'을 대용해서 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8

㉔은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므로 '하지만'이, ㉔은 대기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리고'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㉔이 포함된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가 '때문입니다'로 끝나고 있으므로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어인 '왜냐하면'이 제시되어야 한다.

09

- (1), (2) ㉔의 앞에서는 '시민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드러내고 있고, 뒤에서는 '시민 모두가 정치적 권력을 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㉔의 앞 문장은 뒷문장의 이유에 해당하므로 ㉔에는 인과의 접속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㉔은 '그러나'나 역접의 접속어가 아닌 인과의 접속어인 '그러므로'가 사용되어야 한다.

- (3) ㉔ 뒤의 문장에서는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정치 권력은 정부만 행사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시민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은 '시민 모두가 정치적 권력을 가짐'이라는 앞의 문장과 반대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㉔에는 역접의 접속어인 '하지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2 담화의 맥락

본문_ p. 199

02-1 언어적 맥락

- 1 (1) ㉔: 책 (2) ㉔: 영화
2 (1) ㉔: 비가 (2) ㉔: 그가

02-2 비언어적 맥락 ① - 상황 맥락

- 3 (1) ㉔ (2) ㉔ (3) ㉔
4 (1) ㉔ (2) ㉔ (3) ㉔

02-3 비언어적 맥락 ② - 사회·문화적 맥락

- 5 (1) ○ (2) ○ (3) ○
(4) ×
6 (1) ○ (2) × (3) ○



개념 적용 연습

본문_ p. 202

- 01 (1) 목적어 (2) 있다.
(3) 제가 책을 치우겠습니다. (4) 서술어
- 02 (1) × (2) ○ (3) × (4) ○ (5) ○
- 03 (1) × (2) ○ (3) × (4) ○
- 04 (1) ○ (2) ○ (3) × (4) ○ (5) ×
- 05 (1) 가까이 (2) 멀리 (3) 저웃이랑 같이 입으면
(4) 대용 표현 (5) 전환해 주는
- 06 (1) ㉔ (2) ㉔ (3) ㉔ (4) ㉔ (5) ㉔

01

- (1) (가)의 반장의 말을 복원하면 '철수가 청소를 했어요.'가 되고, (나)의 반장의 말을 복원하면 '아무도 심부름을 하지 않

있어요.’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가)의 반장의 말에서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나)의 반장의 말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었으므로, (가)와 (나)에서 반장은 공통적으로 목적어를 생략하여 말했음을 알 수 있다.

- (2) (가)의 반장의 말에서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나)의 반장의 말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따라서 똑같은 형태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도 생략된 문장 성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선생님이 신발장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반장에게 치우라 하고 있지만, 반장은 책상에 널려 있는 책을 치우라는 것으로 알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의 문장을 복원하면 ‘제가 책을 치우겠습니다.’가 된다.
- (4) 선생님이 신발장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반장에게 치우라 하고 있고, 반장이 신발장을 보면서 알겠다 하고 있다. 따라서 ‘네, 선생님. 치우겠습니다.’에 생략된 문장을 복원하면, ‘제가 신발을 치우겠습니다.’가 된다. 그러므로 주어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로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 (1) 서현의 ‘저번처럼 또 지각해서 선생님께 혼날 수는 없지.’라는 말을 통해 학교에 등교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 (2) 서현이 콘서트를 본 이후 ○○을 좋아하겠다고 하자, 효진이 얼마 전에는 다른 멤버가 좋다 하였다며 좋아하는 멤버가 바뀌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서현이 효진 역시 좋아하는 멤버가 바뀐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효진도 서현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발화라 해석할 수 있다.
- (3) ㉡의 화자는 서현이며, 이를 통해 서현이가 효진과 같은 반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효진이 시간을 물으면서 ‘늦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효진은 등교 시간에 늦을까 염려되어 시간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효진이 시간을 물으면서 ‘늦겠다’고 말하자, 서현이 시간을 확인하고 뛰어가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뛰어가지 않으면 지각할 수 있음을 드러낸 말이라 할 수 있다.

03

- (1) 철수는 ‘뜨거운 탕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토마스는 ‘뜨겁다(hot)’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탕 국물’을 먹으면서 반응이 다른 것은 철수와 토마스의 사

회·문화적 관습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국어 공동체가 영어 공동체보다 인간 관계를 중시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2) 토마스는 철수의 ‘시원하다’라는 말에 진짜로 시원한 줄 알고 국물을 떠 먹은 뒤 ‘뜨겁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단순한 어휘적 의미만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보기>의 사례는 사회·문화적 관습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적 규범과는 거리가 멀다.
- (4) 철수가 ‘뜨거운 탕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입을 통해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는 ‘뜨거운 탕 국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한 말이다. 따라서 철수의 ‘시원하다’라는 말은 몸에 미치는 음식의 영향을 더 중시하는 국어 관습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4

- (1) ㉠은 내용상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주제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서 담화의 응집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2) ㉡의 ‘거기’는 영선의 발화에 언급된 ‘놀이동산’을 대신한 대용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3) ㉢의 ‘여기’와 ㉣의 ‘거기’는 형태는 다르지만 선희가 보여 준 사진에 등장하는 ‘해수욕장’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 (4) ㉤의 ‘그리고’는 두 발화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라 할 수 있다.
- (5) ㉥의 ‘거기’는 영선의 발화에 언급된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5

- (1) ‘이거’는 ‘이것’이라는 의미로, 청자인 은주에 비해 화자인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는 ‘선물’을 가리킨다.
- (2) ‘저’는 화자인 아버지와 청자인 은주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인 ‘옷’을 가리킨다.
- (3) ‘그러면’은 앞의 아버지가 말한 ‘저 옷이랑 같이 입으면’을 대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 (4) ‘그렇게’는 고모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을 대용하여 드러낸 것이므로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 (5) ‘그런데’는 전환의 접속어로서, 앞의 고모한테 받은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영화를 보러 가자는 화제로 말을 돌리기 위해 사용한 접속어이다. 따라서 ‘그런데’는 앞의 화제를 지속적으로 이어 주는 것이 아닌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리는 기능

을 한다고 할 수 있다.

06

- (1) 쌀쌀한 교실에서 영수는 선희와 철호가 춥다고 말하자 ㉠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창문이 열려 있어서 선희와 영호가 추울 것이라는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철호는 영수의 말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자신이 창문을 닫으려 하였지만 귀찮아서 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은 영수가 자신의 말을 상황 맥락에 따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발화라 할 수 있다.
- (3) 선희는 영수에게 자신이 한 춥다는 말이 그냥 쌀쌀해서 한 말이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선희가 말한 ㉢은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창문을 닫아 달라는 것이 아닌, 언어 맥락에 따라 실제로 추위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발화라 할 수 있다.
- (4) '승객 2'는 '승객 1'의 '내리시다'라는 말을 자신이 내리느냐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언어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승객 1'은 자신이 내릴 테니까 비켜 달라 말하고 있으므로, '승객 2'에게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승객 1'은 '승객 2'가 언어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 있다. 한편 '참석'은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감'의 의미를 지닌 '참가'로 바뀌어야 한다.

- (3) 제시된 문장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제시된 문장은 '승강장 안전문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계속 열어 놓고 있습니다.'로 바뀌어 적절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 (4) 조사는 앞의 체언에 붙여 써야 하는데, '9시부터', '10시까지'로 띄어 쓰고 있으므로 정확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5) '서포터스'는 외래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서포터스'는 순우리말인 '도우미'로 바뀌어 써야 한다.
- (6) '살색'은 특정 인종을 차별한 말에 해당하므로 공정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살구색'으로 바뀌어 언어의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03 언어의 공공성

본문_ p. 208

- 1 (1) 적절성 (2) 공정성 (3) 적절성
(4) 정확성 (5) 정확성



개념 적용 연습

본문_ p. 209

- 01 (1) ㉠ (2) ㉡ (3) ㉢ (4) ㉣ (5) ㉤ (6) ㉥

01

- (1) '병어리장갑'은 언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이므로 공정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2) '참석'은 '모임이나 회의 따위의 자리에 참여함'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정확성 측면에서 평가할

V 어문 규범

01 표준 발음법

본문_ p. 212

01-1 모음의 발음

- | | |
|---------------|-------------|
| 1 (1) [다저] | (2) [살찌] |
| (3) [바쳐] | (4) [돋쳐] |
| (5) [이쳐] | (6) [부쳐] |
| 2 (1) [예산] | (2) [실례] |
| (3) [계산/계산] | (4) [은혜/은혜] |
| (5) [통계/통계] | (6) [밀폐/밀폐] |
| 3 (1) [허브/허비] | (2) [유히] |
| (3) [나의/나에] | (4) [하니바람] |
| (5) [사회의/사회에] | (6) [히미하다] |

01-2 받침의 발음 ① - 대표음 및 겹받침의 발음

- | | |
|------------|-----------|
| 4 (1) [온] | (2) [히을] |
| (3) [집] | (4) [손] |
| (5) [전] | (6) [단] |
| 5 (1) [카읍] | (2) [온따] |
| (3) [빈따] | (4) [꼴따] |
| (5) [뵤따] | (6) [덩따] |
| 6 (1) [여덜] | (2) [널따] |
| (3) [할따] | (4) [밥쏘] |
| (5) [밥꼬] | (6) [흑파] |
| (7) [읍따] | (8) [얼꺼나] |
| (9) [일꼬] | |

01-3 받침의 발음 ② - 'ㅎ'의 발음

- | | |
|------------|------------|
| 7 (1) [싸치] | (2) [달치] |
| (3) [알코] | (4) [만코] |
| (5) [조턴] | (6) [노타] |
| 8 (1) [만쏘] | (2) [곤쌔니다] |
| (3) [논네] | (4) [싼네] |

- | | |
|------------|----------|
| 9 (1) [곤나] | (2) [싸을] |
| (3) [실을] | (4) [곤을] |
| (5) [끝는] | (6) [올은] |

01-4 받침의 발음 ③ - 연음과 관련된 조항

- | | |
|-------------|-----------|
| 10 (1) [오시] | (2) [이씨] |
| (3) [또차] | (4) [꼬자] |
| (5) [바테] | (6) [아프로] |
| 11 (1) [안자] | (2) [달글] |
| (3) [절머] | (4) [골씨] |
| (5) [을퍼] | (6) [갑쓸] |
| 12 (1) [느밥] | (2) [저더미] |
| (3) [마덜따] | (4) [허두슴] |
| (5) [다가페] | (6) [가버치] |

01-5 된소리되기(경음화)

- | | |
|--------------|------------|
| 13 (1) [각따] | (2) [칙뵤] |
| (3) [온꼬름] | (4) [꼰따발] |
| (5) [덩개] | (6) [갑찌다] |
| 14 (1) [꺼안따] | (2) [담꼬] |
| (3) [점찌] | (4) [안기다] |
| (5) [널께] | (6) [홀쏘] |
| 15 (1) [말쌀] | (2) [발전] |
| (3) [할빠를] | (4) [할쑤는] |
| (5) [할새라] | (6) [할찌언정] |

01-6 음의 첨가

- | | |
|-------------------|--------------------|
| 16 (1) [숨니불] | (2) [한녀름] |
| (3) [담노] | (4) [내복낙] |
| (5) [들닐] | (6) [불녀우] |
| 17 (1) [새길/샌길] | (2) [해쌀/헐쌀] |
| (3) [빨래돌/빨래돌] | (4) [나루뻘/나루뻘] |
| (5) [콘날] → [콘날] | (6) [아랜니] → [아랜니] |
| (7) [뵤머리] → [뵤머리] | (8) [베갯님] → [베갯님] |
| (9) [댄님] → [댄님] | (10) [나문님] → [나문님] |



개념 적용 연습

본문 p. 218

- 01** (1) 해당하지 않는다 (2) 해당한다 (3) 해당한다
(4) 해당하지 않는다 (5) 해당한다
- 02** (1) × (2) ○ (3) × (4) × (5) ○ (6) ○
- 03** (1) ㉠ (2) ㉡ (3) ㉢ (4) ㉣ (5) ㉤
- 04** (1) 다른 규정 (2) 제14항 (3) 조사 (4) 어미
(5) 제15항
- 05** (1) × (2) × (3) ○ (4) ○ (5) ○ (6) ○
- 06** (1) ㉠과 ㉡ (2) ㉢과 ㉣ (3) ㉤과 ㉥
(4) 늑막염 (5) 서울역 (6) 먹을 었
- 07** (1) ○ (2) × (3) ○ (4) × (5) ×

01

- (1) <보기>에서 ‘ㄱ’과 ‘ㄴ’을 동일하게 발음해도 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개’와 ‘계’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 <보기>에서 ‘ㄴ’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네]와 같아진다고 하였으므로, ‘금괴’를 [금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3) <보기>에서 ‘예, 레’ 이외의 ‘ㄴ’은 [ㄴ]로 발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지혜’를 [지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4) <보기>에서 ‘ㄴ’을 [ㄴ]로 발음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비취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5) ‘충의의’라는 말에서 둘째 음절의 ‘의’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ㄴ]로 발음할 수 있고, 셋째 음절의 ‘의’는 조사이므로 [ㄴ]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충의의’를 [충이예]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2

- (1) 제10항에서 겹받침 ‘ㅈ’은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밭고’는 [밭꼬]로 발음해야 한다.
- (2) 제11항에서 겹받침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ㅈ]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삶다’는 [삼따]로 발음해야 한다.
- (3) 제11항에서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흙과’는 [흑꽈]로 발음해야 한다.
- (4) 제11항의 ‘다만’에서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말게’는 [말께]로 발음해야 한다.
- (5) 제10항의 ‘다만’에서 ‘밭-’은 자음 앞에서 [밧]으로 발음한다

고 하였으므로, ‘밭고’는 [밧꼬]로 발음해야 한다.

- (6) 제10항에서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외곶’은 [외곶]로 발음해야 한다.

03

- (1) ‘만형’은 받침 ‘ㄷ’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마텅]으로 발음되므로, ㉠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낱은’은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어 ‘ㅎ’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나은]으로 발음되므로, ㉡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않는’은 ‘ㄷ’ 뒤에 ‘ㄴ’이 결합되어 ‘ㅎ’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안는]으로 발음되므로, ㉢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4) ‘놓는’은 ‘ㅎ’ 뒤에 ‘ㄴ’이 결합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논는]으로 발음되므로, ㉣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않던’은 ‘ㄷ’ 뒤에 ‘ㄷ’이 결합되어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 [텅]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안텅]으로 발음되므로, ㉤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04

- (1) ‘넋도’는 제10항과 ‘참고’에 따라 [넉또]로 발음해야 하고, ‘넋이’는 제14항에 따라 [넉씨]로 발음해야 하므로, ‘넋도’와 ‘넋이’의 발음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없을’을 [업쓸]로, ‘을어’를 [을퍼]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제14항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3) ‘꽃을’에서 ‘을’은 조사이다. ‘꽃을’을 [꼬츄]로 발음하는 것은 흘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제13항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4) ‘있어’의 ‘-어’와 ‘앉아’의 ‘-아’는 모두 어미이다. ‘있어’를 [이쎄]로 발음하는 것은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제13항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앉아’를 [안자]로 발음하는 것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제14항에 따른 것이다.
- (5) ‘꽃이’의 ‘이’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며, ‘꽃 위’의 ‘위’는 실질 형태소인 명사이다. 제15항을 통해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

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꽃 위’는 이러한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꼬위]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05

- (1) ‘할계’의 경우 어간 ‘하-’에 ‘ㄹ’로 시작되는 어미 ‘-ㄹ게’가 붙어 [할계]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27항의 [붙임]에 해당한다.
- (2) ‘옹기다’의 경우 어간 ‘옹-’에 접미사 ‘-기-’가 결합된 것이므로 표준 발음법 제24항의 ‘다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옹기다]로 발음되므로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 (3) 제25항에서 어간 받침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옹고’는 [옹꼬]로 발음된다.
- (4) 제24항에서 어간 받침 ‘ㄴ(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신고’는 [싣꼬]로 발음된다.
- (5) 제24항에서 어간 받침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다듬지’는 [다듬찌]로 발음된다.
- (6) 제27항에서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만날 사람’은 [만날싸람]으로 발음된다.

06

- (1) ‘영업용’은 제29항에 따라 [영업농]으로 발음된 뒤, 다시 제18항에 따라 [영업농]로 발음된다.
- (2) ‘물엿’은 제29항에 따라 [물녘]으로 발음된 뒤, 다시 제20항에 따라 [물련]으로 발음된다.
- (3) ‘할 일’이 [할릴]로 발음되는 것은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제29항 ‘붙임’에 해당한다. 그래서 ‘할 일’은 제29항 ‘붙임’에 따라 [할닐]로 발음된 뒤, 제20항에 따라 [할릴]로 발음된다.
- (4) ‘늑막엽’은 제29항에 따라 [늑막녘]으로 발음된 뒤, 제18항에 따라 [늑망녘] → [능망녘]으로 발음된다. ‘직행열차’는 제29항의 조항에 따라 [지갱열차]로 발음되는데, 이때 [지갱]은 음운 축약에 따른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하므로 제18항과는 무관하다.
- (5) ‘막일’은 제29항에 따라 [막닐]로 발음된 뒤, 제18항에 따라 [망닐]로 발음된다. ‘서울역’은 제29항에 따라 [서울녘]으로 발음된 뒤, 제20항에 따라 [서울력]으로 발음된다.

- (6) ‘먹을 엿’은 제29항에 따라 [머글녘]으로 바꾼 뒤, 제20항에 따라 [머글련]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먹을 엿’은 두 단어를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9항 ‘붙임’에 해당한다. 반면 ‘한 일’은 제29항과 제29항의 ‘붙임’에 해당하지만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07

- (1) ‘ㄱ’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을 볼 때, 사이시옷이 붙은 ‘넷가’는 [내까]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 (2) ‘ㄱ’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을 볼 때, 사이시옷이 붙은 ‘콧등’은 [코똥]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콘똥]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함을 알 수 있다.
- (3) 사이시옷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는 ㉠을 볼 때, 사이시옷이 붙은 ‘아랫니’는 [아랜니]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4)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 ㄴ]으로 발음한다는 ㉠을 볼 때, 사이시옷이 붙은 ‘나뭇잎’은 [나문닙]으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5) 사이시옷이 붙은 ‘콧날’은 ㉠에 따라 [콘날]로, 사이시옷이 붙은 ‘깟잎’은 ㉠에 따라 [깸닙]으로 발음된다. ‘참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ㄴ’ 음 첨가는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만 해당하므로, ‘깟잎’만 ‘ㄴ’ 음 첨가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02 한글 맞춤법

본문_ p. 225

02-1 총칙, 소리에 관한 것 ① - 된소리

1 고구마, 달다

- | | |
|------------|---------|
| 2 (1) 해쓱하다 | (2) 소쩍새 |
| (3) 부썩 | (4) 이따금 |
| (5) 담뱃 | (6) 움짚 |
| (7) 깉두기 | (8) 딱지 |
| (9) 법석 | |

02-2 소리에 관한 것 ② - 구개음화, 'ㄷ' 소리 받침, 모음

- 3 (1) 만이 (2) 핏이다
(3) 해돋이 (4) 견히다
(5) 끝이 (6) 묻히다
- 4 (1) 돌자리, 무른, 사문, 자칫하면
(2) 돛자리, 무릇, 사뭇, 자칫하면
- 5 (1) 혜택 (2) 폐품
(3) 핑계 (4) 휴게실
(5) 하늬바람 (6) 무늬
(7) 날리리 (8) 씌어

02-3 소리에 관한 것 ③ - 두음 법칙

- 6 (1) 유대 (2) 연세
(3) 요소 (4) 당노
(5) 신여성 (6) 공염불
- 7 (1) 역사 (2) 유행
(3) 예의 (4) 분열
(5) 실패울 (6) 선율
- 8 (1) 내일 (2) 누각
(3) 능묘 (4) 왕래
(5) 연로 (6) 가정란

02-4 형태에 관한 것 ① - 어간과 어미

- 9 (1) 아니오 (2) 기울여
(3) 들어간다 (4) 드러났다
(5) 쓸어져서 (6) 운동이요, 춤이요
- 10 (1) 아 (2) 아서
(3) 어 (4) 어서
- 11 요, 요, 요

02-5 형태에 관한 것 ② -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1

- 12 (1) 달맞이 (2) 높이
(3) 노름 (4) 차마
(5) 주검
- 13 (1) 고랑 (2) 날날이
(3) 꼬트머리 (4) 지푸라기
(5) 억척이

02-6 형태에 관한 것 ③ -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2

- 14 (1) 오뚝이 (2) 배불뚝이
(3) 깎두기 (4) 누더기
- 15 (1) 꾸준히 (2) 반드시
(3) 곰곰이 (4) 도저히
(5) 부질없는 (6) 하염없이

02-7 형태에 관한 것 ④ -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1

- 16 (1) 홀몸 (2) 싯누렇다
(3) 며칠 (4) 오라비
(5) 틀니
- 17 (1) 바느질 (2) 싸전
(3) 마되 (4) 선달
(5) 선부르게 (6) 이튿날

02-8 형태에 관한 것 ⑤ -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2

- 18 (1) 냇가 (2) 텃마당
(3) 깻잎 (4) 찻집
- 19 (1) 전세집 → 전셋집 (2) 제사날 → 제삿날
(3) 예사일 → 예삿일 (4) 퇴마루 → 텃마루
- 20 (1) 법씨 (2) 수컷
(3) 햅쌀 (4) 살코기

02-9 형태에 관한 것 ⑥ - 준말

- 21 (1) 그렇잖아도 (2) 적잖은
(3) 변변찮지만 (4) 만만찮은
- 22 (1) 깨끗지 (2) 생각건대
(3) 어떻든지 (4) 아무렇지
(5) 섭섭지 않게
- 23 (1) 기필고 → 기필코
(2) 하영튼 → 하여튼
(3) 하마더면 → 하마터면

02-10 띄어쓰기

- 24 (1) 먹을만큼만 (2) 할수
(3) 대궐만큼 (4) 뜻한바가

- (5) 아는^ㅂ이를 (6) 떠난^ㅂ지가
(7) 아는^ㅂ것이 (8) 여기에서부터

- 25 (1) 청군 대 백군 (2) 두 컬레
(3) 열 살 (4) 소 한 마리
(5) 이사 겸 사장 (6) 사과, 배 등속
(7) 책상, 결상 등
(8)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원

- 26 (1) 올 듯도한데 → 올 듯도 한데
(2) 깎아서드렸다 → 깎아서 드렸다
(3) 덤벼들어보았지만 → 덤벼들어 보았지만
(4) 놀아만나는구나 → 놀아만 나는구나
(5) 사씨 → 사 씨
(6) 양만춘장군 → 양만춘 장군
(7) 떠내려가버렸다 → 떠내려가 버렸다
(8) 장기려박사 → 장기려 박사

02-11 그 밖의 것

- 27 (1) 버젓이 (2) 딱히
(3) 쓸쓸히 (4) 도저히
(5) 과감히

- 28 (1) 깊은 → 깊던 (2) 좋은가 → 좋던가
(3) 기차던지 비행기던지 → 기차든지 비행기든지
(4) 시작했든 → 시작했던
(5) 땅을 통해서 가던지 물을 통해서 가던지 → 땅을 통해서
가던지 물을 통해서 가든지



개념 적용 연습

본문_p. 237

- 01 (1) 발음대로 (2) 어법에 맞도록 (3) 밝히지 않고
(4) 없겠군 (5) 파악되지 않겠군
02 (1) ○ (2) ○ (3) × (4) ○ (5) ×
03 (1) ㉠ (2) ㉠ (3) ㉢ (4) ㉢ (5) ㉢
04 (1) ○ (2) × (3) ○ (4) × (5) ○
05 (1) ㉠: 아니요, ㉠ (2) ㉢: 가지요, ㉢
(3) ㉢: 설탕이요, ㉢
06 (1) ㉢: ㉢ (2) ㉢: 일찍이

- 07 (1) 다듬이, 길이 (2) 마개 (3) 삼발이, 날날이
(4) 바가지 (5) 덮개

- 08 (1) ○ (2) ○ (3) × (4) × (5) ×

- 09 (1) 2단계 (2) 1단계 (3) 1, 2, 3-1단계
(4) 1, 2, 3-3단계 (5) 1, 2, 3-1단계

- 10 (1) ㄷ, 무심치 (2) ㉠ (3) ㉢ (4) ㉠ (5) ㉢, 깨끗지

- 11 (1) ○ (2) ○ (3) × (4) × (5) ○ (6) ×

- 12 (1) 할 만큼 (2) 나대로 (3) 그것뿐 (4) 못해
(5) 못하구나

- 13 (1) ㉢에 해당하는 것 나날이, 겹겹이
(2) ㉢에 해당하는 것 오뚝이, 일찍이
(3) ㉢에 해당하는 것 즐거이

- 14 (1) × (2) ○ (3) × (4) × (5) ○

01

- (1) ㄱ의 '거리'는 소리대로 적은 표기에 해당한다.
(2) ㄱ의 '좁히다'는 소리인 [조피다]로 쓰지 않고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게 쓴 것이다.
(3) ㄴ의 '너머'는 소리대로 적은 표기이다. 그런데 '너머'는 어원상으로는 '넘다'에서 나온 명사이지만 현재는 어원에서 멀어져 소리대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4) '넘어갔다'를 '너머갔다'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5) '읽지'를 소리대로 읽으면 [익찌]로 '읽기'는 [일끼]가 되어 그 뜻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02

- (1) '어름'은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소리대로 적으면 표기할 때 편하다는 선생님의 말을 통해 올바른 설명임을 알 수 있다.
(2) '얼음'은 [어름]으로 소리가 나지만, 소리대로 표기하지 않고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어 있어요.'라는 선생님의 말을 통해, 어법에 맞는 표기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험임을 알 수 있다.
(3) '어름'이나 '얼음' 모두 [어름]으로 발음되므로, 발음만으로는 둘 사이의 의미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4) '반듯이'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에 부사화 접미사 '-이'가 붙은 것으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고 있다. 그리고 '어근의 형태를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

히어 적는다는 말입니다.’라는 선생님의 말을 볼 때 올바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 (5) 나-2의 ‘반드시’는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체로 분석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03

- (1) ‘으뜸’은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므로 ㉠에 따라 ‘으뜸’으로 표기해야 한다.
- (2) ‘거꾸로’는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므로 ㉢에 따라 ‘거꾸로’로 표기해야 한다.
- (3) ‘살짝’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에 따라 ‘살짝’으로 표기해야 한다.
- (4) ‘씩씩’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며,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에 따라 ‘씩씩’으로 표기해야 한다.
- (5) ‘낙찌’는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에 따라 된소리로 적지 않고 ‘낙지’로 표기해야 한다.

04

- (1) ㉠에서는,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연세(年歲)’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리고 ㉡에서는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역사(歷史)’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 (2) ㉠의 ‘다만’에서는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울’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백분율’은 올바른 표기이다.
- (3) ㉠~㉢의 조항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자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두음 법칙이 한자음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을 보면 단어 첫머리에 올 때와 단어 첫머리 이외에 올 때의 한자음의 표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으므로, 두음 법칙에서는 위치에 따라 동일한 한자어의 표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5) ‘몇 리(里)냐?’, ‘그럴 리(理)가 없다.’에서 ‘리’는 ㉠의 규정에 따르면 ‘이’로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로 표기하지 않고 한자의 본음대로 ‘리’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리’가 의존 명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05

- (1)~(3) ㉠에서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은 이 조항에 따라 ‘아니오’로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에서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은 이 조항에 따라 ‘설탕이요’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에서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은 이 조항에 따라 ‘가지요’로 수정해야 한다.

06

- (1)~(2) ‘일찍’은 ‘-하다’가 붙어서 ‘일찍하다’가 되지 않으므로 ㉠을 근거로 할 수 없고, 부사 어근 ‘일찍’과 접사 ‘-이’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근거로 할 수 없다. 해당 예는 ‘일찍’에 접사 ‘-이’가 붙어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에 근거하여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일찍이’가 옳은 표기이다.

07

- (1) ‘다듬이’는 동사 ‘다듬다’의 어간 ‘다듬-’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이고, ‘길이’는 형용사 ‘길다’의 어간 ‘길-’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말이므로, 두 단어 모두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마개’는 동사 ‘막다’의 어간 ‘막-’에 접미사 ‘-애’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름’은 동사 ‘놀다’의 어간인 ‘놀-’에 접미사 ‘-음/-ㅁ’이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어간인 ‘놀다’의 뜻과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아닌 ‘다만’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 (3) ‘삼발이’는 명사 ‘삼발’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이고, ‘날날이’는 명사 ‘날날’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말이므로 두 단어 모두 ㉡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바가지’는 명사 ‘박’ 뒤에 접미사 ‘-아지’가 붙은 것이므로 ㉢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귀머거리’는 동사 ‘귀먹다’의 어간 ‘귀먹-’에 접미사 ‘-어리’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이므로 ㉡을 적용한 것이다.
- (5) ‘덮개’는 동사 ‘덮다’의 어간 ‘덮-’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개’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무’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21항의 ‘다만’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8

- (1) ‘칼날’은 [칼랴]이라고 발음하지만, 제27항에 의거하여 ‘칼날’로 표기한다.

- (2) '소나무'는 '솔 +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로, 제28항에 의거하여 '솔나무'라고 표기하지 않고 '소나무'라 표기한다.
- (3) '마소'는 '말 + 소'가 결합한 합성어로, 제28항에 의거하여 '말소'라고 표기하지 않고 '마소'라 표기한다.
- (4) '아드님'은 '아들 + -님'이 결합한 파생어로, 제28항에 의거하여 '아들님'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아드님'이라 표기한다.
- (5) '여닫이'의 '여-'는 '열다'의 어간 '열-'이 '닫다'와 합성되면서 '르'이 탈락한 경우로, '여닫이'의 표기는 제28항에 의거한 것이다.

09

- (1) '총무 + 과'는 앞말인 '총무'가 'ㄱ'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이므로 1단계를 충족하지만, '총무'와 '과'는 모두 한자어이므로 2단계를 충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2) '개- + 살구'의 앞말 '개-'는 'ㄱ' 모음이 끝나지만, '질이 떨어지는' 또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개- + 살구'는 파생어이다. 따라서 1단계를 충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3) '장마 + 비'는 앞말 '장마'가 'ㅂ'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이며, '장마'와 '비'가 모두 우리말 어근이므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충족한다. 3단계에서는 '[장마뻘]'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3-1단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4) '허드레 + 일'은 앞말 '허드레'가 'ㄱ'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이며, '허드레'와 '일'이 모두 우리말 어근이므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충족한다. 3단계에서는 '[허드렌닐]'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모음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3-3단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5) '만두 + 국'은 앞말인 '만두'가 'ㄱ'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이며, 한자어 '만두'와 우리말 '국'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한다. 3단계에서는 '[만둔꾹]'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3-1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0

- (1) '무심하지'는 ㉠의 규정에 따라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되는 경우이므로, '무심지'가 아니라 '무심치'로 적어야 한다.
- (2) '다정하다'는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는 ㉠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정타'로 적어야 한다.
- (3) '이렇다'는 원래 '이러하다'인데 '하'의 'ㅎ'이 어간의 끝소리

로 굳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4) '분발하도록'을 '분발토록'으로 적는 것은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되는 경우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5) '깨끗하지'는 '하' 앞에 안울림소리 받침이 오는 것으로 보아 ㉠의 규정을 적용하여 '깨끗지'로 적어야 한다.

11

- (1) 앞에 제시된 '키가'로 볼 때, '큰형'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큰 형'으로 띄어 써야 한다.
- (2) '안개꽃 밖에'의 '밖에'는 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써야 한다. 따라서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붙여 써야 한다.
- (3)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에 해당하므로 제43항에 따라 '한 자루'로 띄어 써야 한다.
- (4) ㉡에서 '이다'는 서술격 조사에 해당하므로, 제41항에 따라 '뿐이다', '친구이다'로 붙여 써야 한다.
- (5) '청군대 백군'에서 '대'는 두 말을 이어 주는 말이므로 제45항을 적용해 '청군 대 백군'으로 띄어 써야 한다.
- (6) '7 연구실'은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7 연구실'로 고쳐 쓸 수 있는 이유는 제46항이 아니라 제43항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2

- (1) '할'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만큼'은 의존 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할 만큼'으로 띄어 써야 한다.
- (2) '나'는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하므로 '대로'는 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나대로'로 붙여 써야 한다.
- (3) '그것'은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하므로 '뿐'은 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뿐'으로 붙여 써야 한다.
- (4) 이 문장에서 '못해'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5) 이 문장에서 '못하구나'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쓰인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3

'나날'은 준첩어이고 '겹겹'은 첩어이기 때문에 '나날이'와 '겹겹

이'는 ㉔에 해당하고, '오통'과 '일찍'은 부사이므로 '오통이'와 '일찍이'는 ㉕에 해당한다. 또한 '즐겁-'은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㉕에 해당한다.

14

- (1), (4), (5) '제56항-2'를 보면,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1)은 '가든가'가, (4)는 '어찌하든지 간에'가, (5)는 '무엇이든지'가 올바른 표기이다.
- (2), (3) '제56항-1'을 보면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2)는 '잘하던데'가, (3)은 '놀랐던지'가 올바른 표기이다.

VI 국어사

01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본문_ p. 250

01-1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 1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2) ㅋ, ㆁ, ㆁ, ㅂ, ㅅ, ㅅ, ㆁ, ㅎ
(3) ㆁ, ㄹ, ㄷ (4) ㄱ, ㅋ, ㆁ
(5) ㄴ, ㄷ, ㆁ, ㄹ (6) ㄷ, ㅂ, ㅅ
(7) ㅅ, ㅅ, ㆁ, ㄷ (8) ㆁ, ㆁ, ㅎ
(9) ㄱ (10) ㆁ
(11) ㄷ, ㆁ (12) ㄷ
- 2 (1) ㅂ, ㅅ, ㅅ, ㅅ (2) ㅅ, ㅅ, ㅅ, ㅅ
(3) ㅅ, ㅅ, ㅅ, ㅅ (4) ㅂ
(5) ㅂ (6) ㅅ
- 3 (1) ㅂ, ㅂ + ㅂ (2) ㅅ, ㅅ + ㅂ
(3) ㅅ, ㅂ + ㅂ (4) ㅂ, ㅂ + ㅂ
(5) ㅅ, ㅂ + ㅂ + ㅂ (6) ㅂ, ㅂ + ㅂ + ㅂ
- 4 (1) 각자 (2) 합용
(3) 합용 (4) 합용
(5) 각자 (6) 각자

01-2 글자의 운용 원리

- 5 (1) ㉔ (2) ㉔
(3) ㉔ (4) ㉔
(5) ㉔ (6) ㉔
- 6 (1) 초성 + 중성 (2) 초성 + 중성 + 종성
(3) 초성 + 중성 + 종성 (4) 초성 + 중성 + 종성
(5) 초성 + 중성 (6) 초성 + 중성 + 종성



개념 적용 연습

본문_ p. 253

01 (1) × (2) ○ (3) × (4) × (5) ○ (6) ○

02 (1) ○ (2) ○ (3) ○ (4) × (5) ×

01

- (1) <보기>를 통해 기본자 ‘ㄱ, ㄴ, ㄹ, ㅅ, ㅇ’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ㄹ’은 가획한 글자가 아닌 기본자에 해당한다.
- (2) <보기>를 통해 각각의 기본자와 가획자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며, 가획자인 ‘ㅇ, ㄹ, ㅅ’은 각각 ‘ㄱ, ㄴ, ㅅ’과 소리 나는 위치는 같음을 알 수 있다.
- (3) <보기>를 통해 이체자인 ‘ㅇ, ㄹ, ㅅ’은 가획의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4) <보기>를 통해 기본자 ‘ㄱ, ㄴ, ㄹ, ㅅ, ㅇ’에 획을 더하여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는 가획자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획자 ‘ㅂ’은 ‘ㄹ’보다 소리가 더 세다고 할 수 있다.
- (5) ‘ㅇ’은 ‘ㅇ’을 가획하여 만든 글자로 오늘날에는 사라진 글자에 해당한다.
- (6) <보기>의 ‘훈민정음의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자 ‘ㄱ, ㄴ, ㄹ, ㅅ, ㅇ’을 만들고’를 통해 자음의 기본자는 모두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방식을 사용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02

- (1) ㉠을 통해, 훈민정음의 초성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하여 기본자 ‘ㄴ’을 만들고, 기본자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ㄷ’, ‘ㅌ’을 만든 후 예외적인 이체자 ‘ㄹ’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을 통해 훈민정음의 중성이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들고, 기본자를 서로 합하는 합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 (2) 중성은 합용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초출자 ‘ㄴ’은 기본자(•)와 기본자(-)를 합성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 (3) ㉢을 통해, ‘ㅇ’을 순음 글자인 ‘ㅂ, ㄹ, ㅍ, ㅃ’의 아래에 이어 적어 새로운 글자인 순경음 ‘ㅃ, ㅆ, ㅍ, ㅈ’을 만드는 것이 연서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 (4) ㉣을 통해, 병서법은 두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이어 쓰는 것으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ㄱ, ㄴ, ㅂ, ㅅ, ㅈ, ㅊ, ㅌ, ㅍ, ㅃ, ㅅ, ㅆ, ㅍ, ㅈ)’와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합용 병서(ㅅ, ㅈ, ㅊ, ㅌ, ㅍ, ㅃ, ㅅ, ㅆ, ㅍ, 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병서법에는 같은 자음 뿐만 아니라 다른 자음도 붙여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5) 부서법에 따르면 초성은 단독으로 발음되지 않고 반드시 중성을 붙여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중성 중 어떤 것은 초성의 아래에 붙여 쓰고, 또 어떤 것은 초성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붙여 써야 한다.

02 국어의 변천

본문_ p. 255

02-1 문자, 표기, 음운

- 1 (1) 순경음 비읍, 더벅>더워
(2) 여린히을, 便便安한
(3) 옛이음, 기동
(4) 반치음, 처엄>처음
(5) 아래아, ㄱ[楸]래>가래

- 2 (1) ○ (2) ×
(3) ○ (4) ×
(5) ○ (6) ○

- 3 (1) 근대 (2) 중세
(3) 근대 (4) 근대
(5) 근대 (6) 근대
(7) 중세 (8) 중세
(9) 중세 (10) 근대
(11) 근대 (12) 중세
(13) 중세

02-2 문법 ① - 조사, 선어말 어미

- 4 (1) 주격 조사, 이 (2) 관형격 조사, 인
(3) 관형격 조사, ㅅ (4) 호격 조사, 하
(5) 목적격 조사, 를

- 5 (1) -느- (2) -더-
(3) -앗/엇- (4) -리-

02-3 문법 ② - 높임 표현, 의문 표현, 기타 어미

- 6 (1) -술-, 객체 높임 (2) -사-, 주체 높임
(3) -습-, 객체 높임

- 7 (1) -고 (2) -ㄴ다



- 01 (1) 비교 (2) 관형격 (3) 다른 (4) 이어 적기
(5) 있군
- 02 (1) × (2) ○ (3) ○ (4) ○ (5) ×
- 03 (1) 이어 적기 (2) 적용되지 않았군
(3) 일어나지 않았군 (4) 지켜졌군
- 04 (1) 벋아미 (2) 불휘 (3) 대장뽀
- 05 (1) 의 (2) ㅏ
- 06 (1) 과거 시제 (2) 현재 시제 (3) 과거 시제
(4) 과거 시제 (5) 미래 시제
- 07 (1) × (2) ○ (3) ○ (4) × (5) ○
- 08 (1) ○ (2) ○ (3) × (4) × (5) ○
- 09 (1) ㉠, ㉡ (2) ㉢, ㉣, ㉤
- 10 (1) × (2) ○ (3) ○ (4) × (5) ○

01

- (1) ㉠은 '중국과 달라'로 해석되므로 '에'는 비교의 의미로 쓰인 부사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 (2) ㉡의 '제'는 '저 + ㅣ'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 '자기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ㅣ'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 (3) ㉢의 'ㅁ.쁘.들'에서는 현대어와 달리 어두에 서로 다른 자음인 'ㅁ'과 'ㅌ'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의 'ㅁ.노.미'는 '놈 + 이'가 된 말로, 앞말의 자음 'ㅁ'을 뒷말에 이어 쓰는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의 '便便安한'에서 'ㅎ'은 현대 국어에는 없는 자음이다.

02

- (1) '보미'는 받침이 있는 체언(뽀)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이)가 붙을 때 받침에 쓰인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 쓰고 있다. 따라서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이어 적기에 해당한다.
- (2) '플.와'에는 현대 국어 '플과'에는 없는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쓰이고 있다.
- (3) '쁘.리게'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인 'ㅁ'과 'ㅌ'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 (4) 'ㅁ.ㅏ.ㅏ.ㅏ'를 현대 국어인 '마음'과 대응하여 보면, 현대 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자음 'ㅏ'과 모음 'ㅏ'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ㅏ.ㅏ.ㅏ'에서는 양성 모음끼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지만, 현대 국어의 '달'에서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 (1) '마릭'은 받침 있는 체언(말)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이)가 연결된 것으로, ㉠ '말'이 아닌 '마릭'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이어 적기'에 해당된다.
- (2) ㉡ '닐오디'는 단어의 첫 머리에서 'ㄴ' 음이 'ㅣ' 모음 앞에서 'ㅇ'으로 변하지 않고, '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3) ㉢ '어딘'에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면 '어진'이라고 해야 하지만 '어딘'으로 표기된 것을 볼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 ㉣의 '노폰'은 'ㄴ' + 'ㅇ'으로 양성 모음의 어미인 'ㄴ'이 사용되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것이다.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노폰'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04

㉠ 'ㅁ.ㅏ'는 끝소리가 자음이어서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므로, 'ㅁ.ㅏ'와 '이'가 결합하여 'ㅁ.ㅏ미'가 된다. ㉡ '불휘'는 끝소리가 반모음 'ㅣ'이어서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대로 '불휘'가 된다. ㉢ '대장부'는 'ㅣ'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으로 끝나고 있으므로, 주격 조사 '이'가 쓰여 '대장뽀'가 된다.

05

'거뽀'는 동물이고 'ㄴ'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의'가 붙는다. '하늘'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ㅏ'이 붙는다.

06

- (1) 'ㄴ'은 1인칭 즉, 주어가 화자 자신으로, 내 룡담ㅎ다라(ㄴ + 오>다)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 경우이다. 서술어에 'ㄴ-다'의 형태를 사용하면 과거 시제라는 내용으로 보아, '룡담ㅎ다라'는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 (2) <보기>에서 선어말 어미 'ㄴ-ㄴ'을 사용하면 현재 시제라는 내용으로 보아, '뽀-ㄴ다'는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다.
- (3) 동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은 경우 과거 시제라는 내용으로 보아, '주그니라'는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 (4) <보기>에서 선어말 어미 'ㄴ-ㄴ'을 사용하면 과거 시제라는 내용으로 보아, 'ㅎ터이다'는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 (5) <보기>에서 선어말 어미 'ㄴ-(으)라-ㄴ'을 사용하면 미래 시제라

는 내용으로 보아, ‘어드리라’는 미래 시제임을 알 수 있다.

07

- (1) ‘도우시니’를 보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 아닌 주체를 높이는 표현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 용언 ‘돕다’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슬-’을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표현할 수 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돕다’에 해당하는 특수 어휘가 없어 객체 높임을 표현할 수 없다. 굳이 객체 높임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도와 드리니’와 같이 다른 특수 어휘와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다.
- (2) ㉠이 사용된 문장은 객체 높임이 실현된 문장일 것이므로, 현대 국어에서라면 ‘뵈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3) ㉠은 선어말 어미 ‘-슬-’의 받침 ‘ㅁ’을 뒷말인 ‘-’에 이어 적어 ‘돕스ㅁ니’와 같이 표기했고, ㉡은 선어말 어미 ‘-슬-’의 받침 ‘ㅁ’을 뒷말인 ‘-’에 이어 적어 ‘보스ㅁ면’과 같이 표기했다. 따라서 ㉠, ㉡이 선어말 어미의 받침 ‘ㅁ’을 뒷말에 이어 적어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 (4) ㉠~㉣은 모두 객체 높임이 사용된 용언에 해당한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와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이를 높이는 것이므로, ㉠~㉣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 자리가 아닌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와야 한다.
- (5) ㉠~㉣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는 각각 ‘-슬-’, ‘-줍-’, ‘-슬-’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8

- (1) ‘-’에서 ‘이’ 대신 ‘엇던’이 쓰이면 설명 의문문이 되고, ‘-ㄴ다’는 2인칭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종고’를 사용해야 한다.
- (2) ‘-’에서 ‘엇더’ 대신 ‘평안’이 쓰이면 판정 의문문이 되므로 ‘흔가’로 바꾸어야 한다.
- (3) ‘-’과 ‘-’은 각각 ‘엇더’, ‘엇데’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설명 의문문이다.
- (4) 2인칭인 ‘너’를 3인칭인 ‘그’로 바꾸면, ㄷ은 판정 의문문이므로, ‘모르던가’로 바꾸어야 한다.
- (5) ‘-’과 ‘-’을 통해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이 특수한 의문형 종결 어미인 ‘-ㄴ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09

- (1) <보기>에서는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음을 드러내면서 ㉠인 제 1단계 변화가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로 변화한 것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면 ‘마닐>마닐, 사슴>사슴’이라 할 수 있다.
- (2) ㉡인 제 2단계 변화에서는 ㉡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면 ‘ㅏ장>가장, ㄷ리>다리, ㅎ나>하나’라 할 수 있다.

10

- (1) ‘괴운이’는 ‘괴운’과 ‘이’를 끊어 적은 것이다. 이어 적으면 ‘괴우니’가 되어야 한다.
- (2) 중세 국어에서는 자음 뒤에서 양성 모음일 때 ‘을’이 목적격 조사로 사용되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같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을’을 사용하였다.
- (3) ‘-’는 현대 국어에서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여전히 사용되었다.
- (4) 현대 국어의 ‘것은’과 비교해 볼 때 근대 국어의 ‘거슨’은 앞 글자의 받침 ‘ㅅ’을 이어 적은 것에 해당한다.
- (5) 합용 병서인 ‘ㅅ’은 이 자료에서만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단원별 실전 문제

I. 음운

01 ⑤	02 ③	03 ⑤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⑤	09 ⑤	10 ④
11 ⑤	12 ②	13 ④	14 ④	15 ⑤
16 ④	17 ①	18 ②	19 ⑤	20 ①
21 ④				

01

괄호 안에는 앞의 ‘달’, 뒤의 ‘굴’ 모두와 최소 대립쌍인 단어가 들어 가야 한다. 괄호 안에는 앞의 ‘달’과 모음이 다른 ‘ㄴ’이 제시되어야 하고, 뒤의 ‘굴’과 자음이 다른 것이 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말’은 ‘달’과 최소 대립쌍이라 할 수 있지만, ‘굴’과는 최소 대립쌍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굴’과 ‘꿀’은 자음 ‘ㄱ’과 ‘ㄴ’의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② ‘달’과 ‘돌’은 모음 ‘ㅏ’와 ‘ㅓ’로 의미가 구별되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③ ‘달’의 가운뎃소리인 ‘ㄹ’ 대신 ‘ㄴ’을 사용하면 새로운 단어인 ‘돌’을 만들 수 있다.

④ ‘달, 돌, 딸’을 볼 때, 자음 ‘ㄷ’과 ‘ㅌ’의 차이, 모음 ‘ㅓ’와 ‘ㅗ’ 차이로 의미가 구별된다. 이를 볼 때 자음과 모음은 의미가 다른 여러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보기〉의 ‘옳, 값, 늪’을 볼 때, 중성에는 겹받침이 쓰일 수 있지만 발음할 때는 두 음운 중 하나만 발음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ㄴ의 내용을 볼 때, 초성에는 한 개의 자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⑤ ㄱ~ㄴ을 볼 때, 모든 음절에는 모음인 중성이 있어야 음절이 됨을 알 수 있다.

④ ㄱ~ㄷ을 볼 때, 음절 중 초성이나 중성이 없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보기〉에서 단모음들 간에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을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차이점이 많아질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멀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ㅏ’와 ‘ㅓ’는 혀의 앞뒤 위치에서만 차이를 보이므로 가까운 관계라 할 수 있지만 ‘ㅏ’와 ‘ㅣ’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서로 먼 관계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를 통해 고모음인 ‘ㅓ’를 발음할 때보다 저모음인 ‘ㅏ’를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② 전설 모음인 ‘ㅓ’에서 후설 모음인 ‘ㅓ’로 발음을 바꿀 때는 혀의 위치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옮겨 간다고 할 수 있다.

③ 중모음인 ‘ㅓ’와 ‘ㅓ’를 발음할 때는 혀의 높이가 고모음보다는 낮고 저모음보다는 높음을 알 수 있다.

④ 〈보기〉를 통해 ‘ㅓ’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가 같으면서 입술 모양만 둥근 모음은 ‘ㅣ’임을 알 수 있다.

04

‘발으로’에서 ‘으로’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에 해당하므로, 형식 형태소 앞 끝소리인 ‘ㅌ’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바트로]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날알’의 ‘알’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나:달]로 발음해야 한다.

② ‘발음’의 ‘음’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바틀]로 발음해야 한다.

③ ‘겉옷’의 ‘옷’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거돋]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발은소리’에서 ‘발은’은 용언 ‘발다’의 어근인 ‘발-’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 ‘-은’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바튼]으로 발음해야 한다.

05

‘만날 사람’은 [만날싸람]으로 발음되므로 관형사형 ‘-(으)ㄴ’ 뒤의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의 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입고’는 받침 ‘ㅂ’ 뒤의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② ‘껴안다’는 어간 받침 ‘ㄴ’ 뒤의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③ ㉡의 예인 ‘할 수’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해당하므로, ㉡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⑤ ㉡ ~ ㉢을 볼 때,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임을 알 수 있다.

06

‘뒹개[뎡개]’에서는 ‘뒹-’의 ‘ㅊ’을 ‘ㅃ’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그리고 ‘-개’의 ‘ㄱ’은 앞 음절 받침 ‘ㅊ’ 뒤에 연결되어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국밥[국뽕]’은 된소리되기 현상만 나타난다.

② ‘달는[단는]’은 비음이 아닌 자음(ㄷ)이 비음(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동화되는 비음화 현상만 나타난다.

④ ‘갈등[갈똥]’은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ㄷ’이 와서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⑤ ‘눈요기[눈노기]’는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음절이 ‘ㄴ’인 경우 ‘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07

㉠은 비음화, ㉡은 유음화에 관한 설명이다. ‘받는다’가 [받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므로 ㉠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라산’이 [할:라산]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 ‘ㄴ’이 유음 ‘ㄹ’ 앞에서 ‘ㄹ’로 바뀌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밤물’이 [밤물]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하지만, ‘여덟’이 [여틸]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것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날’이 [설:랄]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하지만, ‘밥상’이 [밥쌍]으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잡는’이 [잡느]으로 발음되거나 ‘막내’가 [망내]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④ ‘난로’가 [날:로]로 발음되거나 ‘권리’가 [퀀리]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한다.

08

‘입문’은 뒤의 음인 ‘ㅁ’이 앞의 음인 ‘ㅂ’에 영향을 주어 [임문]으로 발음되므로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③ ‘칼날’과 ‘담력’은 앞의 음이 뒤의 음에 영향을 주어 [칼랄], [담:녁]으로 발음되는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②, ④ ‘곤란’과 ‘국민’은 뒤의 음이 앞의 음에 영향을 주어 [골:란], [궁민]으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09

‘끝인사’는 ‘ㅌ’ 뒤에 실질 형태소 ‘인사’가, ‘발이랑’은 ‘ㅌ’ 뒤에 실질 형태소 ‘이랑’이 온 것으로, 이를 통해 ‘ㄷ’, ‘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굳이, 같이’를 통해 ‘ㄷ’이나 ‘ㅌ’이 끝소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라 할 수 있다.

② ㉡에서 ‘발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발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구개음화는 ‘ㅌ’이 특정한 모음인 ‘ㅣ’와 만날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③ ㉢의 ‘묻히다, 견히다’ 모두 ‘ㄷ’ 뒤에서 ‘ㅎ’이 오면 [무티다], [거티다]로 축약된 다음, [무치다], [거치다]로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④ ㉣의 ‘잔디’와 ‘견디다’의 ‘디’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음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에서는 모음 ‘ㅣ’가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라 할 수 있다.

10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용언 어간의 단모음(ㅣ)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ㅚ’로 교체됨을 알 수 있다.

④는 어간 ‘치르-’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치러서]로 발음될 때는 단모음 ‘ㅡ’가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어간 ‘기-’와 어미 ‘-어’가 결합해 [겨]로 발음될 때에는 반모음 ‘ㅚ’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어간 ‘꼬-’와 어미 ‘-아’가 결합해 [파]로 발음될 때는 반모음 ‘ㅚ’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③ ‘살피- + -어’는 ‘ㅣ + ㅣ → ㅚ(ㅚ + ㅣ)’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 [살피]로 발음된다.

⑤ 어간 ‘배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배워]로 발음될 때는 단모음 ‘ㅜ’가 반모음 ‘ㅜ’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1

㉡에서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의 규정에 따라 ⑤의 ‘물게’는 [물게]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서 ‘ㄹ’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의 규정에 따라 ⑤의 ‘흙이’는 [홀기]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발게[발게]’는 ‘ㄹ’이 ‘ㅂ’의 용언의 어간 말음에 해당하고 ‘ㄱ’ 앞에서 [리]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② ‘밝다[박따]’는 ‘ㄹ’이 자음인 ‘ㄷ’ 앞에서 [ㅈ]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③ ‘닭 앞에서’는 ‘ㄹ’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앞에 오고 있으므로,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다가페서]로 발음해야 한다.

④ ‘발기[발끼]’는 ‘ㄹ’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인 ‘-기’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뒤엣것인 ‘기’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할 수 없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라 ㉡에 해당하는 예이다.

12

‘닭만’은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기’의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당만]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맑지’는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ㅈ’이 ‘ㅈ’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막찌]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뽕’은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가 적용되어 [뽕]으로 발음되며, ‘을고’는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읍꼬]로 발음된다.

③ ‘뽕혀’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발켜]로 발음되고, ‘뽕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뽕찌]로 발음된다.

④ ‘뽕어’는 ‘ㄷ’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절머]로 발음되며, ‘뽕지’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에 의해 [잘찌]로 발음된다.

⑤ ‘뽕는’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에 의해 [밤:는]으로 발음되며, ‘깍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에 의해 [깍따]로 발음된다.

13

〈보기〉에서는 ‘ㅎ’ 탈락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쌍이다’를 [싸이다]라고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한 것으로 ‘ㅎ’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않던’을 [안턴]으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ㄷ’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② ‘법학’을 [버팍]으로 발음하는 것은 ‘ㅂ’과 ‘ㅎ’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③ ‘놓는다’를 [논는다]로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⑤ ‘꽃히다’를 [꼬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ㅈ’과 ‘ㅎ’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14

‘그려’는 ‘그리다’의 ‘그리-’가 ‘-어’와 만나 이루어진, 즉 어간의 말음 ‘ㄷ’과 어미 ‘ㄷ’이 만나 ‘ㄷ’이 된 것이다. 따라서 ‘그려’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ㄷ’ 탈락’ 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① ‘고프- + -았-’이 ‘고팠-’이 될 때 어간 ‘고프-’의 말음 ‘ㄷ’이 탈락하였다.

② ‘슬프- + -었-’이 ‘슬팠-’이 될 때 어간 ‘슬프-’의 말음 ‘ㄷ’이 탈락하였다.

③ ‘아프- + -아’가 ‘아파-’가 될 때 어간 ‘아프-’의 말음 ‘ㄷ’이 탈락하였다.

⑤ ‘바쁘- + -아’가 ‘바빠-’가 될 때 어간 ‘바쁘-’의 말음 ‘ㄷ’이 탈락하였다.

15

㉠을 보면 ‘ㅎ’이 탈락하여 [너어], [노아]로 발음되더라도 표기는

‘넣어, 놓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를 통해 동일 음운이 탈락하면 발음에 따라 표기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를 통해서 음운이 탈락하면 표기에 반영됨을 알 수 있지만, ㉡를 통해서 ‘ㅎ’이 탈락하여 발음되더라도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6

〈보기〉를 통해 ‘ㄴ’ 첨가’는 두 음운이 만나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내용을 통해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인 ‘이, 야, 여, 요, 유’가 ‘ㄴ’ 음이 첨가되어 [니, 나, 네, 노, 뉴]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ㄴ’ 첨가’에서는 하나의 음운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막일’은 합성어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이므로, ‘ㄴ’ 음이 첨가되어 [망닐]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들일’은 합성어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이므로, ‘ㄴ’ 음이 첨가되어 [들닐]로 발음된다. 그리고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유음화에 의해 [ㄹ]로 발음해야 하므로 [들릴]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한 일’은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ㄴ’ 음이 첨가되어 [한닐]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⑤ ‘술잎’은 합성어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이므로, ‘ㄴ’ 음이 첨가되어 [술닙]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유음화에 의해 [ㄹ]로 발음해야 하므로 [술립]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7

‘종교[조:코]’는 ‘ㅎ’이 인접한 ‘ㄷ’과 합쳐져 ‘ㅋ’으로 축약되므로 밑줄 친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넣는[넌:는]은 음절 끝소리의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인접한 비음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교체되므로, ‘ㅎ’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해당한다.

③ ‘닿아[다아]’는 음절 끝소리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 앞에서 탈락하므로 ‘ㅎ’이 없어서 발음되지 않는 탈락에 해당한다.

④ 쌍네[싼네]는 음절 끝소리의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인접한 비음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교체되므로, ‘ㅎ’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해당한다.

⑤ ‘닿아[다아]’는 음절 끝소리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 앞에서 탈락하므로 ‘ㅎ’이 없어서 발음되지 않는 탈락에 해당한다.

18

‘달치다’는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다티다]가 된 후, ‘ㅌ’이 ‘ㄷ’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다치다]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웃고름’은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ㄱ’이 ‘ㄴ’으로 바뀌어 [온꼬름]으로 발음되므로 교체만 일어난다.

③ ‘빨깁다’는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빨:가타]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숨이불’은 ‘ㄴ’이 첨가되어 [숨:니불]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와 축약은 둘 다 일어나지 않는다.

⑤ ‘광한루’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로 바뀌는 교체(유음화)만 일어나 [광:할루]로 발음된다.

19

‘섞는[성는]’은 음절 끝의 자음 ‘ㄱ’이 ‘ㄴ’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일어난 후, 비음화(교체)가 일어나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굽히지[구피지]’는 거센소리되기(축약)만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② ‘작년[장년]’은 비음화(교체)만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③ ‘알고[안코]’는 거센소리되기(축약)만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④ ‘창밖[창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만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20

‘넓히다’는 ‘ㄴ’과 ‘ㅎ’이 결합하여 ‘ㄹ’으로 축약되어, 음운이 줄어들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살살이’는 ‘ㅌ’이 ‘ㄷ’으로 교체되고, ‘ㅌ’이 ‘ㅍ’으로 교체되며, ‘ㅌ’이 ‘ㄴ’ 앞에서 ‘ㄷ’으로 교체되어,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교육열’은 ‘ㄴ’이 첨가되고,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늘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국화꽃’은 ‘ㄱ’과 ‘ㅎ’이 결합하여 ‘ㄱ’으로 축약되고, ‘ㄷ’이 ‘ㄷ’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줄어들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해맑다’는 ‘ㄹ’이 탈락하고, ‘ㄷ’이 ‘ㅌ’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줄어들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보기〉의 ㉠은 첨가, ㉡은 교체, ㉢은 탈락, ㉣은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물엿[물련]은 ‘ㄴ’이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교체되었으며, ‘ㅌ’은 ‘ㄷ’으로 교체되었다. 또한 ‘밭이랑[반나랑]’은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ㄴ’이 첨가되었고 다시 ‘ㄷ’이 ‘ㄴ’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물엿[물련]’과 ‘밭이랑[반

나랑]’은 ㉠과 ㉡이 함께 일어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맡이[마지]’는 교체만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입학[이팍]’은 축약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앉는다[안는다]’는 탈락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곳곳하다[꾼꾸타다]’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본문_ p. 274



단원별 실전 문제

II. 단어

01 ④	02 ⑤	03 ⑤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④	10 ④
11 ③	12 ④	13 ③	14 ③	15 ④
16 ⑤	17 ①	18 ③	19 ③	

01

㉠은 형태, ㉡은 기능, ㉢은 의미로 분류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예쁜’은 ㉡에 따라 분류하면 ‘용언’, ㉢에 따라 분류하면 형용사이다. 그리고 ‘키운다’는 ㉡에 따라 분류하면 ‘용언’, ㉢에 따라 분류하면 동사이다 따라서 두 단어를 ㉡이나 ㉢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예쁜 고양이 세 마리’에서 가변어는 ‘예쁜’, 불변어는 ‘고양이, 세, 마리’이다.

② ‘고양이 세 마리를’에서 체언은 ‘고양이, 마리’이고 관계언은 ‘를’이다.

③ ‘나는 매우 예쁜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운다’에서는 수사과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아홉 개의 품사를 포함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매우와 세’는 수식언에 해당하며, ‘매우’는 부사, ‘세’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02

‘군데’는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의 뜻으로 ‘두 군데, 세 군데’ 등처럼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에 해당한다.

②, ③ ‘살’과 ‘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④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라는 의미로, ‘그릇을 씻다, 그릇을 비우다’에서 보이듯이 자립 명사이다. 그렇지만 ‘두 그릇’에서 알 수 있듯이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뒤에서 음식을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기도 한다.

03

‘사과 세 개를 사서 친구 셋이서 나눠 먹었다.’에서 ‘세’는 의존 명사 ‘개’를 수식하고 있지만, ‘셋’은 의존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뒤에 조사가 붙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세’는 관형사, ‘셋’은 수사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을 통해 수사 ‘열, 하나, 첫째, 셋’에는 조사 ‘을, 만, 는, 이서’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을 통해 수사 ‘열, 하나, 첫째, 셋’은 형태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열’은 조사, ㉡의 ‘열’은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므로, 같은 단어라도 품사는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의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고, ㉡의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에 해당한다.

04

‘밝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쓸 수 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며 점차 날이 밝는다.’에서는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이때 ‘밝다’는 동사이다. 즉 ‘밝는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뜻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환해진다는 ‘작용(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던졌다’는 지훈이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동사이다.

③ ‘아는’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고 있으므로 동사이다.

④ ‘입어라’는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하고 있으므로 동사이다.

⑤ ‘건강하자’의 기본형 ‘건강하다’는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하게 되면 비문이 되므로 ‘건강하자’는 형용사이다.

05

‘바쁘시다’를 분석해 보면 ‘바쁘-+-시-+-다’로, ‘돌보이셨다’를 분석해 보면 ‘돌보이-+-시-+-었-+-다’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바쁘시다’는 선언말 어미가 한 개, ‘돌보이셨다’는 선언말 어미가 두 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맛있다’를 분석해 보면 ‘맛있-+-다’로, ‘가셨다’를 분석해 보면 ‘가-+-시-+-었-+-다’로 분석된다. 따라서 ‘맛있다’의 어간은 ‘맛있-’이고, ‘가셨다’의 어간은 ‘가-’임을 알 수 있다.

② ‘노력했다면’을 분석해 보면 ‘노력하-+-었-+-다면’으로, ‘얻었겠지’를 분석해 보면 ‘얻-+-었-+-겠-+-지’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노력했다면’의 어미는 두 개, ‘얻었겠지’의 어미는 세 개임을 알 수 있다.

③ ‘비가 내리기’의 ‘-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에 해당하고, ‘빛나는’의 ‘-는’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⑤ 모든 용언은 어말 어미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으므로 용례와 관계없이 적절한 진술이라 할 수 있다.

06

‘우리러’는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언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묻었다’는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는 용언이므로 규칙 활용한다.

② ‘일러’는 활용될 때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용언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이르러’는 활용될 때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용언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파래’는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용언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07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다른 품사를 수식하지는 않는다. ㉠에서 ‘저’와 ‘그’는 형용사인 ‘잘생긴’이나 ‘나쁜’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잘생긴 남자’, ‘나쁜 남자’라는 명사구를 꾸미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에 사용된 ‘첫째’를 보면, ㉠에서는 조사 ‘로’와 결합하고 있지만, ㉡에서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볼 때, 관형사는 체언과 달리 조사와 결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관형사인 ‘첫째’는 뒤에 오는 체언인 ‘아들’을 수식하고 있고, ㉣에서 관형사인 ‘새’는 체언인 ‘책상’을 수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부사 ‘새로’는 용언인 ‘오신’을 꾸며 주고 있고, ㉣의 ‘새’는 체언인 ‘책상’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기능상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의 ‘새로운’은 형용사 ‘새롭다’가 활용한 것이므로 형태가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새’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관형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임을 알 수 있다.

08

④ ㉢에서는 부사 ‘바로’가 대명사인 ‘너’를 꾸며 주고 있으며, ㉣에서는 부사 ‘오직’이 수사인 ‘하나’를 꾸며 주고 있다. ‘바로’와 ‘오직’은 체언을 꾸며 주지 관형사를 꾸며 주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설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이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에 쓰는 부사이다. ㉠에서 ‘설마’는 문장의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다.

② ㄷ에서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서'의 뜻을 지닌 부사 '너무'를 강조한 부사 '너무나'에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 ㄹ에서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의 뜻을 지닌 부사 '매우'가 부사 '빨리'를 꾸미고 있다.

⑤ ㄷ에서는 부사 '너무나'가 용언인 '예쁘다'를 수식하고 있고, ㄹ에서는 부사 '빨리'가 용언인 '달리다'를 수식하고 있다.

09

ㄹ에서 조사 '의'는 체언 '대한민국'에 붙어 뒤의 '체언'인 '국민'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문장에서 관형어 자격을 지니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문장에서 서술어 자격을 지니게 해 준다.

오답 풀이 ① ㄱ의 '은'과 '에'는 격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조사가 체언으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줌을 알 수 있다.

② ㄴ의 '도'는 부사 '몹시'와 결합하고 있고, '이'는 체언 '기분'과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함을 알 수 있다.

③ ㄷ의 보조사 '는'은 부사격 조사 '에서'의 뒤에, 그리고 보조사 '까지'는 뒤에 격조사 '가'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조사는 격조사 앞뒤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ㄹ의 '는'과 '은'은 보조사로, 체언에 '대조'의 의미를 더해 줌을 알 수 있다.

10

'만큼'은 관형어 '바랄'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판단 결과를 ○로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만큼'은 관형어 '노력한'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판단 결과를 ○로 해야 한다.

② '만큼'은 체언 '무명' 뒤에 붙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띄어 썼으므로 판단 결과를 ×로 해야 한다.

③ '만큼'은 체언 '대궐' 뒤에 붙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붙여 썼으므로 판단 결과는 ○로 해야 한다.

⑤ '만큼'은 관형어 '들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띄어 썼으므로 판단 결과는 ○로 해야 한다.

11

'어두운'은 형용사 '어둡다'의 활용형에 해당하므로, '어두운'과 '어둡다'는 모두 형용사여서 서로 다른 품사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밝는다'는 날이 밝아 오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하는데, '밝는다'에서 어간 '밝-'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한 것을 보아 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밝다'는 밝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② '나보다'에서 '보다'는 '나'라는 대명사 뒤에 붙어 있고 체언에 결합하는 품사는 조사이므로 이때의 '보다'는 조사이다. '보다 나'에서의 '보다'는 '나'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에 해당한다.

④ '아무도'에서 '아무'는 뒤에 조사가 붙어 사용되므로 대명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무 의사라도'에서 '아무'는 뒤에 오는 체언인 '의사'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⑤ '아니 흘러오리다'에서 '아니'는 뒤의 동사 '흘러오리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이다. '아니, 세상에~'의 '아니'는 문장 앞에 쓰여 의아스러움을 나타내는 감탄사에 해당한다.

12

〈보기〉를 통해 조사는 의존 형태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조사 '에와 '이'는 의존 형태소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을에는'은 '마을과 '에'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었다.

② '꽃이'는 자립 형태소 '꽃'과 의존 형태소 '이'로 구성되었다.

③ '피었다'는 '피-', '-었-', '-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존 형태소로만 구성되었다.

⑤ '꽃이 피었다'는 '꽃', '이', '피-', '-었-', '-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네 개의 의존 형태소가 있다.

13

③에서 '손발'은 '자기의 손이나 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에 해당하므로 합성어가 되어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실속 없거나 공허한 말'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쓰였다.

②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을 이르는 말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쓰였다.

④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이르는 말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쓰였다.

⑤ '앉아 있기에 아주 불안스러운 자리'를 이르는 말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쓰였다.

14

'돌다리'는 명사(돌)와 명사(다리), '하얀색'은 용언의 관형사형(하얀)과 명사(색), '잘생기다'는 부사(잘)와 용언(생기다)이 결합한 말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덮밥'은 용언의 어간(덮)과 명사(밥), '부슬비'는 부슬(부사)과 비(명사), '높푸르다'

는 용언의 어간(눈)과 용언의 어간(푸르)이 직접 결합한 말이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15

‘일찍이’는 부사 어근 ‘일찍’에 접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된 단어로, 접사 ‘-이’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길이’는 형용사 어근 ‘길-’에 접사 ‘-이’가 붙어 명사로 바뀌었다.
 ② ‘날날이’는 명사 어근 ‘날날’에 접사 ‘-이’가 붙어 부사로 바뀌었다.
 ③ ‘낮추다’는 형용사 어근 ‘낮-’에 접사 ‘-추’가 붙어 동사로 바뀌었다.
 ⑤ ‘걱정스럽다’는 명사 어근 ‘걱정’에 접사 ‘-스럽’이 붙어 형용사로 바뀌었다.

16

‘개살구’는 어근 ‘살구’에 ‘야생 상태의’, ‘질이 떨어지는’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개-’가 붙은 파생어이다. 하지만 ‘우짚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두 어근 ‘울-’과 ‘짚-’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① ‘병아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어린 닭’이라는 의미를 지닌,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② ‘치뜨다’는 어근 ‘뜨-’에 접사 ‘치-’가 결합하여 뜻을 더하고 있는 파생어이다.
 ③ ‘손수건’은 실질적인 뜻을 가진 두 어근 ‘손’과 ‘수건’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나무꾼’은 어근 ‘나무’에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검붉다’는 두 어근 ‘검-’과 ‘붉-’이 결합하였으므로 합성어이다.

17

‘얼굴 : 낮’은 의미가 비슷한 유의 관계에 해당하고, ‘사람 : 여자’는 ‘사람’이 의미상 ‘여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하 관계이다.

- 오답 풀이** ② ‘서점 : 책방’은 유의 관계이지만, ‘기쁨 : 슬픔’은 반의 관계이다.
 ③ ‘얕다 : 깊다’는 반의 관계이지만, ‘동물 : 고양이’는 상하 관계이다.
 ④ ‘이미 : 벌써’는 유의 관계이지만, ‘오르다 : 내리다’는 반의 관계이다.
 ⑤ ‘분명하다 : 흐릿하다’는 반의 관계이지만, ‘악기 : 거문고’는 상하 관계이다.

18

‘가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다.’의 ‘서다’는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반의어는 ‘깎이다’가 해당한다. 그리고 ‘서다’의 반의어가 ‘무너지다’이므로, ㉠에는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의 의미로 쓰인 ‘기강이 서야 사회가 안정된다.’가 제시되어야 한다.

19

‘익히다’를 보면 ‘익다 ①’의 사동사라 되어 있으므로, ‘익히다’에서는 ‘익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익다’와 ‘익히다’는 각각 2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모두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익다’와 달리 ‘익히다’에서는 목적어를 필요함을 나타내는 ‘【...을】’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익히다’만이 목적어를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④ ‘김치가 잘 숙성되었다.’의 ‘숙성되다’는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발효된 것이 잘 익다.’의 의미이므로, ‘열매나 씨가 여물다.’의 의미인 ‘익다 ①’의 유의어가 아니다.
 ⑤ ‘거름을 익히다.’의 ‘익히다’는 ‘썩히려고 하는 것을 잘 썩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익히다 ②’의 용례로 적절하지 않다.

본문_p. 280



단원별 실전 문제

Ⅲ. 문장

01 ⑤	02 ②	03 ①	04 ①	05 ③
06 ④	07 ⑤	08 ⑤	09 ⑤	10 ③
11 ②	12 ②	13 ①	14 ①	15 ②
16 ①	17 ②	18 ②	19 ③	20 ②
21 ④	22 ⑤	23 ⑤	24 ⑤	25 ①

01

‘아! 너는 마침내 아름다운 별이 되었구나!’를 분석해 보면, 주성분은 ‘너는(주어), 별이(보어), 되었구나(서술어)’이고, 부속 성분은 ‘마침내(부사어), 아름다운(관형어)’이다. 그리고 독립 성분은 ‘아(독립어)’이다. 따라서 한 개의 독립 성분과 두 개의 부속 성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가 필요한 서술어이다. ㉠에서 ‘올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서술어 ‘되었다’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의 '보신다'의 기본형은 동사인 '보다'이다. 따라서 '보신다'는 '아버지'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라 할 수 있다.
- ③ ㉠에는 '신문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지만, ㉡에는 보어가 사용되고 있지 목적어는 없다.
- ④ ㉠의 주어는 '아버지께서', ㉡의 주어는 '삼촌은'이다.
- ⑤ ㉠에서는 주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에서는 주성분으로 '주어, 보어, 서술어'가 사용되고 있다.

03

㉠의 서술어 '같다'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어(포기는)와 부사어(실패와)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오답 풀이** ② ㉡의 서술어 '본다'는 주어(포기는)와 목적어(영화를)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의 서술어 '아니다'는 주어(그는)와 보어(천재가)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의 서술어 '지저권다'는 주어(새가)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⑤ ㉤의 서술어 '주었다'는 주어(민정이가)와 목적어(먹이를), 부사어(개에게)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04

①의 '마침내'는 부사로 서술어인 '이루었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관형어의 형성 방법의 사례로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노란'은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관형어가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철수의'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관형어가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새'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시골'은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 '체언+체언'의 구성으로 관형어가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05

③의 서술어 '넣었다'는 주어, 목적어와 함께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므로, '가방에'라는 필수 부사어가 있어야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무척', '노랑게', '오후에', '모름지기'는 모두 부사어이지만, 문장에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필수 부사어라 할 수 없다.

06

㉢의 '우리가 도서관에 가기'라는 명사절에 조사 '에'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명사절인 '그녀가 상을 탔음'이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명사절인 '비가 내리기'가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명사절인 '봄이 오기'가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면서 뒤에 오는 명사 '전'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명사절인 '자식이 언제나 행복하기'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하지는 않고 있지만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07

관형사절 '부모가 여행을 간'과 이 관형사절이 안긴 '민수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문장에는 서로 중복된 단어가 없다. 따라서 생략된 문장 성분 없이 관형사절이 안은문장의 체언 '사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관형사절인 '계곡에 흐르는'의 주어 '물이'가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체언 '물'과 중복되어 생략되었다.
- ② 관형사절인 '숙제를 하는'의 주어 '동생이'가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동생'과 중복되어 생략되었다.
- ③ 관형사절 '흔적이 남은'의 부사어 '책에'가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체언 '책'과 동일하여 생략되었다.
- ④ 관형사절인 '할머니께서 드실'의 목적어 '사과를'이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체언 '사과'와 중복되어 생략되었다.

08

㉡의 안긴문장 '그가 내 옆에 있음'에는 주어 '그가'가 드러나 있고, ㉢의 안긴문장 '철수가 준'에는 주어 '철수가'가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① ㉠에서 '그 사람이 결국 범인이었음'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에서 '그가 내 옆에 있음'은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에서 '철수가 준'은 '책'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철수가 준' 속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문장 '그 사람이 결국 범인이었음' 속에는 '범인이었음'을 수식하는 부사어 '결국'이 있다.

09

㉠의 '키가'는 전체 문장에서 '크다'와 함께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 '선생님이'는 서술어 '되었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인 보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의 '정민이는 키가 크다'에서 주어 '정민이는'의 서

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은 '기가 크다'이다. ㄴ의 '이 집안은 자식이 매우 귀하다'에서 주어 '집안은'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은 '자식이 매우 귀하다'이다. ㄷ의 '우리 삼촌이 마침내 선생님이 되었다'에서 주어 '삼촌이'의 서술어는 '되었다'이다. 따라서 ㄱ~ㄷ은 모두 '주어 + 서술어'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ㄱ의 '기가 크다'는 서술절이므로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ㄴ의 '집안은'은 서술절 '자식이 매우 귀하다'의 주어에 해당한다.

④ ㄱ과 ㄴ의 '기가 크다'와 '자식이 매우 귀하다'는 각각 전체 주어 '정민이'와 '집안은'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따라서 서술절이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자료 ㉗~㉙를 탐구 자료에 넣어서 분류한다면, '탐구 자료'의 ㉘에는 서술절이, ㉙에는 명사절, 부사절이, ㉗에는 관형사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㉗은 '용기가 부족하다'는 서술절이 쓰인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㉘는 '이가 시리도록'이라는 부사절이 쓰인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㉙는 '대상을 받았음'이라는 명사절이 쓰인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㉚는 '숙제를 하느'이라는 관형사절이 쓰인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탐구 자료'의 ㉙에 들어갈 '자료'는 '㉘, ㉙'라 할 수 있다.

11

'열심히 노력하면'에서 연결 어미 '-(으)면'을 사용하여 앞의 절과 뒤의 절이 '조건'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연결 어미 '-(으)려고'를 사용하여 앞의 절과 뒤의 절이 '의도'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③ 연결 어미 '-는데'를 사용하여 앞의 절과 뒤의 절이 '배경(상황)'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연결 어미 '-아서'를 사용하여 앞의 절과 뒤의 절이 '인과'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연결 어미 '-느니라'를 사용하여 앞의 절과 뒤의 절이 '가정'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12

ㄱ, ㄷ은 '수학은 재미있고 어렵다.' '수학은 재미있지만 어렵다.'라고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고, ㄴ은 '수학은 재미있어서 어렵다.'라고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에 변화가 생기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

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ㄱ, ㄴ, ㄷ은 '수학은 어렵다.'와 '수학은 재미있다.'라는 두 홑문장이 이어진 문장이다.

③ 두 홑문장의 주어가 '수학은'으로 같으므로, 뒤 절의 주어를 생략한 것이다.

④ ㄱ은 '수학은 어렵다.'와 '수학은 재미있다.'라는 두 홑문장이 나열의 의미를 갖는 어미 '고'가 사용되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그리고 ㄷ은 '수학은 어렵다.'와 '수학은 재미있다.'라는 두 홑문장이 대조의 의미를 갖는 어미 '지만'이 사용되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⑤ ㄴ은 '수학은 어렵다.'와 '수학은 재미있다.'라는 두 홑문장이 원인의 의미를 갖는 어미 '어서'가 사용되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13

〈보기〉를 통해 간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은 옛날 책이 많으시다.'는 선생님의 소유물인 '옛날 책'을 높임으로써 높여야 할 대상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보기〉를 통해 주체 높임이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할머니께서 저녁 일찍 주무신다.'는 '께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직접 높인 것이다.

③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직접 높인 것이다.

④ '선생님은 아드님이 있으시다.'는 선생님의 가족인 '아들'을 높임으로써 높여야 할 대상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인 것이다.

⑤ '우리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시다.'는 할머니의 신체 일부인 '귀'를 높임으로써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인 것이다.

14

[자료]의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은 '진우'이며 서술어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주체 높임-]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문장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할머니'이며 그 인물을 높이는 표현인 '드리다'가 쓰였으므로, [객체 높임+]로 실현되었다. 또한 문장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요'가 쓰였으므로, [상대 높임+]로 실현되었다.

15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

보다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ㄴ은 부사어 ‘곧’과 선어말 어미 ‘-겠-’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선어말 어미 ‘ㄴ’을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③ ㄴ에서는 ‘곧’이, ㄷ에서는 ‘저녁에’라는 부사어를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④ ㄷ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ㄹ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⑤ ㄱ에서는 선어말 어미 ‘-ㄴ-’을, ㄴ에서는 선어말 어미 ‘-겠-’을, ㄹ에서는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현재, 미래, 과거 시제를 각각 표현하고 있다.

16

‘차가 막혀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글렀다.’의 ‘-었-’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의 특수한 용법으로 볼 수 있다.

17

‘목표치를 달성하겠습니다!’에서 사용된 선어말 어미 ‘-겠-’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선어말 어미 ‘-겠-’은 가능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③, ⑤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18

ㄱ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눈이 세상을 덮었다.’가 되므로, 피동문의 부사어 ‘눈에’는 능동문에서 주어 ‘눈이’가 된다.

오답 풀이 ① ㄱ의 ‘덮었다’는 ‘덮- + -이- + -었- + -다’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덮었다’는 ‘덮다’의 어근에 피동 접사 ‘-이’가 붙었음을 알 수 있다.

③ ㄴ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아군이’가 주어가 되면서 행위의 주체가 된다.

④ ㄴ의 ‘잡히어지다’는 피동 접사 ‘-이-’에, 다시 피동 접사 ‘-어지다’가 붙은 경우이므로 이중 피동이 된다.

⑤ ㄷ의 ‘풀리다’ 외에 ‘풀다’의 어간에 ‘-어지다’를 붙이면 ‘풀리어지다’라는 피동문이 된다.

19

㉠의 주동문의 주어 ‘철수가’는 사동문에서 ‘철수를’이라는 목적

어로 바뀌었지만, ㉠의 주동문의 주어 ‘동생이’는 사동문에서 ‘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의 사동문은 ‘-이-’라는 사동 접미사를 활용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은 ‘-이-’와 같은 사동 접미사를 활용한 사동문을 만들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② ㉡의 사동문에서 사동 접미사 ‘-기-’ 대신 ‘-게 하다’를 활용해 사동문을 만들면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겨 하다.’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되므로 적절하다.

④ ㉠과 ㉡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되면서 ‘내가’와 ‘누나’라는 새로운 주어가 생겼으므로 적절하다.

⑤ ㉠, ㉡과 달리 ㉢은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비문이므로 적절하다.

20

㉠의 ‘눅었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의 ‘눅었다’는 사동사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리고 ㉢의 ‘먹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의 ‘먹었다’는 피동사로 주어와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②의 설명처럼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

21

ㄷ을 통해 ‘말다’ 부정문은 ‘마라’, ‘말자’에서 알 수 있듯이 명령문과 청유형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안/못’ 부정문을 사용하여 바꾸게 되면 ‘안/못 떠들어라/떠들자’가 되므로 어법상 어색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ㄱ에서 ‘안’을 ‘못’으로 바꾸면 ‘날씨가 못 좋다.’가 되어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② ㄱ에서 ‘안’은 상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로, 날씨가 ‘좋다’라는 상태를 부정하고 있다.

③ ㄴ에서 ‘못’은 손을 다쳐 수영을 할 수 없는 ‘철수’의 상황에 의한 부정을 표현하고 있다.

⑤ ㄱ의 ‘안 좋다’라는 짧은 부정문을 ‘좋지 않다’는 긴 부정문으로 바꾸거나, ㄴ의 ‘못 한다’라는 짧은 부정문을 ‘하지 못한다’는 긴 부정문으로 바꾸어도 어법상 문제가 없다.

22

ㄱ에서 ‘정수’가 부른 ‘너’는 ‘나’에 해당하므로, 인칭 표현인 ‘너’를 ‘나’로 바꾸어 ‘유희는 나에게 정수가 나를 불렀다고 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ㄱ은 문장 종결 표현인 ‘졌구나’를 ‘졌다’로 적절히 바

꾸어 서술하였다.

㉔ 은 높임 표현인 ‘떠났어요’를 ‘떠났다’로 적절히 바꾸어 서술하였다.

㉕ 은 시간 표현인 ‘내일’을 ‘오늘’로 적절히 바꾸어 서술하였다.

㉖ 은 지시 표현인 ‘이’를 ‘그’로 적절히 바꾸어 서술하였다.

23

㉑ 은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는 나타나지는 않고, 서술어(‘궁리하였다’)의 목적어(탈출 방법)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에 해당한다. 생략된 목적어를 넣은 문장으로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였다.’가 알맞다. ㉒ 의 적절한 사례로는 ‘비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아침에 우산을 챙겼다.’ 등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주어(‘난처한 일’)와 서술어(‘없게 되었다’)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㉑ 의 사례에 해당한다.

㉒ 부사어인 ‘비록’은 ‘~할지라도’나 ‘~하지만’과 호응하므로 ㉒ 의 사례에 해당한다.

㉓ 서술어(‘두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부사어(‘...에’)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이므로 ㉓ 의 사례에 해당한다.

㉔ ‘텔레비전’에 대한 서술어(‘보다’)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이므로 ㉔ 의 사례에 해당한다.

24

㉑ 은 민주가 웃으면서 정민이를 맞이했는지, 정민이가 웃으면서 들어왔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민주와 정민이’가 동시에 웃으며 만났다는 의미는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㉑ ㉑ 의 예문에서는 어머니의 신체 중 손이 큰지, 어머니의 씹씹이가 큰지 명확하지 않다.

㉒ 준호가 구두를 신고 있는 중인지, 구두를 신을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다.

㉓ 아름다운 사람이 그녀인지 이모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㉔ 접속 조사 ‘와’의 결합 때문에, ㉔ 은 할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배 하나와 사과 하나인지, 배와 사과가 각각 두 개인지, 배 하나와 사과 두 개인지 명확하지 않다.

25

‘그녀는 학교에서 되었다’는 서술어 ‘되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보어를 제시해 주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㉒ ㉒ 에서 ‘그’와 ‘나’ 둘 중에 누가 낚시를 더 좋아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가 더

낚시를 좋아하다.’처럼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해야 한다.

㉓ ㉓ 에서 주어인 ‘우리 집의 특징’과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집의 특징은 앞마당이 넓다는 것이다.’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도록 수정해야 한다.

㉔ ㉔ 에서 환경은 ‘개선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동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처럼 주동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㉕ ㉕ 에서 ‘조용히’와 조용하고 엄숙함을 뜻하는 ‘정숙’이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조용히’를 삭제해야 한다.

본문_ p. 288



단원별 실전 문제

IV. 답화

01 ④	02 ①	03 ④	04 ①	05 ⑤
06 ⑤	07 ⑤	08 ③	09 ③	10 ⑤

01

‘직원’이 ‘아, 그러세요?’라고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이 원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요청의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오답 풀이 ㉑ 학생은 직원에게 의사 선생님과 인터뷰하러 왔다고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㉒ 이 답화에서 학생과 직원은 대화하고 있으므로, ‘학생’과 ‘직원’은 화자이기도 하면서 청자임을 알 수 있다.

㉓ 학생이 병원 직원과 대화하는 상황과 ‘오늘 2시에 인터뷰 약속이 있어서 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를 통해, 대화 장면은 학생이 원장과 인터뷰하러 병원에 온 상황임을 알 수 있다.

㉕ 학생의 말인 ‘오늘 오후 2시’라는 말을 통해 ‘학생’과 ‘직원’의 답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상황을 알 수 있다.

02

A가 ‘음악 좀 듣자.’라고 말하자 B가 ‘떠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답화 상황을 고려할 때, ‘음악 좀 듣자.’는 떠들지 말아 달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발화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㉒~㉕ 밑줄 친 부분은 화자의 요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직접 발화라 할 수 있다.

03

제시된 답화는 콩나물이 비타민 C가 풍부해 감기나 숙취에 탁월

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콩나물은 햇빛을 받으면 푸른빛을 띠고 햇빛을 받지 않으면 노란빛을 띠니다.'는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응집성을 깨뜨린다고 볼 수 있다.

04

①의 '거기'는 A가 말한 내용에 등장하는 '우유'를 가리키므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거기'는 B가 자신은 물론 A 역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용한 지시 표현이다.

③ '이거'는 청자인 A가 대화의 장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④ '이리'는 청자인 A가 대화의 장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⑤ '저기'는 청자인 A가 대화의 장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05

㉔는 '윤서'의 '옷'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 ㉕는 건너편에 있는 '옷 가게'를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그리고 ㉖는 뒤에 언급하고 있는 '보라색 옷'을 대신 가리키는 대용 표현, ㉗는 앞에서 언급한 '보라색'을 대신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06

㉑는 '지수'가 말하고 있는 '장갑'을 가리키는 말, ㉒는 지수가 말하고 있는 우리 동네 시장에 있는 '가게'를 가리킨다. 그리고 ㉓는 '성모'와 '지수'가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 ㉔는 듣는 이인 '성모'와 가까이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 ㉕는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로, '편의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㉑, ㉒, ㉕는 지시 표현이고, ㉓, ㉔는 대용 표현임을 알 수 있다.

07

㉔는 문구점에 갔을 때를 의미하고, ㉕는 약속 시간인 '내일 12시'를 가리키므로 ㉔는 ㉕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대화하고 있는 화자와 청자인 정민과 유희 모두를 포함한다.

② 정민이 앞에서 말한 '저번에 놀자고' 약속했던 것을 가리키므로 대용 표현이다.

③ ㉔는 약속 장소를 묻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므로 지시 표현에 해당한다. 그리고 ㉕는 약속 장소인 '학교 앞 정류장'을 가리킨다.

④ ㉔는 이전에 한 약속에 관한 대화 내용에서 벗어난 발화이므로 응집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08

㉔ 뒤의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모든 과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를 볼 때, 이어지는 내용은 앞과 상반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는 현재대로 역접의 접속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는 과일의 맛을 좌우하는 과당의 함량에 관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㉑는 이러한 담화 주제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㉑는 담화의 응집성을 떨어뜨리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㉒는 대용 표현으로 앞에서 언급한 '알파형 과당과 베타형 과당'을 가리키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㉔는 앞에 제시된 '(화면에 제시된 과일을 보여 주며)'를 볼 때, 화면에 제시된 '과일'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⑤ ㉕는 앞의 담화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㉕는 응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대용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9

같은 대상을 철수는 '이 과자'라고 표현하고 영희는 '그거?'라고 표현한 것은 '과자'가 영희보다 철수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내가 먹었지?'는 영희가 철수를 쳐다보면서 한 발화로, 철수가 빵을 먹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면서 이를 확인하려는 심리를 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발화 상황을 고려할 때,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진술에서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수의 행위에 대해 영희가 자신의 불만 또는 언짢음을 방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④ '대신 이 과자라도 먹을래?'라는 철수의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먹을래'라는 영희의 발화에는 주체인 '나'와 대상인 '과자'가 생략되어 있다.

⑤ 과자를 건네는 행위와 '배 안 고파?'라는 물음에 담긴 의도를 고려할 때 점심을 먹었다는 철수의 진술은 과자를 먹으라는 영희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

10

⑤ (가)의 '학교 정문에서 만날까?'는 은아가 정수에게 '학교 정문'이라는 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상황 맥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나)에서 은아가 '실수를 많이 했어.'에는 어떤 실수를 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가)의 '학

교 정문에서 만났을까?’보다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가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문_ p. 292

단원별 실전 문제

V. 어문 규범

01 ②	02 ②	03 ①	04 ⑤	05 ④
06 ①	07 ②	08 ②	09 ④	10 ④
11 ⑤	12 ④	13 ④	14 ⑤	15 ④
16 ④	17 ②	18 ②		

01

〈보기〉의 ‘다만 3에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무늻’은 [무니]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다만 1’에서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쯤, 처’는 [저, 쯤, 처]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쳐’는 [다처]로 발음해야 한다.

③ ‘다만 4’에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우리의’는 [우리의/우리에]로 발음할 수 있다.

④ ‘다만 2’에서 ‘예, 레’ 이외의 ‘ㄹ레’는 [ㄹ]로도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지혜’는 [지혜/지혜]로 발음할 수 있다.

⑤ ‘제5항’에서 ‘ㅈ ㅊ ㅋ ㆁ 과 ㄷ ㄱ ㆁ ㄴ’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무예’는 [무:예]로 발음해야 한다.

02

제10항에서 다만, ‘뵈-’은 자음 앞에서 [뵈]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뵈게’는 [뵈께]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제10항에서 겹받침 ‘ㄸ’은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제11항’에서 겹받침 ‘ㅂ’은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제14항’에서 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제14항’에서 껌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받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03

‘꺾어’는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와 결합되는 경우
 이므로, 제13항에 따라 [까까]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젊어’는 [젊머]로 발음해야 한다.

③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여덟을’은 [여덟블]로 발음해야 한다.

④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덥이다’는 [더피다]로 발음해야 한다.

⑤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밭 아래’는 [바다래]로 발음해야 한다.

04

‘얹고[안코]’는 ‘ㅎ(ㅅ)’ 뒤에 ‘ㄱ’이 결합되어 [ㄱ]으로 발음되는 경우로, 이는 ㄷ이 아니라 ㄱ에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쌓지[싸치]’는 ‘ㅎ’ 뒤에 ‘ㄷ’이 결합되어 [치]으로 발음되는 경우로, 이는 ㉠에 해당한다.

② ‘닭도록[달토록]’은 ‘ㅎ(ᄃᆞᆫ)’ 뒤에 ‘ㄷ’이 결합되어 [ㄷ]으로 발음되는 경우로, 이는 ㉠에 해당한다.

③ ‘닿네[단네]’는 ‘ㅎ’ 뒤에 ‘ㄴ’이 결합되어 ‘ㅎ’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로, 이는 ㉠에 해당한다.

④ ‘놓인다[노인다]’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어 ‘ㅎ’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로, 이는 ㉔에 해당한다.

05

‘받는다’는 받침 ‘ㄷ’이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반는다]로 발음되므로 제18항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제23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는다]로 발음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꽃망울’은 받침 ‘ㄷ’이 ‘ㅁ’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꼇망울]로 발음되므로 제18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웃고름’은 받침 ‘ㅅ’ 뒤에 연결되는 ‘ㄱ’이 [ɣ]으로 발음되어 [온꼬름]으로 발음되므로 제23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맞먹다’는 받침 ‘지’의 ‘ㄹ’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며,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ㄷ’이 [ㅌ]으로 발음되어, [만매ㅌ]로 발음된다. 따라서 제18항과 제23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웃맵시’는 받침 ‘ㅅ’이 ‘ㄱ’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며, 받침 ‘ㅂ’ 뒤에 연결되는 ‘ㅅ’이 [ㅃ]으로 발음되어, [웃맵씨]로 발음된다. 따라서 제18항과 제23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6

‘신문’과 같은 조건에서 ‘니’ ‘미’에 동화된다는 내용은 <보기>에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신문’을 [심문]으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ㄸ, ㅌ, ㄴ, ㄹ, ㅍ, ㅊ,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o, ㄴ, ㄹ]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먹는’은 [멍는]이 표준 발음이다.

③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릉’은 [강녕]이 표준 발음이다.

- ④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천리’는 [철리]가 표준 발음이다.
- ⑤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땀받이’는 [땀바지]가 표준 발음이다.

07

‘갈증’은 <보기>에 제시된 표준 발음법을 통해 질문을 해결할 수 없다. ‘갈증’은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조항에 따라 [갈쑹]으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① ‘옆집’은 제23항에 따라 [엽집]으로 발음한다.
- ③ ‘낫설다’는 제23항에 따라 [낫썰다]로 발음한다.
- ④ ‘더듬지’는 제24항에 해당되므로 [더듬찌]로 발음한다.
- ⑤ ‘안기다’는 제24항의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안기다]로 발음한다.

08

표준 발음법 제29항 [붙임 1]에 따르면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해야 하므로, ‘솔잎’의 표준 발음은 [솔립]이다.

- 오답 풀이** ① ‘밥물’은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따라 [밥물]로 발음해야 한다.
- ③ ‘할 일’은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므로, 표준 발음법 제29항 [붙임 1]과 [붙임 2]에 따라 [할릴]로 발음해야 한다.
- ④ ‘집일’의 발음은 먼저 ‘ㄴ’ 음이 첨가된 다음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라 [집닐]로, 다시 제18항에 따라 [집닐]로 발음해야 한다.
- ⑤ ‘영업용’의 발음은 먼저 ‘ㄴ’ 음이 첨가된 다음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라 [영업뇽]으로, 다시 제18항에 따라 [영엄뇽]으로 발음해야 한다.

09

<보기>의 ‘제30항-3’에서 사이시옷 뒤에 ‘ㅣ’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ㅣ]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나문넙]이 아니라 [나문넙]으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제30항-1’에서 ‘ㄱ, ㄷ, ㅂ, ㅌ,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콧등’을 [코똥/콘똥]으로, ‘뱃전’을 [배쩐/뽕쩐]으로 발음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제30항-3’에서 사이시옷 뒤에 ‘ㅣ’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ㅣ]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아랫이’를 [아랜니]로 발음하

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제30항-2’에서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뿔마루’를 [뿔마루]로 발음하는 것은 적절하다.

10

‘있을 따름’에서 ‘따름’은 의존 명사로,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의존 명사의 경우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굳이’를 소리 나는 대로 ‘구지’라고 적는 것은 표음주의 표기에 의한 것이다.
- ② ‘꿈에’를 ‘꾸메’로 적게 되면 ‘꿈’이라는 형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꿈’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
- ③ ‘거름(비료)’은 어근의 뜻이 본뜻과 멀어져 소리대로 적는 것에 해당한다.
- ⑤ ‘이것은 물이다.’에서 ‘은’은 조사로, 앞의 단어인 ‘이것’에 붙여 써야 한다.

11

<보기>의 ‘다만’ 규정의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겹쳐 나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설명에 따라, ㉠에서 ‘깍두기’는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인 ‘ㅌ’으로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깍뚜기’가 아닌 ‘깍두기’로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담뽕’이라고 써야 한다.
- ② 한 단어 안의 첫음절 ‘ㅇ’ 받침 뒤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몽땅’으로 써야 한다.
- ③ 한 단어 안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해쓱한’으로 써야 한다.
- ④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고 있으므로 ‘짹짹한’으로 써야 한다.

12

④의 ‘아니요’는 첫 번째 규정에 따라 ‘요’로 소리 나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아니오’로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오시오’는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 경우이므로 표기가 적절하다.
- ② ‘요’는 종결 어미 ‘-지’ 뒤에 덧붙은 보조사이다. ‘요’가 보조사

임은 이를 뻔 ‘영화 구경 가지.’가 성립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③ ‘아프시오’는 선어말 어미 ‘-시-’에 종결형 어미 ‘-오’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⑤ ‘설탕이요’에서 ‘이요’는 연결형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요’로 적어야 한다.

13

‘무덤’은 동사 ‘묻다’의 어간 ‘묻-’에 접미사 ‘-엄’이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 즉, 제19항 [붙임]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제20항 [붙임]의 규정을 적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깊이’는 형용사 ‘깊다’의 어간 ‘깊-’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제19항’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너머’는 동사 ‘넘다’의 어간 ‘넘-’에 접미사 ‘-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므로 ‘제19항 [붙임]’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바둑이’는 명사 ‘바둑’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제20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넋두리’는 명사 ‘넋’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두리’가 붙어서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14

‘여닫이’의 ‘여’는 ‘열다’의 어간 ‘열’이 ‘닫다’와 합성되면서 ‘ㄹ’이 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8항인 끝소리가 ‘ㄹ’인 말과 만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는에 따라 ‘여닫이’로 표기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꽃잎’은 [꼇닙]으로 발음되지만 제27항에 따라 ‘꽃잎’으로 표기함을 알 수 있다.

② ‘헛웃음’은 [허두슴]으로 발음되지만 제27항에 따라 ‘헛웃음’으로 표기함을 알 수 있다.

③ ‘파님’은 명사 ‘딸’과 접미사 ‘-님’이 결합한 경우이므로, 제28항에 따라 ‘딸님’이 아니라 ‘파님’으로 표기함을 알 수 있다.

④ ‘사흔날’은 ‘사흘’과 ‘날’이 어울린 경우로, 제29항에 따라 ‘사흘날’이 아니라 ‘사흔날’로 표기함을 알 수 있다.

15

〈보기〉의 제38항을 통해 ‘보이어’는 ‘보-’ 뒤에 ‘-이어’가 어울려

‘뵤어’ 또는 ‘보여’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꼬았다’는 ‘꼬-’에 ‘-았-’이 어울려 ‘꼰다’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② ‘쇠었다’는 ‘쇠-’에 ‘-었-’이 어울려 ‘췌다’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③ ‘괴어’는 ‘괴-’에 ‘-어’가 어울려 ‘괘’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⑤ ‘트이어’는 ‘트-’ 뒤에 ‘-이어’가 어울려 ‘티어’ 또는 ‘트여’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16

제45항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국장 겸 과장’은 적절한 띄어쓰기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꽃에서부터’의 ‘에서부터’는 조사와 조사가 결합하고 있는 것이므로 ‘꽃에서부터’로 붙여 써야 한다.

② ‘있는대로’에서 ‘대로’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있는 대로’로 띄어 써야 한다.

③ ‘연필 두 자루’에서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때 그곳’은 적절한 띄어쓰기라 할 수 있다.

17

‘일찍이’는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라는 뜻을 지닌 부사로, 부사 ‘일찍’ 뒤에 부사화 접미사 ‘-이’가 붙은 것이다. 따라서 ‘일찍이’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18

〈보기〉에서 ‘지’는 어미 ‘-(으)ㄴ지, -(으)ㄹ지’의 일부일 때는 띄어 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부터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에서 ‘할 지’의 ‘지’는 어미 ‘-ㄹ지’의 일부이므로 ‘할지’라고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에서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른다.’에서 ‘힘들다’의 어간 ‘힘들-’에 어미 ‘-ㄴ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④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에서 ‘지’는 강아지가 집을 나갔을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⑤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명 몫의 일을 해낸다.’에서 ‘부지런한지’의 ‘지’는 어미 ‘-ㄴ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단원별 실전 문제

VI. 국어사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④
11 ③	12 ①	13 ④		

01

〈보기〉에서 이체자인 ‘ㅇ, ㄹ, ㅅ’은 각각 ‘ㄱ, ㄴ, ㅅ’과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가획의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가 아니라 하였다. 따라서 ‘ㄹ’은 기본자 ‘ㄴ’과 소리 나는 위치가 같지만 ‘ㄴ’에 획을 더하여 만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보기〉를 통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ㄱ, ㄴ, ㅁ, ㅂ, ㅇ’을 만들고,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는 가획자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ㄷ’은 기본자 ‘ㄴ’을 가획하여, ‘ㅈ’은 기본자 ‘ㅅ’을 가획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ㅋ’은 ‘ㄱ’을 가획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ㄱ’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남을 알 수 있다.

② 이체자 중에서 ‘ㄹ’은 오늘날에도 사용하지만, ‘ㅇ, ㅅ’은 오늘날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종성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사용하였다 하였으므로, 기본자 ‘ㄱ, ㄴ, ㅁ, ㅂ, ㅇ’은 초성과 종성에 모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가)에서는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되는 ‘연서’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 사용된 것은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는 나란히 써야 한다는 ‘병서’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 할 수 있다.

03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거순’에서 ‘ㄴ’은 음성 모음에 해당하고, ‘ㄴ’은 양성 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순’은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근대 국어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⑤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04

‘ㅂㅅㅅㅅ’의 현대어 풀이가 ‘뽕ㅅ’이므로 ‘ㅂㅅㅅㅅ+ㅅ’으로 분석할 수 있

다. 이렇게 볼 때, ‘ㅂㅅㅅㅅ’의 끝소리가 자음이어서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나리’의 현대어 풀이가 ‘날이’이므로 ‘날+이’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날’의 끝소리가 자음이어서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므로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③ ‘ㄷ리’의 현대어 풀이가 ‘다리가’이므로 ‘다리+ㅇ’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ㄷ리’가 모음 ‘이’로 끝나므로 ‘ㅇ(영형태)’로 실현되어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④ ‘대장뽕’의 현대어 풀이가 ‘대장부가’이므로 ‘대장부+ㅣ’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장부’의 끝소리가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에 해당하므로 주격 조사 ‘ㅣ’가 나타난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⑤ ‘공자ㅣ’의 현대어 풀이가 ‘공자가’이므로 ‘공자+ㅣ’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공자’의 끝소리가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에 해당하므로 주격 조사 ‘ㅣ’가 나타난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05

‘거북’의 현대어 풀이가 ‘거북’이므로 ‘거북’은 동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북’에서는 음성 모음이 사용되었으므로 ㉠에는 관형격 조사인 ‘의’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모’의 현대어 풀이가 ‘나무’이므로 ‘나모’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경우 음성 모음이나 양성 모음에 상관없이 ‘ㅅ’이 사용됨을 알 수 있으므로 ㉡에는 관형격 조사 ‘ㅅ’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06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부테(부처가)’이므로 주어가 3인칭이고, ‘누가, 언제’ 등과 같은 물음말이 없으므로 ‘-ㄴ가’, ‘-ㄴ가’와 같은 ‘아’형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네(너는)’로서 주어가 2인칭에 해당하므로 ‘-ㄴ다’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에는 ‘나사미신’가가, ㉡에는 ‘가는다’가 제시되어야 한다.

07

㉢에서 ‘뽕ㅅ고’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어머님’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주체인 ‘아들’을 높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뽕ㅅ고’의 선어말 어미 ‘-ㅅ-’을 통해 객체 높임법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오시니잇고’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뽕ㅅ고’의 선어말 어미 ‘-ㅅ-’을 통해 객체인 ‘어머님’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내시니아다’의 ‘-시-’를 사용하여 생략된 주체인 ‘하늘’을, ‘-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08

‘·노·미’의 현대어 풀이가 ‘놈이’이므로, ‘·노·미’는 앞 글자의 자음을 뒤의 모음에 이어 쓰는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랏·말쑈·미’를 보면 옆에 점이 없거나 점이 하나 또는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성조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 옆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 중 하나이다.

② ‘·쁘·들’을 통해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인 ‘ㅂ’과 ‘ㄷ’이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이·를爲·왕·ᄃᆞ·야’는 현대어 풀이를 볼 때 ‘이·를 爲·왕·ᄃᆞ·야’로 띄어 써야 한다. 하지만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수·비’를 통해 현대 국어에는 없는 자음인 ‘ㅃ’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9

‘저비’는 현대 국어의 ‘제비’에 해당하는 단어로 현대 국어로 오면서 형태가 변하였지만, 의미는 달라진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ᄃᆞᆫᄃᆞᆫ’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② ‘ᄃᆞᆫ’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인 ㅃ(반치음)과 모음인 ㅓ(아래 아)를 사용하였다.

③ ‘아·나’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방식(이어 적기)을 적용하였다.

④ ‘너·ᄃᆞᆫ’의 현대어 풀이가 ‘여름’이라는 것을 볼 때,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0

‘가시니’는 어간 ‘가-’뒤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 높임 표현이 실현된 것으로, 특수 어휘가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ᄃᆞᆫ’은 초성에 어두 자음군 ‘ㅃ’이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ᄃᆞᆫ’은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고, ‘자취를’은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브리ᄃᆞᆫ’의 ‘ᄃᆞᆫ, ㅃ’은 현대 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이므로 적절하다.

⑤ ‘거름, 조차’는 ‘걸음, 좇아’를 이어 적기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11

‘(받)은 거시라’는 ‘(받은) 것이므로’로 풀이됨을 알 수 있으므로, ‘-라’는 종속적 연결 어미임을 알 수 있다. ‘-라’가 평서형 종결 어미로 사용된 예는 ‘ᄃᆞᆫ이니라’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평서형 종결 어미로 ‘-다’가 아닌 ‘-라’를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주격 조사 ‘가’를 사용한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는 주격 조사 ‘가’가 없었고 ‘이’만 쓰였다. 그리고 ㉠과 같이 ‘ㅣ’ 모음 계열이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ㅣ’의 형태로 쓰였다.

② ‘드려’는 ‘에게’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조사이다.

④ ‘몸을’은 ‘父母를’과 비교하면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⑤ ㉡은 현대 국어에서는 ‘이름’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이를 통하여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어휘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2

‘스름은’은 ‘스름’과 ‘은’을 끊어 적은 것이다. ‘스름’으로 적어야 이 어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중세 국어에서는 자음 뒤에서 양성 모음일 때 ‘ㄹ’이 목적격 조사로 사용되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같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를’을 사용하였다.

③ ‘ᄃᆞᆫ’의 ‘ᄃᆞᆫ’은 현대 국어에서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여전히 사용되었다.

④ 함용 병서인 ‘ᄃᆞᆫ’은 근대 국어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⑤ 현대 국어의 ‘있으면’과 비교해 볼 때 근대 국어의 ‘잇스면’은 앞 글자의 받침 ‘ㅃ’을 거듭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3

㉡은 ‘ᄃᆞᆫ’과 ‘애’의 결합형으로 끊어 적기의 표기 형태에 해당하지만, ㉢은 ‘니름’과 ‘이’의 결합형으로 이어 적기의 형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④와 같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ㄱ → ㄱ’의 단모음화 과정을 거쳐 ‘서울’로 변하고, ㉡도 ‘ㄱ → ㄱ’, ‘ㄴ → ㄴ’의 단모음화 과정을 거쳐 ‘저기에서’로 변한다. 따라서 ㉠과 ㉡은 단모음화 이전의 형태에 해당한다.

② ㉠의 중세 국어 어형은 ‘도ᄃᆞᆫ’임을 추리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은 구개음화의 적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현대어로 ‘가기’에 해당하므로 ㉢에서 ‘-기’는 명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⑤ ㉣에서 ‘-엿-’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 해당한다.

헛갈리는 문법 개념 연습장

헛갈리는 문법 개념 1_ '파생어' 구분하기

파생어: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 접두 파생어: 파생 접사+어근
- 접미 파생어: 어근+파생 접사

■ 파생어를 구분하려면 접두사에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그 접두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다음 접두사의 의미를 살펴보자.

- 개-: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 뜻을 더함.
예) 개떡, 개살구, 개철쭉 등
- 군-: '쓸데없는, 덧붙은' 뜻을 더함.
예) 군말, 군살, 군소리, 군침, 군식구 등
- 날-: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뜻을 더함.
예) 날고기, 날것, 날김치 등
- 돌-: '품질이 나쁜 것', '산이나 들에 저절로 생겨서 사람이 가꾼 것보다 못하게 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예) 돌배, 돌미나리 등
- 덧-: '거듭된' 또는 '겹쳐 신거나 입는' 뜻을 더함.
예) 덧신, 덧니, 덧저고리, 덧버선 등
- 되-: '도리어, 도로, 다시' 뜻을 더함.
예) 되새기다, 되살리다, 되풀다, 되썩다, 되갚다 등
- 드-: '심하게' 또는 '높이' 뜻을 더함.
예) 드날리다, 드넓다, 드높다 등
- 막-: '닥치는 대로 하는' 뜻을 더함.
예) 막노동, 막말, 막일 등
- 말-: (1) '말이' 뜻을 더함.
예) 말며느리, 말아들, 만사위 등
(2) '그 해에 처음 나온' 뜻을 더함.
예) 말배, 말나물 등

- 맨-: '다른 것이 없는' 뜻을 더함.
예) 맨몸, 맨발, 맨손, 맨입, 맨주먹 등
- 새-/시-, 셋-/셋-: '매우 길고 선명하게' 뜻을 더함.
예) 새파랗다/시퍼랗다, 셋노랗다/셋누랗다 등
- 솟-: '더럽혀지지 않아 깨끗한' 뜻을 더함.
예) 솟눈, 솟사람, 솟백성 등
- 시-: '시집'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
- 양-: '서양'을 줄여서 이르는 말
예) 양배추, 양복, 양송이, 양상추 등
- 애-: (1) '맨 처음' 뜻을 더함.
예) 애당초
(2) '어린' 또는 '작은' 뜻을 더함.
예) 애벌레, 애송아지, 애호박 등
- 엇-: '어긋나게' 또는 '뺄뽀로' 뜻을 더함.
예) 엇나가다, 엇걸리다 등
- 엇-: '몰래' 뜻을 더함.
예) 엇보다, 엇듣다, 엇살피다 등
- 올-: '열매가 보통 것보다 일찍 익은'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올벼, 올밤, 올되다 등
- 짓-: '함부로', '마구', '몹시'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짓밟다, 짓이기다, 짓누르다 등
- 치-: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 뜻을 더함.
예) 치뜨다, 치닫다, 치받다, 치솟다 등
- 쫓-: (1) '덜 익은' 또는 '처음 나온'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쫓사과, 쫓고추, 쫓나물 등
(2) '미숙한'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쫓사랑, 쫓잠 등

- 헛-: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의미를 더함.

예 헛수고, 헛고생, 헛소리 등

- 흘-: ‘짜이 없고 하나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예 흘아비, 흘몸, 흘어미 등

- 휘-: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함.

예 휘잡다, 휘갈기다, 휘날리다 등

■ 다음 접미사의 의미를 살펴보자.

- -개: (1)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함.

예 날개, 덮개, 지우개 등

- (2)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함.

예 오줌싸개, 코흘리개 등

- -꾼: (1)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함.

예 살림꾼, 소리꾼, 심부름꾼, 씨름꾼 등

- (2)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함.

예 낚시꾼, 난봉꾼, 말쑥꾼, 잔소리꾼 등

- (3)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함.

예 구경꾼, 일꾼 등

-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함.

예 장난꾸러기, 욕심꾸러기, 잠꾸러기, 말쑥꾸러기 등

- -님: (1) ‘높임’의 뜻을 더함. 예 사장님, 총장님 등

- (2)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함.

예 달님, 별님, 토끼님, 해님 등

- (3)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함.

예 공자님, 맹자님, 부처님, 예수님 등

- -보: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함.

예 피보, 싸움보, 잠보, 털보, 먹보 등

-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함.

예 간판장이, 땀장이, 양복장이 등

- -기: (1) 명사를 만들.

예 읽기, 보기, 쓰기, 달리기 등

- (2) ‘기운’, ‘느낌’, ‘성분’의 뜻을 더함.

예 시장기, 소금기, 기름기 등

- (3) ‘기록’의 뜻을 더함.

예 여행기, 유람기 등

- (4) ‘기간’, ‘시기’의 뜻을 더함.

예 방황기, 유아기, 청소년기 등

- -이: (1) (몇몇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들.

예 높이, 길이, 먹이 등

- (2) (일부 부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들.

예 꼼꼼이, 더욱이, 일찍이 등

- (3) (일부 1음절 명사의 반복 구성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들.

예 집집이, 나날이, 다달이 등

- -히: 부사를 만들.

예 조용히, 무사히, 나란히 등

- -추-: (몇몇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들.

예 낮추다, 늦추다, 곧추다 등

- -롭다: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들.

예 신비롭다, 자유롭다, 명예롭다 등

햇갈리는 문법 개념 2_ 품사 구분하기(품사의 통용)

품사의 통용: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의 9품사는 각 부류에 소속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나, 단어 가운데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함.

■ 다음 단어의 품사를 확인해 보자.

- (1)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 명사)

나도 그사람만큼 땀 수 있다. (→ 조사)

- (2) 그 애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 수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 관형사)
- (3)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 형용사)
 벌써 날이 밝는다. (→ 동사)
- (4) 바람이 아니 분다. (→ 부사)
아니! 어디 가겠단 말이나. (→ 감탄사)
- (5) 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바입니다. (→ 지시 대명사)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 (→ 지시 관형사)
- (6) 여기에 물건을 놓아라. (→ 지시 대명사)
 물건을 여기에 놓아라. (→ 지시 부사)
- (7) 그는 평생을 바쳐 봉사하였다. (→ 명사)
평생 놀고 먹었다. (→ 부사)
- (8) 그는 약간의 돈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 명사)
 그 사람은 약간 불안한 것 같았다. (→ 부사)
- (9) 이 일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 (→ 대명사)
아무 연필이라도 빨리 가져오너라. (→ 관형사)
- (10) 보다 빠르게 뛰다. (→ 부사)
 그는 누구보다도 걸음이 빠르다. (→ 조사)
- (11)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 명사)
 그는 오랜 연습과 노력 끝에 세계적 예술가로 성장하였
 다. (→ 관형사)
- (12)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 (→ 형용사)
 우리 아들은 키가 쑥쑥 크다. (→ 동사)

햇갈리는 문법 개념 3_ 안긴문장 구분하기

안긴문장과 안은문장

- 안긴문장: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출문장
- 안은문장: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출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함.

■ 다음 안긴문장의 종류를 확인해 보자.

- (1) 동생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부사절)
- (2) 그 아파트는 거실이 넓다. (→ 서술절)
- (3)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 (→ 인용절)
- (4) 그 공부는 하기가 쉽지 않다. (→ 명사절)
- (5) 나는 친구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관형절)
- (6)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 명사절)
- (7) 길이 비가 와서 질다. (→ 부사절)
- (8) 혼자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 명사절)
- (9) 아버지께서는 내가 할 일을 알려 주셨다. (→ 관형사절)
- (10) 지금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 명사절)
- (11) 동생은 엄마에게 손발이 닳도록 빌었다. (→ 부사절)
- (12)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
 하셨다. (→ 인용절)
- (13) 나는 그 사람이 범인임을 알아차렸다. (→ 명사절)

MEMO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a dashed green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